2012.09.05

아시아 · 대양주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

목 차

Ⅰ. 아시아 · 대양주 시장 개황

1. 시장특성 / 1
2. 불황기의 시장 환경 변화 / 3
3. 진출전략 / 6

Ⅱ. 국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1. 싱가포르 / 8
2. 인도네시아 / 26
3. 베트남 / 47
4. 필리핀 / 34
5. 태국 / 101
6. 말레이시아 / 117
7. 미얀마 / 134
8. 캄보디아 / 151
9. 라오스 / 170
10. 호주 / 181
11. 뉴질랜드 / 199

Ⅰ. 아시아 · 대양주 시장 개황

1 시장특성 및 중요도

❑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잠재력 큰 거대시장

○ 인구 6억, GDP 2조1500억 달러의 중규모 경제권,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인도네시아, 유연탄 · 팜오일 생산 세계 1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 성장엔진으로 부상

- 아세안 경제성장률 추이(IMF, %) : '10년 7.0 → '11년 4.5 → '12년 5.4

○ 경제성장 및 중산층 증가에 따라 거대 소비시장 형성

○ 유통시장 규모 확대 · 다양화 진행

- 필리핀 소매유통시장, '11년 605억 달러 → '15년 678억 달러 성장 전망

❑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추구

○ 중국, 인도 등 주요 성장시장을 잇는 대외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 ASEAN 경제통합 추진 및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FTA 체결

- EU-베트남 FTA(4월) 및 한-베트남 FTA(8월) 협상 개시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TPP 협상 참여

❑ 다양한 문화 · 경제적 스펙트럼 공존

○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등 공존

- 종교 : 불교(태국), 기독교(필리핀), 이슬람교(인도네시아) 등

○ 싱가포르에서 미얀마까지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존

- '11년 1인당 GDP(IMF 예상, '12년 4월) : 싱가포르 USD 49,271 / 미얀마 USD 832

❑ 우리의 2대 수출, 최대 해외투자 지역

○ 수출 : 중국 746억 달러, 아세안 448억 달러, 미국 354억 달러('12. 1~7월)

○ 투자 : 아세안 23억 달러, 미국 15억 달러, 호주 15억 달러('12 상반기, 투자금액 기준)

❑ 투자진출 기회확대

○ 정치 안정화,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

- 태국, '11년 성공적 정권교체로 정국 안정 기틀 마련
- 미얀마, 민주화와 함께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및 관계 개선

○ 금융 등 서비스업 분야 개방 확대

- 27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지분 100% 보유 허용('09년)
- 미국의 對미얀마 신규 투자 및 금융서비스 거래 일반 승인('12.7.11.)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의 미얀마 진출 확대 전망
- 인니, 은행과 금융기관 40%, 비금융기관 30%, 개인 20%까지 은행 지분 보유 허가. 외국인은 최대 90%까지 은행 지분 소유 가능

❑ 열악한 인프라 개선,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프로젝트 수요 급증

○ 경제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열악한 인프라개선 위한 투자 지속

- 인니, '13년 예산의 12%(193조 루피아) 인프라 개선에 투자
- 베트남, 전력난 해소 위해 '15년까지 발전용량(58,000MW) 증설 예정
- 미얀마,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2년까지 15,400MW 증설 계획

○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플랜트, 빌딩 등 건설 프로젝트 증가

❑ 신성장동력산업 기회 증대

○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통신 산업 비즈니스 모델 진화

○ 각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녹색산업 활성화

- 싱가포르, '30년까지 건물의 80% 그린빌딩화 달성 목표수립 및 관련 제도 강화

2 불황기의 시장환경 변화

❑ (경제동향) 내수시장 활성화, 역내교역 증대로 경제성장 지속

○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증가, 인프라 건설 등 경기부양책 강화, 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 등에 따라 내수시장 성장 지속

-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등 경기부양책 강화로 수출 감소분 상쇄

* '12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6.4% 경제성장 기록

- 말레이시아, 건설경기 호조로 '12년 5% 성장 전망
- 미얀마, 신정부의 개혁·개방 조치와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완화가 맞물려 미얀마 시장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 급증
- 필리핀, 해외근로자 본국송금액 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 및 경제성장 지속 전망

* '12년 필리핀 해외근로자 본국송금액 211억 달러 전망('11년 201억 달러) 및 1분기 경제성장률 6.4% 기록

○ AFTA 효과, 신흥국 내수시장 활성화 등으로 역내 교역 증가

- 싱가포르의 주요 교역국, 최근 10년 간 유럽, 미국에서 아세안, 동북아로 이동

* '12년 2분기 싱가포르의 수출, 對인도네시아 19%↑, 對홍콩 31%↑, 對미국 11%↓

○ 아세안, '12년 5.4% 경제성장 전망(IMF, 4월)

❑ (위협요인) 유럽재정위기 지속, 비관세장벽 강화, 경쟁심화, 노동시장 여건 악화

○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위축으로 경제성장세 둔화 진행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강화

-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양도법안 발표, 광물 및 기타 제품 수출관세 부과, 수입자인증번호 제도 수정 등 비관세 장벽 도입

* 광업권 소유 외국인투자의 경우 생산 개시 후 6년째부터 10년째까지 최소 51%의 지분을 인도네시아 내국인에게 양도토록 하는 광산 지분 양도법안을 대통령령으로 발표(12. 3. 9)

* 석탄을 제외한 65개 광물에 대해 20%, 고무 15~25%, 목재 2~15% 등의 수출관세 부과

- 베트남, 자동차, 화장품 등 사치품과 중고기기 등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및 철강 수입업 등록제 실시 추진

○ 미래성장기반인 아세안 시장 내 한중일 경쟁 심화

- 수출, 인프라프로젝트 수주, 자원개발 등 시장선점 위한 경쟁심화

* 중국 국영기업, 막대한 자금력으로 인니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저가 공세

* 중국, 라오스 최대 화력발전소인 홍사 프로젝트(1,878MW/40억 달러)에 최대 지분 소유

○ 임금상승, 노동분쟁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 여건 악화

- 말레이시아, '12년 최저임금제 본격 시행(월 900링깃)
- 미얀마, 최저임금제 도입 예정(59,760짜트(67달러)로 예상)
- 캄보디아, '12년 최저임금 20% 인상(61달러→73달러) 및 노동자 파업 급증('11년 39건→'12년 5월 41건)
- 인도네시아, 아웃소싱 직원의 정규직 전환 요구 분쟁 증가
- 싱가포르, 산업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축소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

❑ (기회요인) 소비시장 성장, 인프라투자 증가, 경기부양책 추진, 녹색산업 육성, 한류열풍, 투자환경 개선 및 개별 FTA 추진

○ 중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소비시장 성장 가속

- '12년 말레이시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 및 캄보디아 1인당 GDP 1000달러 진입 전망
- 고가소비재 구매 증가, 친환경·웰빙 소비트렌드 등 소비패턴 고급화 진행
- 태국 유통시장, '09년 이래 연평균 10% 성장 지속('11년 764억 달러)
-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산업 급성장, '20년 GDP의 9.4% 차지 전망('10년 2.2%)

○ 열악한 인프라 개선 위한 인프라건설 투자 증가

- 캄보디아, '13년까지 SOC 확충에 150억 달러 투자, 이 중 108억 달러를 외자유치 및 원조 자금으로 충당
- 미얀마, '11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기획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으로 도로, 통신, 전력 등 기초 인프라망 개선에 총력
- 통신 인프라 개선, u-City, e-Government, 스마트그리드 등 구축 추진에 따른 IT/SW 인프라 프로젝트도 활발

○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 태국, 저금리 대출 정책, 법인세 단계적 인하, '13년 6월까지 제방 및 관계 사업에 투입할 113억 달러 자금 마련, 향후 5~10년 간 700억 달러 SOC 투자 계획 구상 등 경기회복 촉진정책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세 지속 전망
- 베트남, 최근 3년 간 저성장 기조 지속과 금년 이후 물가안정으로 경기부양책 추진 및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확대로 산업 인프라 및 개발 수요 증대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산업 프로젝트 수요 증가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추진 및 녹색산업 프로젝트 활발

* 인도네시아 : '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현 4.5%에서 17%까지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발전차액보조금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산업 발전 정책 추진

* 필리핀 : 재생에너지법('09.1월), 바이오연료법('07.12월) 발효 등 제도 완비, BIG SHOW (Biofuels/Biomass, Geothermal, Solar, Hydro, Ocean, Wind) 선정 등 신재생에너지 및 CDM 사업 적극 육성

* 말레이시아 : ETP(경제변혁프로그램,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에서 태양광 발전 용량 증설 추진, 에너지절감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병원지원 서비스 시장 확대

- 경제성장에 따라 수처리 프로젝트 등 녹색산업 프로젝트 수요 증가

○ 한류열풍 지속에 따른 한국 브랜드이미지 상승

- 문화콘텐츠, 미용제품 등 한류 관련 제품 수출 지속 증가
  · 미얀마, 한국 드라마의 열풍이 한국산 화장품, 식음료, 의류, 액세서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업계 진출 모색 중
- 서비스분야 진출여건 개선에 따라 미용, 화장품, 식음료, 의류 등 4대 부문 프랜차이즈 진출 폭증
  · 싱가포르, 최근 10년 간 한식당 수 급증(10여개 → 130여개)

○ 경제자유화 및 투자환경 개선

- 미얀마, 경제 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노동법 등의 개정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추진 및 민간은행의 외국환거래 허가 등 외환체계 정비
- 말레이시아, '09년부터 제조업 외국인투자 지분 100% 허용

○ 아세안 개별국과의 FTA 체결 추진

-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진행 중

3 진출전략

❑ (수출 확대) 성장하는 내수 유통시장 및 시의성 있는 유망품목 집중 공략

○ 현지 유력 유통망 및 할랄 시장 공략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확대
- 온·오프라인 유력 유통망 초청 소싱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할랄 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및 할랄 제품 전문 유통업체 초청 상담회 개최

○ IT·자동차부품 등 수요급증 품목에 대한 시장선점 강화
- 수출상담회, 판촉전, 상품전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회 확대

(미얀마) 3월 15일부터 개인의 자동차 수입허가로 자동차 및 부품 수요 급증
(말레이시아) '14년부터 백열등 생산, 수입, 유통 금지로 LED 조명 수요 확대 전망
스마트폰 시장, '11년 23억링깃에서 '14년 33억링깃까지 확대 전망
(인도네시아) 통신사 XL, 데이터 및 3G 네트워크 구축 등에 '12년 8억5000만달러 투자 예정
'12년 1~7월 자동차 판매,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64만대)

○ 한류열풍을 활용한 대형사업 추진으로 한국 브랜드이미지 제고
- 한국 첨단기술 및 우수디자인 제품 홍보 및 수출상담회 개최
- 한국 상품전 등 대형사업 추진 및 문화행사 병행 개최 추진

◇ AT&D Korea Roadshow in Asia(싱가포르, 10월)
◇ 할랄 세계시장 설명회 및 상담회(서울, 10월)
* 할랄 세계시장 규모 : 2조달러 추산, 매년 10% 성장 전망
◇ 방콕 충남우수상품전(방콕, 10월)
◇ 미얀마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양곤, 11월)
* 미얀마 최초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한국영화제, 태권도대회 등 문화행사 병행 개최
* 미얀마 '13년 동아시안게임 개최, '14년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 수행 등에 따른 사업기회 선점 지원
◇ 캄보디아 OPOP 전시회 한국관 참가(프놈펜, 12월)
* 캄보디아 최대 전시회 참가 및 캄보디아 '12년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 수행에 따른 사업기회 선점 지원
◇ 한국 우수상품 판촉전(호치민, 12월)
* KOTRA-롯데마트 MOU 후속사업(B2C 판촉전)

❑ (프로젝트 진출) 신흥국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인프라프로젝트 지원

○ 공공프로젝트 발주기관과 협력, 프로젝트 설명회 · 상담회 개최
○ SOC건설, 전력기자재, 녹색산업 프로젝트 수주 확대 도모

◇ 아시아 프로젝트 플라자(하노이, 10월)
◇ 동남아지역 그린파트너링 상담회(쿠알라룸푸르, 10월)
◇ 한-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포럼(마닐라, 11월)
◇ S대 종합병원 호치민 분원 진출지원(호치민, 하반기)

❑ (투자 진출) 법인설립 및 생산기지 구축, 프랜차이즈 진출 활성화

○ 한국기업 아세안 진출 길잡이 역할 수행
- 투자진출 여건 비교조사 및 투자진출 분야 다변화에 따른 전략 제시
- 해외투자 조사단 · 사절단 파견, 투자스쿨 개최를 통한 현장 중심의 투자진출 조사 및 전문교육 제공

○ 한국 진출기업 수요에 맞는 전용공단 조성 추진
○ 투자진출 정보 제공, 법인설립, 공장이전 등 투자진출 서비스 제공
- 세무회계, 경영전략 등 다양한 주제별 진출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 M&A형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

○ 경쟁력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투자진출 지원(마닐라 등 6개 무역관, 연중)
◇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전용 섬유공단 건설(자카르타, 연중)
◇ M&A형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호치민, 연중)
* 8월 W사 M&A 계약체결식 호치민 무역관에서 개최
◇ 미얀마 해외투자 조사단(양곤, 9월)
◇ 동남아 프랜차이즈 진출가이드 작성(방콕, 싱가포르, 자카르타, 10월)
◇ 말레이시아 외환송금 주의사항 설명회(쿠알라룸푸르, 10월)
◇ 라오스 투자사절단 파견(비엔티안, 10월)
◇ 필리핀 투자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마닐라, 11월)
◇ 캄보디아 한국투자기업 경영전략 수요세미나(프놈펜, 매월)

Ⅱ. 국별 수출유망 품목 및 진출방안

1 싱가포르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10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장과 바이오제약 등 신성장동력산업 성장에 힘입어 같은 해 14.5%, 이듬해는 4.9%의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 카지노 개장 이후 연간 10% 이상 관광객 방문이 증가('12 관광객 지출 규모 : 240억 달러)

【최근 3년간 싱가포르 GDP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GDP(US$억)	1,833	2,227	2,598
1인당 GDP(US$)	36,758	43,867	49,271
경제성장률(%)	-0.8	14.5	4.9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2.5%로 전망(8.10, 통상산업부)
- 싱가포르 2분기 경제는 정부의 내수 진작 드라이브로 건설(5.3%↑) 및 제조업(4.5%↑)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 성장

【산업별 성장률 추이(%)】

구분	2011	2012(1분기)	2012(2분기)
제조	9.2	-0.8	4.5
건설	2.6	6.9	5.3
도소매	1.1	-0.3	-0.4
물류운송	4.7	4.0	1.6
금융보험	9.1	0.5	0.1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수출 및 교역이 20%씩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으나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아시아 역내 교역 증가로 대 유럽, 미국 수출 감소분을 상쇄
  * 2012년 6월 기준 수출액은 홍콩(23%↑), 인도네시아(15.8%↑), 한국(15.2%↑) 등 아시아권이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11%), 일본(△5.7%) 등은 감소
- AFTA 효과 및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의 높은 산업 수요로 향후 아시아권역내 교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시 반도체 등 경기민감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최근 3년간 싱가포르 수출입 추이】

(단위: 억 싱가포르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1분기	2012 2분기
수출	3,911(-18.0)	4,788(22.4)	5,147(7.5)	1,306(4.8)	1,301(1.4)
국내 수출	2,000(-19.2)	2,486(24.3)	2,813(13.2)	739(10.1)	736(6.1)
국내 비석유	1,413(-10.6)	1,736(22.8)	1,774(2.2)	463(6.1)	453(3.9)
재수출	1,911(-16.6)	2,302(20.5)	2,333(1.4)	556(-1.3)	565(-4.1)
수입	3,563(-21.0)	4,232(18.8)	4,596(8.6)	1,215(10.4)	1,215(4.6)
총 교역	7,474(-19.4)	9,021(20.7)	9,743(8.0)	2,521(7.5)	2,517(2.9)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2012년 6월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수출은 1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 전체교역액은 162억 달러로 8.9% 증가
- 대 싱가포르 수출은 2분기 이 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도 함께 증가해 무역수지 폭은 좁혀지는 추세
-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주요 수출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경유, 선박, 휘발유, 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중유, 반도체 제조용 장비, 무선통신기기부품, 컴퓨터 등이며 최근 윤활유 및 기초유분과 금, 은 등 귀금속 수출이 크게 증가

【최근 3년간 한-싱가포르 교역 추이】

(단위: US$백만,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교역	21,489 (-12.8)	23,094 (7.5)	29,806 (29.0)	16,169 (8.9)
수출	13,617 (-16.4)	15,244 (11.9)	20,839 (36.7)	11,304 (8.6)
수입	7,872 (-5.9)	7,850 (-0.3)	8,967 (14.2)	4,865 (9.9)
무역수지	5,745	7,394	11,872	6,439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점진적 가치절상이라는 환율정책을 통해 물가상승폭을 줄이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5%대 물가상승율 지속

【싱가포르 기타 경제지표】

구분	2009	2010	2011
물가상승률(%)	0.6	2.8	5.2
실업률(%)	3.0	2.2	2.0
환율(對달러화)	1.4545	1.3635	1.3007
외환보유고(US$억)	1,878	2,258	2,373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 부문

-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의 실물경제는 실업률(2.0%), 제조업(4.5%↑) 및 소매업(0.5%↑) 성장률 등 지표상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싱가포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2분기 비즈니스 환경 지수는 -33포인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66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실제 체감 경기는 크게 악화되고 있음

○ 금융부문

- 8월 10일, 싱가포르 주가지수인 STI 지수는 12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 중이나, 금융산업 부문은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0.1% 성장에 그치는 등 둔화세로 돌아섬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반기		2010		2011		2012상반기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유압브레이커 (843149)	1,393.40	15.6	1,439.63	3.3	747.30	10.3	28.63	-17.2	49.83	74.0	45.94	101.4
2	통신 케이블 (854420)	292.15	14.2	277.98	-4.9	127.28	-3.4	58.34	-10.4	74.41	27.5	25.59	-20.0
3	공기청정기 (847989)	635.79	17.8	490.85	-22.8	446.72	97.7	10.87	-38.9	6.06	-44.2	20.02	514.6
4	밸브 (848180)	663.42	-17.1	610.85	-7.9	349.81	26.1	35.08	-16.6	29.99	-14.5	16.85	35.7
5	자동차 부품 (870899)	896.33	14.5	1,075.46	20.0	552.12	10.2	23.40	16.9	23.82	1.8	16.35	41.6
6	냉방기 부품 (847990)	1,307.26	32.8	1,300.43	-0.5	632.91	-4.2	22.83	73.5	19.23	-15.8	11.91	24.0
7	화장품 (330499)	852.47	18.5	1,042.56	22.3	498.60	-2.8	12.86	12.0	16.11	25.2	9.81	46.9
8	항온 항습기 (841989)	81.84	-61.0	119.88	46.5	112.10	157.4	1.08	-97.3	3.39	213.9	7.41	2349.7
9	플라스틱필름 (391990)	200.38	49.6	202.59	1.1	100.70	-1.8	7.89	112.9	8.97	13.7	4.64	24.6
10	보안장비 (852580)	1,167.44	9.5	1,182.27	1.3	665.50	17.9	7.19	71.9	8.15	13.3	4.48	41.7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1 US$ = 1.25 S$

❑ 10대 품목別

1)	품목명	유압브레이커(HS : 843149)

○ 시장동향

- 2012년 상반기 싱가포르의 유압브레이커 수입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7억4천3백만 달러로 최근 3년간 평균 10%대 성장 지속
- 우리나라의 대 싱가포르 유압브레이커 수출은 올해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101.4% 증가한 4천5백만 달러를 기록
- 지하철 공사와 마리나베이 지하 고속도로 건설, 주택건설 등의 대규모 공사가 지속되면서 향후에도 건설 중장비 수요는 지속될 전망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의 유압브레이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장비 임대업체를 통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미국이 43.9%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10.3%), 독일(7.6%)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6.1%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미국	915,416	461,337	409,817	43.9
일본	176,025	72,381	96,294	10.3
독일	125,237	38,012	70,676	7.6
대한민국	62,289	28,510	57,426	6.1
중국	83,654	33,725	52,236	5.6

* 자료원 : IE Singapore

○ 선정사유

- 주롱 아로마틱 화학단지 등 산업시설, 플랜트 건설 등 정부 주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호텔, 콘도 등 민간 수요도 급증
  * 최근 국토개발부(MND)는 2012년 하반기 14,200 가구의 신규 주택 건설 추진
- 싱가포르의 2012년 건설시장은 1분기 6.9%, 2분기 5.3% 성장하는 등 5%대 성장을 지속하면서 활황세를 유지

2)	품목명	통신 케이블(HS : 854420)

○ 시장동향

- 싱가포르의 케이블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2억7천8백만 달러 수준으로 2010년 14.2%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 2012년 상반기 3.4% 감소 기록
-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싱가포르 IT 제조 산업이 다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제품 수입은 2011년 25.6% 증가하다가 올해 상반기 20% 감소로 돌아서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의 케이블 수입 시장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각각 28.4%, 20.1%로 주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말레이시아가 따르고 있음
- 우리나라 케이블 수요는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GS건설 등 대규모 IT 및 전력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면서 2차 벤더들의 동반진출이 활발함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중국	98,973	47,146	45,238	28.4
대한민국	93,009	39,982	31,983	20.1
말레이시아	50,457	25,970	22,339	14.0
베트남	13,203	5,285	10,718	6.7
대만	7,625	5,524	7168	4.5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선정사유

- 싱가포르 정부는 iN2015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IT 예산을 12억 달러 증액하면서 인터넷망 보급률 90% 조기 달성을 추진 중
- 싱가포르는 올해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구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고, 구글에 이어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정책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관련 정보통신 장비 시장의 잠재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3)	품목명	공기청정기(HS : 847989)

○ 시장동향

- 싱가포르의 공기청정기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4억9천만 달러였으나 올해 상반기 이미 같은 수준을 달성해 100%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제품 수입은 올해 상반기 514.5% 증가로 수요가 폭발적이며, 대형 가전 유통업체에 제품이 공급되면서 인지도 급상승
- 싱가포르의 공기청정기 시장은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인구증가 및 주택시장 활황 지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수 년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됨

  * 싱가포르는 연중 섭씨 32도를 유지하는 열대기후 지역으로 주택의 경우 각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을 닫고 지내는 환경으로 환풍기와 더불어 공기청정기 수요가 꾸준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 공기청정기 수입시장은 일본이 44.4%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음
- 공기청정기의 경우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가격저항력이 낮은 편으로 고가의 일본 및 미국산 제품의 인기가 높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제품의 고품질 인식이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달러)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일본	180,774	72,144	247,972	44.4
대만	16,096	7,756	69,596	12.5
미국	99,393	49,824	66,820	12.0
말레이시아	76,874	33,667	44,431	8.0
대한민국	7,579	4,073	25,031	4.5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선정사유

-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연 싱가포르의 웰빙 및 건강 관련 제품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창문을 열지 않는 등 실외와 철저히 차단된 건물이 많은 싱가포르의 특성상 공기청정기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 향후 한국 제품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전망

4)	품목명	밸브(HS : 848180)

○ 시장동향

- 싱가포르의 밸브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6억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 26.1%로 상승 전환
- 싱가포르는 에너지 전량 수입국으로 말레이시아 등 인근국으로부터 석유, 천연가스 등을 파이프를 통해 공급받아 파이프 및 밸브 수요가 꾸준함
-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밸브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 밸브 수입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24.9%, 13.8%로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8%로 7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밸브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올해 상반기 35.7%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존 전력 및 가스 플랜트의 주요 수주 국가가 미국 및 유럽인 점을 감안, 우리나라 제품의 비중은 낮지 않은 편임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달러)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미국	213,605	103,742	108,821	24.9
중국	114,822	46,097	60,180	13.8
이탈리아	67,309	27,705	38,688	8.8
독일	63,403	23,771	34,941	8.0
일본	47,320	23,941	29,638	6.8
대한민국(7)	37,486	15,525	21,065	4.8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선정사유

- 싱가포르는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10년간은 LN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다수의 가스 플랜트 및 관련 시설 건설을 확대할 전망
- HDB(공공주택) 등 주거시설 건설 프로젝트 증가는 밸브 수요를 지속시킬 전망

5)	품목명	자동차 부품(HS : 870899)

○ 시장동향

- 싱가포르의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10억7천5백만 달러로 최근 3년간 평균 1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의 차량소유권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의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신차 구매 부담이 늘고 있고 이는 중고차 및 자동차부품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음

  * '11년 신규차량 등록 건수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반면, 차량 소유권 변경 건수는 총 12만6469건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중고차 수요 증가를 반영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은 일본과 독일이 각각 28.4%,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스웨덴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우리나라는 3.0% 점유율을 보이며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산 자동차 수요 증가와 최근 현대자동차의 싱가포르 택시 현대화 프로젝트 수주와도 관련이 있음

  * '11년 현대 소나타 택시는 1만4천대로 싱가포르 전체 택시수의 56%를 차지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달러)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일본	434,788	209,566	195,848	28.4
독일	309,773	152,177	147,873	21.4
미국	103,464	55,929	44,077	6.4
캐나다	1,871	763	43,700	6.3
스웨덴	25,406	11,456	37,338	5.4
대한민국(7)	29,776	14,434	20,438	3.0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선정사유

- 한국산 자동차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드라마 등 한류와 미국 자동차전문기관의 호평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기인
- 싱가포르의 중고차 시장 활성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10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소유권을 갱신해야 하는 싱가포르 자동차 시장 특성상 최근 증가한 한국 자동차 수입에 따라 부품 수입도 증가할 전망

6)	품목명	냉방기 부품(HS : 847990)

○ 시장동향

- 싱가포르의 냉방기부품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13억 달러로 2010년에 전년 대비 32.8% 증가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 반면, 우리나라 냉방기 부품 수입은 올해 상반기 24% 증가한 천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임
- 싱가포르는 건물 내 설치된 냉방기를 각 분기마다 점검하고 필터 등 관련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제도가 있어 냉방기 부품 수요는 꾸준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 냉방기 부품 수입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26%,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독일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 점유율로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일본산과 미국산이 압도적인 이유는 5~10년 전 이미 대규모 단지 등에 대거 공급되었기 때문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달러)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일본	405,279	224,600	205,609	26.0
미국	424,853	225,640	181,363	22.9
중국	122,712	54,977	62,929	8.0
독일	140,131	71,233	60,037	7.6
말레이시아	109,991	46,820	52,861	6.7
대한민국(10)	24,034	12,003	14,887	1.9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선정사유

- 전반적인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한국 냉방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냉방기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 보급 증대 정책에 따라 냉방기 및 냉방기 부품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7)	품목명	화장품(HS : 330499)

○ 시장동향

- 싱가포르의 화장품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10억4백만 달러로 최근 3년간 평균 1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은 2011년 25.2%, 2012년 상반기 46.9% 증가하는 등 수입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열대기후 특성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 수요가 많고 최근 들어 남성용 화장품의 수요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여 전체적인 화장품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 화장품 수입시장은 프랑스가 45.9%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12.4%, 미국이 10.5%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은 전체시장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 25.2%, 올해 상반기 46.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점유율은 늘어날 전망
- K-POP 및 한류 드라마 스타들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최근 몇 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저가 브랜드 상품 가격이 50%씩 높게 팔리는 등 한류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고 있음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달러)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프랑스	648,196	312,199	285,856	45.9
일본	161,436	79,214	77,029	12.4
미국	120,540	55,576	65,655	10.5
중국	114,378	73,756	42,662	6.8
스위스	24,424	9,981	21,027	3.4
대한민국(8)	20,133	8,352	12,268	2.0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선정사유

- 한국산 화장품 수요는 한류 영향에 따라 향후 더욱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 진출 브랜드의 성공적인 진출도 후발 기업들에게 플러스 요인
- 열대지방 특성상 화장품 소모가 많은 싱가포르인들에게 중저가 위주인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인기가 많으며 한류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향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8)	품목명	항온 항습기(HS : 841989)

○ 시장동향

- 싱가포르의 항온 항습기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1억2천만 달러로 2011년 46.5%, 올해 상반기 157.4%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의 대 한국 항온 항습기 제품 수입은 2011년 기준 3백만 달러 규모였으나 올해 상반기 2349.7% 증가한 2천4백만 달러를 기록
- 싱가포르의 그린마크 제도 도입 등 빌딩 전력소비 규제 강화로 에코 페인트, 항온 항습기, 단열 필름 등 그린 빌딩 기자재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 항온 항습기 수입시장은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이 10%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6.6% 점유율을 보이며 7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싱가포르의 그린 빌딩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요를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인식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마리나베이샌즈 등 싱가포르 주요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수주하면서 2차 벤더 진출이 활발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달러)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일본	19,740	6,073	21,623	15.4
말레이시아	20,408	10,017	20,253	14.5
중국	6,587	3,442	15,082	10.8
미국	30,205	14,157	13,839	9.9
네덜란드	2,877	2,009	9,996	7.1
대한민국(7)	4,241	378	9,260	6.6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선정사유

- 한국 기업들의 싱가포르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꾸준할 전망
- 싱가포르 정부의 그린 빌딩 정책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효율 기자재 제품 수요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보임

9)	품목명	플라스틱 필름(HS Code: 391990)

○ 시장동향

- 싱가포르의 플라스틱 필름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2억 달러이며 2010년 50% 성장 이후 최근에는 1%대 저성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싱가포르의 대 한국 플라스틱필름 수입은 2011년 13.7%, 올해 상반기 24.6%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는 식품 산업, 물류 산업 활성화로 포장재 수요가 꾸준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 플라스틱필름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이며 45.9%를 차지
- 우리나라는 4.6%를 차지하며 6위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플라스틱필름 제품은 포장재부터 식품, 문구류, 건설기자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꾸준하게 수입이 진행되고 있음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달러)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미국	95,837	50,996	57,833	45.9
일본	47,642	25,729	15,822	12.6
독일	28,347	13,764	14,326	11.4
중국	20,774	9,503	10,258	8.1
말레이시아	18,981	9,044	10,095	8.0
대한민국(6)	11,217	4,655	5,798	4.6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선정사유

- 락앤락 등 한국산 포장제품의 인지도는 매우 높으며, 아트박스 등 한국 문구류에 대한 인기도 높아 향후 한국산 플라스틱 필름 수요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의 싱가포르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로 한국산 기자재 수입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

10)	품목명	보안장비(HS : 852580)

○ 시장동향

- 싱가포르의 보안장비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11억8천만 달러이며 올해 상반기 17.9% 성장하며 규모가 커지는 추세임
- 싱가포르의 대 한국 보안장비 수입은 2011년 13.3%, 올해 상반기 41.7%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의 보안장비 수요는 도어락, CCTV 등 빌딩 및 아파트 건설 증가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싱가포르 보안장비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이며 45.6%를 차지, 소니 등 첨단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
- 우리나라는 0.7%로 11위에 머물러 있으며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 우리나라 제품 중 게이트맨 등 일부 도어락 브랜드의 진출이 눈에 띄나 CCTV 등 영상기록 장치 및 보안시스템 진출은 미미한 편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단위: US$천달러)

국명	수입액			비중(%) (2012 상반기 기준)
	2011년	2011년上	2012년上	
일본	628,398	294,269	379,392	45.6
중국	357,230	165,965	168,617	20.3
말레이시아	122,962	66,671	96,409	11.6
대만	91,216	36,904	55,863	6.7
태국	81,101	46,401	31,284	3.8
대한민국(11)	10,185	3,953	5,603	0.7

* 자료원 : 싱가포르 기업청(IE Singapore)

○ 선정사유

-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의 신성장산업인 항공방위산업과 연계하여 보안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의 건설 및 IT프로젝트 수주 증가에 따라 이와 연계한 보안기기 진출 확대가 예상됨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건설 품목: 유압브레이커, 밸브, 항온 항습기, 냉방기부품, 플라스틱 필름
- 대중소 협력 해외 건설 프로젝트 진출 지원 사업 추진(싱가포르/'13년 예정)
- 최근 동남아 건설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건설 장비 및 기자재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지원 사업 필요성 증대
- 동남아 기 진출 건설 대기업과 국내 벤더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여 해외 프로젝트 공동 참여 지원하고
- 해외 건설 발주처 초청 상담회 개최 예정

* SK건설과 '12년 하반기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가 SK측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됨

○ 소비유통 품목(1): 화장품, 공기청정기
- 아시아 소비재 대형유통망 초청 상담회 개최(서울/'12년 10월)
- 증가하는 동남아 지역의 중산층 소비자를 타깃으로, 중국산 등 저가 상품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별하여 구성
- 아시아 지역 내 다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 유통망 및 벤더, 소비재 제조업체 등 30개 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소비유통 품목(2):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한국 상품전
- K-POP 공연 연계 한국 상품전 개최(싱가포르/'13년 상반기 예정)
- 동남아 지역에 부는 K-POP 열풍에 따른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한국 상품 진출 기회 증대
- 싱가포르 최대 방송사업자인 MediaCorp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
- 해외 소비자 및 바이어 초청 K-POP 공연 개최 및 한국 상품전 연계 개최
- 공연장, 문화컨텐츠관, 식품관, 소비재 체험관으로 구성된 전시회 및 1:1 상담회 개최 예정

○ IT 품목: 케이블, 보안장비
- AT&D Korea Roadshow in ASEAN 개최(싱가포르/'12년 10월 9일~10일)
- 세계경제의 중심축이면서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한국 첨단 제품 홍보
- 한국의 첨단기술과 디자인제품(AT&D)의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한국 첨단기술 체험관, AT&D Korea 브랜드 홍보관 등 총 1,130m^2 규모 테마별 전시관 구성
- 아시아 10개국 70여개사, 싱가포르 100개사 참가 예정

○ 2012년 하반기 시장개척단: 자동차 부품, 건설 품목, 소비유통 품목
- 고양시 무역사절단 파견/ 6개사 참가(싱가포르/'12년 9월 10일~12일)
- 경북 동남아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13개 내외(싱가포르/'12년 11월 25일~12월 2일)

○ IT 품목: 케이블, 보안장비
- 싱가포르 정보통신박람회 참가 사업 고도화(싱가포르/'13년 6월 예정)
- 동 사업과 연계한 상담회도 추진 예정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국내 건설기업 간 경쟁이 가장 심할 정도로 싱가포르 내 건설시장은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 등 발주처의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점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장비 및 기자재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을 확대하는 사업 추진 필요

○ 화장품 시장은 페이스샵, 에뛰드, 미샤, 스킨푸드 등 주요 중저가 브랜드의 성공적 진출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기회가 많은 시장이나, 후발 진출 기업은 이미 다수 진출한 기업들과 가격 및 마케팅 전략 차별화 필요

○ PB를 통한 대형 유통망 납품은 싱가포르에 처음 진출하는 식품 기업에게는 유용한 전략으로, 싱가포르 무역관 주최 아시아 컨슈머 마켓 플라자 등의 소비유통 마케팅 사업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의 수요 파악 및 구매 정책 상담을 적극 추진 필요

○ 싱가포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국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한국산 제품도 고가, 고품질로 여기고 있는 한류 성숙시장인 점을 고려하여 소비시장에서 적극적인 한류 마케팅 전개가 필요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건설 기자재 업체인 Heatec Jietong사의 영업담당은 철강, 플랜지 등의 건설 기자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 부분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약하다고 보고 있음

- 싱가포르에 기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들도 자재를 한국에서 들여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보다는 현지 조달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함
- 한국 건설 기자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FTA가 체결된 동남아 인근 국가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조달하는 방안이 유리

○ 싱가포르 대형 쇼핑몰 지사장인 Shuichi Hidaka씨는 향후 싱가포르 화장품 시장이 Korres(그리스 브랜드)와 같이 기능성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 봄

- 최근 중저가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는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단순한 한류 효과만이 아닌 기능성을 강조한 고품질 제품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자동차 부품 바이어인 KOKOMO Motors사는 최근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시장점유율 20%를 넘기면서 부품 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을 것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의 자동차 소유권(Certificate of Entitlement) 가격은 8월 기준 7만3천 싱가포르달러(한화 6천6백만원)에 이르렀음
-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중고 자동차 및 부품 시장 활성화가 예상됨
- 싱가포르 자동차 부품 시장은 특정 배급사 몇 개사의 시장 장악력이 두드러져 유력 배급사 발굴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한 진출 전략임

❑ 진출시 유의사항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싱가포르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을 두지 않음으로써 세계 물류 허브가 된 국가이며, 7,000여 개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완전 자유 경쟁시장임
- 단, 싱가포르는 주류만은 예외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제품 등 4개 품목에 한해 특별소비세를 부과 중
- 싱가포르는 소비세(GST)가 있으며 7%를 부과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비관세 장벽으로는 인구대비 자동차 수를 제한하는 자동차 쿼터제인 자동차 소유세(COE)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가격이 비싼 나라로 꼽힘
- 싱가포르는 화장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는 까다로움
- 아이 메이크업, 스킨 케어 제품, 머리 케어 제품등의 화장품은 싱가포르 보건부의 위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모든 화장품은 ASEAN Cosmetic Directive(ACD)라는 아세안 공통의 화장품 규격을 따라야 함

  * ASEAN Cosmetic Directive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화장품 무역과 관련된 기술적인 장벽을 없애고자 아세안 국가와 화장품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통합적인 관리 규정임

2 인도네시아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2011년 경제성장률 6.5%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3,542달러 기록
- World Bank는 인도네시아 2012년 경제성장률을 3가지 시나리오에 나누어 전망 : 2008년 금융위기, 대공황, 그리고 현재의 혼돈 상황 재현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각각 4.7%, 3.8% 그리고 6.4%로 전망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및 일인당 국민소득 추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성장률(%)	6.28	6.06	4.5	6.1	6.5
1인당 GDP(달러)	1,922	2,269	2,350	3,005	3,542

* 자료원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인도네시아는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폭 대폭 하락
- 2012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한 약 969억 달러 기록
- 그러나 수입은 15.35% 증가한 964억 달러 기록. 이는 최근 자본재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2011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불과 4억 7,620만 달러에 그침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수 출	137,020	116,510	157,730	203,487	96,884
(증 가 율)	(19.9)	(-14.83)	(35.4)	(29.0)	(-1.76)
수 입	129,197	96,829	135,610	177,436	96,408
(증 가 율)	(73.48)	(-24.82)	(40.05)	(30.8)	(15.35)
무역 수지	7,823	19,681	22,120	26,051	476.2

* 자료원 : 인니 통계청(www.bps.go.id)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2012년 상반기 교역규모는 158억 달러 기록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과 수입은 각각 71억 달러, 88억 달러 기록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총 교 역	19,254	15,263	22,883	27,912	15,781
(증감율)	(29.4)	(△20.7)	(49.9)	(21.9)	-
수 출	7,934	5,999	8,897	12,277	7,104
(증감율)	(37.5)	(△24.4)	(48.3)	(38.0)	(7.6)
수 입	11,320	9,264	13,986	15,635	8,677
(증감율)	(24.2)	(△18.2)	(51.0)	(11.8)	(5.8)
무역수지	△3,387	△3,265	△5,089	△3,358	△1,573

* 자료원 : 무역협회

○ 우리나라는 중간 원자재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을 각각 수출
-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경우, 휘발유,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등 중간 원자재를 전통적으로 수출
- 2012년 건설 중장비, 냉연강판, 자동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마이너스 혹은 소폭은 수출 증가세를 보임
-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천연고무 등 천연자원 등을 전통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천연가스 수출이 60%를 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10대 품목】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명	2011년		순위	품목명	2012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3,564	52.5			7,104	7.6
1	경유	4,749	112.0	1	경유	2,210	-6.3
2	휘발유	1,670	75.2	2	휘발유	759	-9.3
3	편직물	713	19.5	3	편직물	350	-5.2
4	합성수지	576	29.7	4	합성수지	304	4.5
5	열연강판	453	133.0	5	열연강판	287	29.2
6	합성고무	404	89.1	6	합성고무	188	5.6
7	건설중장비	337	158.3	7	건설중장비	147	21.6
8	냉연강판	192	25.8	8	냉연강판	131	66.2
9	승용차	121	122.8	9	승용차	89	85.2
10	칼라 TV	175	24.9	10	칼라 TV	81	-15.2

* 자료원 : 무역협회

주) MTI 코드 4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 10대 품목】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명	2011년		순위	품목명	2012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7,216	23.1		총계	8,677	5.8
1	천연가스	5,300	87.5	1	천연가스	3,276	63.5
2	유연탄	3,467	22.9	2	유연탄	1,662	4.8
3	원유	2,317	-2.8	3	원유	984	-24.4
4	천연고무	611	66.2	4	천연고무	265	-8.3
5	동광	903	-25.3	5	동광	205	-54.1
6	중유	109	-32.5	6	중유	158	127.7
7	펄프	339	-7.3	7	펄프	149	-18.6
8	기타석유제품	168	45.2	8	기타석유제품	118	21.8
9	윤활유	149	17.7	9	윤활유	107	52.8
10	기타석탄	170	-18.9	10	기타석탄	79	4.7

* 자료원 : 무역협회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인도네시아 중앙은해의 기준금리는 2008년부터 지속 하락하여 2012.2월부터 현재까지 5.75%로 유지
- 인도네시아 정부의 2012년 인플레이션 타깃은 4.5%이며, 7월 인플레이션은 4.56%로 정부의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관리
- 최근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는 다소 감소한 1,066억 달러 기록
- 환율은 지속적인 자본재 수입, 석탄/팜 등과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부진으로 달러대비 약세를 기록 중

【기타 거시경제 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
기준금리(%)	8.0	9.25	7.14	6.5	6.0	5.75
CPI 인플레이션	6.59	11.06	2.78	6.96	3.79	4.56
외환보유고(억 달러)	569	516	661	962	1,101	1,066
환율 (1 달러 대비 루피아)	9,376	10,950	9,400	9,021	8,788	9,494

*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유럽, 중국 및 인도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흑자 폭 대폭 축소

- 2012년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4억 7천 6백만 달러 기록하였으나, 4월부터 6월까지(6월 무역수지: 13억 달러)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
- 인도네시아 주력 산업인 광물, 팜 등의 수출 증가폭이 적거나 마이너스를 기록(광물 6월 수출 13.4% 감소 등)

【2012년 상반기 무역수지 동향】

(단위: US$백만)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액
수출	15,570	15,695	17,251	16,173	16,829	15,364	96,884
수입	14,554	14,866	16,326	16,938	17,037	16,689	96,408
무역수지	1,015	829	926	-765	-207	-1,322	476

*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 10대 품목別 수입시장 통계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5월까지)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쇼케이스 냉장고 (841869)	33.7	22.1	66.7	97.9	23.7	24.6	1.6	45.5	2.2	37.5	2	1,534
2	용접기 (851539)	24.6	75.7	26.6	8.1	11.6	8.0	0.16	6.7	0.17	6.3	0.11	-45
3	티타늄 옥사이드 (282300)	25.7	31.1	38.0	47.9	11.6	14.5	2.2	15.8	3.9	77.3	3	27.3
4	PC 및 주변기기 (8471)	1.7	54.5	2,200	1,293	856.4	74.5	11.4	-18.6	26.9	136	15	184.9
5	냉동차량 시스템 (841850)	29.1	54.8	34.3	17.9	24.4	-	0.95	86.3	1.7	78.9	1	67
6	폴리에스터 섬유사 (540220)	25.5	64.5	32.9	28.8	12.5	13.9	0.8	167	1.1	36.14	0.1	63.5
7	의료장비 (901819)	34.8	20	50.6	45.4	13.4	10.4	0.4	42.9	12.9	2,909	1	28.2
8	인스턴트라면 (190230)	4.4	15.8	6.5	42.7	3.3	-	1.4	56	1.7	20.8	2	26.5
9	호이스트 (842542)	21.1	7.5	23.9	13.13	8.3	10.5	0.14	100	0.1	-27.05	0.31	15578
10	발전기 세트 (850211)	30.2	6.3	39	29.1	21.4	14.6	0.1	-13	0.95	11.2	0.002	-

*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주) 통계 자료 입수 방법과 절차의 차이로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와 무역협회 통계 자료의 불일치가 존재할 있음. 2012년 상반기 아국 수출 자료는 무역협회 자료임

❑ 10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쇼케이스 냉장고(HS : 841869)

○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6,670만 달러로 2010보다 98% 성장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수입규모는 2,370만 달러를 기록
- 수요특징: 인도네시아 자체 생산 비중은 약 30%로 추정, 주요 부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

○ 경쟁 및 수입동향

- 수입비중은 70%, 현지 생산 비중은 30%로 추정
- 동 제품의 주요 수입 상위 5개국은 중국(66%), 태국(16%), 한국(5%), 룩셈부르크(2.6%), 말레이시아(2%)가 차지하고 있음
- 동 제품 수입 브랜드 중, 중국의 GEA 그리고 이태리의 Modena, 태국의 Sanden, 미국의 Carrier 등이 한국의 경쟁사
- 한국 브랜드 중 Asia Wintech 제품의 인지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쇼케이스 냉장고 연도별 수입 동향】

Product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 (1월~5월)
쇼케이스 냉장고	841869	27.6	33.7	66.7	23.7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선정사유

-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쇼케이스 냉장고 수요는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도소매유통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2011년 소매 유통 점포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8,150개를 기록
- 특히, 편의점 수 증가(2011년 전년 대비 42% 성장한 16,922개)가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12년에도 편의점 수 증가로 냉장고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	품목명	용접기(HS : 851539)

○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2,660만 달러로 2010년보다 10%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수입규모는 1,160만 달러를 기록함
- 수요특징: 인도네시아 자체 생산은 없으며 전량 해외에서 수입, 최근 건설 경기 호황으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주요 수입국 중 중국이 960만 달러36%), 미국이 720만 달러(27.2%), 일본이 470만 달러(17%), 싱가포르가 160만 달러(6%)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전체 11위로 18만 달러를 필리핀으로 수출함
- 동 제품의 수입 브랜드로는 중국의 Nantong Sanjiu/BA/ZX/Time, 미국의 Miller /Lincoln/Interweld, 일본의 Kaierda/Kobewel가 유명
- 주요 Distributor로는 PT. Kawan Lama와 PT. Thermindo Sukses Mandiri가 유명

【용접기 연도별 수입 동향】

Product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1월~5월)
용접기	851539	14.0	24.6	26.6	11.6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선정사유

-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의지로 기계, 중장비 등 자본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동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조선 산업은 2012년 총 75만 DWT을 생산할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5억 달러를 들여 자카르타 항구인 Tanjung Priok 항구의 개보수 작업을 수행(10월부터 공사 시작)
- 향후 2014년부터 총 185개의 제련소 공장 건설 계획
- 인도네시아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건설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성장했으며, 동 추세는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품목명	티타늄 옥사이드(HS : 282300)

○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3,800만 달러로 2010보다 47.63% 성장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수입규모는 1,160만 달러를 기록
- 수요특징: 인도네시아 자체 생산은 없으며 전량 해외에서 수입, 최근 건설 경기 호황으로 건설 현장(주택건설)에서 많이 사용. 2012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주요 수입국 중 중국이 750만 달러(19.9%), 독일이 680만 달러(17.8%), 일본이 640만 달러(16.8%), 미국이 500만 달러(13.2%)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5위로 390만 달러(10.4%)임
- 한국으로부터의 2011년 수입물량은 2010년 대비 77.2% 성장
- 주요 Distributor로는 PT. Lautan Luas와 PT. Indo Kemika Jayatama가 있음

【티타늄 옥사이드 연도별 수입 동향】

제품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 (1월~5월)
티타늄 옥사이드	282300	19.6	25.7	38.0	11.6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선정사유

- 페인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동 제품은 최근 주택경기 호황과 함께 수입이 대폭 증가함
- 2012년 내에 총 311,495채의 일반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며, 2014~2015년 동안 3,031 가구가 추가 완공될 예정으로 페인트 수요는 더욱 늘 전망
- 인도네시아 주택시장을 타깃으로 수출하는 것이 유망

4)	품목명	PC 및 주변기기(HS : 8471)

○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29억 달러로 2010년보다 23% 성장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수입규모는 856백만 달러를 기록
- 수요특징: 중산층 규모 증가로 개인용 PC 구입 증가, 노무라 증권은 오토바이와 스마트 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3,000달러 이상의 가처분소득자를 약 5천만 명으로 추정, 대부분의 개인용 PC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현지 조립생산 수준은 미약함, 데스크 탑과 노트북의 비중은 각각 30%, 70%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주요 수입국 중 중국이 15억 달러(69%), 싱가포르가 2억 8백만 달러(9.7%), 말레이시아가 1억 9,600만 달러(8.96%), 미국이 4,400만 달러(2%), 일본이 4,000만 달러(1.86%)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6위로 2,600만 달러(1.23%)를 기록
- 주요 브랜드는 ACER(26%), HP(12.9%), ASUS(10.3%), Toshiba(7.9%) 등임
- 한국으로부터의 2011년 수입물량은 2010년 대비 135% 성장
- 주요 Distributor로는 PT. Astrindo Senayasa(ASUS)와 PT. ACER Indonesia등이 있음

【PC 및 주변기기 연도별 수입 동향】

Product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1월~5월)
PC 및 주변기기	8471	1,100	1,700	2,200	856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선정사유

- 6%대의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 규모의 증가
- 인도네시아 PC 협회에 따르면 2012년 개인용 PC 성장률은 2011년 대비 44% 성장한 650만 대를 기록할 전망
- Dell 인도네시아 법인은 2012년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25% 높이 책정

5)	품목명	냉동차량 시스템(HS : 841850)

○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3,430만 달러로 2010년보다 17.8% 성장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수입규모는 2,400만 달러 기록
- 수요특징: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성장으로 아이스크림, 해산물의 유통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형 트럭(탑차) 냉동차 수요가 늘어남, 현재 소형 트럭 냉동차가 냉동차량 시장의 80%를 차지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주요 수입국 중 중국이 2,900만 달러(43%), 미국이 1,150만 달러(27.2%), 태국이 610만 달러(9%), 싱가포르가 450만 달러(6.7%), 일본이 310만 달러(4.6%)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220만 달러(3.3%)를 기록
- 한국으로부터의 2011년 수입물량은 2010년 대비 37.5% 성장
- Thermo King과 Carrier Transicold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0%, 30%이며, 한국 브랜드인 Hwasung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5%임

【냉동차량 시스템 연도별 수입 동향】

Product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1월~5월)
냉동차량 시스템	841850	18.8	29.1	34.3	24.4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선정사유

- 중산층 증가로 현대식 유통망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1년 현대식 유통망의 수는 2010년 대비 38% 증가한 18,150개 기록하였음
- 편의점, 슈퍼마켓 점포수 증가가 증가하였는데, 2011년 편의점 수는 2010년 대비 42% 증가한 16,922개
- 중산층 증가로 아이스크림, 냉동해산물 등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Nielsen에 따르면 2012년 아이스크림 소비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6)	품목명	폴리에스터 섬유사(HS : 540220)

○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3,290만 달러로 2010년보다 28.8% 성장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수입규모는 1,250만 달러를 기록
- 수요특징: 다수의 섬유봉제업체들이 존재(한국 업체는 400여개가 존재하며 수출 70억 달러를 기록), 현지 생산과 수입 비중은 각각 85%, 15%. 현지 생산이 85%인 관계로 현지 업체(PT. Indorama 21%, PT. ASIA 20% 등)와의 경쟁이 불가피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주요 수입국 중 중국이 1,780만 달러(54.1%), 대만이 540만 달러(16.5%), 일본이 290만 달러(9%), 싱가포르가 140만 달러(4.3%)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110만 달러(3.3%)를 기록함
- 한국으로부터의 2011년 수입물량은 2010년 대비 36.14% 성장

【폴리에스터 섬유사 연도별 수입 동향】

Product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 (1월~5월)
폴리에스터 섬유사	540220	15.5	25.5	32.9	12.5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선정사유

- 2011년 인도네시아 Household Textile(쇼파, 커튼 등) 수요는 2010년 대비 11% 성장한 7억 5,200만 달러 기록
- 중산층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Household Textile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면의 대체재로 폴리에스터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미래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
- 폴리에스터 섬유사를 생산하기 위해선 MEG(Monoethylene Glycol: 인도네시아에선 GT Pertochem만이 유일하게 생산)가 필요하나, 물량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폴리에스터 섬유사 시장 전망은 밝음

7)	품목명	의료장비(HS : 901819)

○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5,060만 달러로 2010년보다 45.4% 성장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수입규모는 1,340만 달러를 기록
- 수요특징: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위생에 대한 인식 강화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입이 증가, 현지 생산과 수입 비중은 각각 15%, 85%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주요 수입국 중 한국이 1,290만 달러(25.4%), 미국이 770만 달러(15.3%), 싱가포르가 650만 달러(12.8%), 일본이 570만 달러(11.3%), 독일이 470만 달러(9.4%)를 기록
- 한국으로부터의 2011년 수입물량은 2010년 대비 291% 성장
- 주요 Distributor로는 PT. Airindo Sentra Medica(Siemens, Mindray, Biomed 등), PT. AMPM Healthcare Indonesia(Acare, Shinmed 등) 등이 있음

【의료장비 연도별 수입 동향】

Product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 (1월~5월)
의료장비	901819	29	34.8	50.6	13.4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선정사유

- 2011년 병원 수는 1,962개로 2010년 대비 20% 성장
- 인도네시아 정부는 근로자 치료를 위해 자카르타에 5개의 병원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총 예산 2,180만 달러가 책정되었음
- 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로부터 의료장비(의료시스템, 의료장비, 약) 수입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정도로 의료장비 구축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음

8)	품목명	인스턴트라면(HS : 190230)

ㅇ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658만 달러로 2010년보다 42.7% 성장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수입규모는 330만 달러를 기록
- 수요특징: 다양한 건면 형식의 라면 소비가 대부분이나, 최근 국물 형식의 인스턴트라면 트렌드가 증가. 맵고, 짠 맛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며, 현지 생산과 수입 비중은 각각 90%, 10%

ㅇ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주요 수입국 중 중국이 330만 달러(52.5%), 한국이 170만 달러(20.8%), 대만이 30만 달러(5%), 태국이 30만 달러(4.6%), 일본이 20만 달러(3.3%)를 기록
- 한국으로부터의 2011년 수입물량은 2010년 대비 20.8% 성장
- 한국의 신 라면이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나, 인도네시아 1위 라면 업체인 Indofood와 경쟁 중
- Indofood의 시장점유율은 70%이며 2위인 Wings Food 시장점유율인 25%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인스턴트라면 연도별 수입 동향】

Product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 (1월~5월)
인스턴트라면	190230	3.8	4.4	6.58	3.3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ㅇ 선정사유

- 2011년 시장규모는 20억 달러 기록
- 2011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된 150억 개가 판매되었으며 2012년에는 165억 개가 판매될 전망(인도네시아 1인당 연간 약 69개 소비)
- Hero,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에서 한국 음식 Festival을 시행하면서 한국 음식(라면 포함)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전달됨

9)	품목명	호이스트(HS : 842542)

○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2,39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의 수입규모는 830만 달러를 기록
- 수요특징: 100% 해외 수입 의존, 업체에서 한번 물품을 구매하면 5년 주기로 동 제품을 재구매하게 되는데, 2014년경 구매 사이클이 돌아올 것으로 전망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주요 수입국 중 중국이 960만 달러(40.3%), 일본이 460만 달러(19.1%), 태국이 180만 달러(7.4%), 싱가포르가 170만 달러(7.2%), 호주가 100만 달러(4.3%)를 기록
- 2011년 한국 제품 수입규모는 10만 달러로 2010년 대비 27.1% 감소
- 독일 Demac, 핀란드 Kone 제품이 많이 사용

【호이스트 연도별 수입 동향】

Product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 (1월~5월)
호이스트	842542	22.8	21.1	23.9	8.3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선정사유

-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확대 및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하여 항만, 도로, 제조업 공장 등이 추가로 건설될 전망
- 자카르타 지하철 공사(MRT), 국영 공기업부는 15개(시멘트, 팜 오일, 사탕수수 등) 공장을 증설할 계획
- 자카르타 주변 지역인 버까시 지역의 공단 입주율이 최근 100%에 도달하여 추가적으로 공단 개발이 진행 중
- 한국 정부는 중부자바 보요랄리에 공단 개발을 진행 중

10)	품목명	발전기 세트(HS : 850211)

○ 시장동향

- 2011년 수입규모는 3,900 달러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1% 증가
- 2012년 5월까지 수입규모는 2,140만 달러 기록
- 수요특징: 일본 브랜드인 Yanmar는 현지 생산 공장 보유. 75KVA 미만 발전기 세트는 가정, 사무실, 소규모 공장, 광산에서 사용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주요 수입국 중 중국이 3,130만 달러(80%), 영국이 340만 달러(9%), 미국이 100만 달러(3%)를 기록
- 2011년 한국 제품 수입규모는 95만 달러에 그침
- 10KVA 이상의 제품은 Yanmar, Cummin, Perkins, Denyo 브랜드가, 10KVA 미만의 제품은 Proforce, Fortuner, Morris 브랜드가 시장에서 주로 판매됨

【발전기 세트 연도별 수입 동향】

Product	HS Code	수입금액(US$백만)			
		2009	2010	2011	2012 (1월~5월)
발전기 세트	850211	28.4	30.2	39.0	21.4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선정사유

- 전력 공급 사정이 불안정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아파트 포함)에서 백업 전기발전기를 사용
- 건설 경기 호황으로 주택 및 오피스 건물 신축 공사 대상으로 물량이 많아 질 것으로 업계는 판단
- 광산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 제품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심축인 석탄 광산에 많이 사용될 전망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현지 개최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쇼케이스 냉장고
- Retail Indonesia 2013, Indonesia Food & Hotel Exhibition ('13년 4월 10일~13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 용접기
- Machine Tool Indonesia 2012 ('12년 12월 5일~8일)

○ 티타늄 옥사이드
- ASIA Pacific Coating Show 2013(방콕) ('13년 9월 12일~13일, Thailand BITEC)

○ PC 및 주변기기
- Indocomtech 전시회 ('12년 10월 31일~11월 4일)

○ 냉동차량 시스템
- Retail Indonesia 2013, Indonesia Food & Hotel Exhibition ('13년 4월 10일~13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 폴리에스터 섬유사
- International Yarn & Fabric 전시회 ('12년 5월 31일~6월 3일 개최 완료, 내년 개최일 미정)

○ 의료장비
- Indomedia Expo 2012
('12년 5월 10~13일 개최 완료, 내년 개최일 미정)

○ 인스턴트라면
- Interfood Indonesia Expo 2012 ('12년 11월 21~24일)

○ 호이스트
- All Indonesia Expo 2012 ('12년 10월 17~21일)
- Machine Tool Indonesia 2012 ('12년 12월 5~8일)

○ 발전기 세트
- Electric, Power, Oil & Gas Indonesia 2013
('13년 9월 4일~7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 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쇼케이스 냉장고
- 인도네시아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지속 성장할 전망
- 자카르타를 포함하여 지방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어 지방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용접기 및 티타늄 옥사이드
- 인도네시아 건설경기 호황으로 용접 기계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자카르타 주변 제조업 공장 증설이 많은 관계로 향후 수요 증대 발생

○ PC 및 주변기기
- 외국인 기업 증가, 중산층 규모와 소득 증가 등으로 PC 및 주변기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평가

○ 냉동차량 시스템
- 최근 인도네시아 소매유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소형 트럭 냉장 시스템 판매는 밝을 것으로 판단됨

○ 폴리에스터 섬유사
- 주택경기 호황은 향후 2~3년 동안 지속될 전망
- 따라서 주택에서 사용되는 커튼, 쇼파 등 폴리에스터가 사용되는 제품 판매가 늘어날 전망

○ 의료장비
- 인도네시아에는 복강경 수술 장비가 없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음
- 최근 환자들이 수술 후 미용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복강경 수술 장비 수요가 증가
- X-Ray 등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중저가 의료장비 수출 전망도 밝음

○ 인스턴트라면
- 한국의 신 라면이 인기는 높으나 가격이 현지 생산업체 제품보다 가상대적으로 높아 인도네시아 저·중산층들은 Indomie를 즐겨 먹음
- 인도네시아의 저·중산층 시장을 타깃으로 하려면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함

○ 호이스트
- 건설 경기 호황,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항만, 도로 등) 투자 의지로 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5월까지의 수입규모는 83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40억 달러 수마트라-자바섬 해저케이블 공사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동제품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 발전기 세트
- 인도네시아 정부의 2차 1만 MW전력공급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전까지 전력 공급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건설경기 호조와 더불어 동 제품에 대한 미래 수요가 밝을 것으로 예상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쇼케이스 냉장고
- 2012년 동 제품에 대한 수요는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편의점의 수가 증가하면서 편의점용 냉장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용접기
-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신규 구매 증가와 기존 제품 교체 발생 전망

○ 티타늄 옥사이드
- 현지 생산 능력이 없어 주로 수입에 의존
- 페인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동 제품은 인도네시아 페인트 제품 시장 수요가 확장되면서 그 수요 또한 늘어날 전망

○ PC 및 주변기기
- 중산층 수가 증가하면서 PC수요도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여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냉동차량 시스템
- 소형 트럭의 냉동차량이 시장의 80%를 차지
- 섬이 많고 도로가 비좁아 소형 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냉동차량 시스템이 유망

○ 폴리에스터 섬유사
- 중산층의 증가,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향후 2~3년간 동 원재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의료장비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복강경 수술기기는 인기가 매우 높음
- 한국의 고품질 의료기기에 대한 시장 인지도도 높은 편임

○ 인스턴트라면
- 대 인도네시아 수출 시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는 할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고 정적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함

○ 호이스트
- 제품 자체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결제 수단이 중요한 문제
- 고가의 제품으로 현지 바이어들이 한 번에 구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부 외국 수출상들은 경우에 따라 분납 결제를 허용하기도 함

○ 발전기 세트
- 동 제품은 정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가정의 소비가 많음
- 자바 섬 이외 지역은 아직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진출 시 유의사항

○ 쇼케이스 냉장고
-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인하여 고장 발생이 잦을 수 있으므로, Electricity Current Stabilizer를 사용할 것으로 권고

○ 용접기
- 부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바이어의 신뢰는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티타늄 옥사이드
- 주로 대기업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 구매담당자와의 네트워크가 필요

○ PC 및 주변기기
-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적정 가격 설정이 중요함

○ 냉동차량 시스템
- 고장 시 수리해 줄 수 있는 A/S 센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필요할 경우 현지 정비업체와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여 A/S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

○ 폴리에스터 섬유사
- 한-아세안 FTA 관세율이 0%임으로 AKFTA Form 작성 필수

○ 의료장비
-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의료장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약 3~6개월 정도가 소요됨

○ 인스턴트라면
-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입맛(짜고, 단맛)에 맞는 라면을 출시할 필요가 있음

○ 호이스트
- 통관 시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발전기 세트
- A/S망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해 바이어 및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베트남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ㅇ GDP (현황과 전망)

- 지난해 5.9%를 기록한 베트남의 GDP 증가율은 금년 상반기에 4.38%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됨
- 베트남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 정책으로 시중 신용 경색이 가중되어 내수 경기가 침체됨
- 금년도 베트남 정부의 목표치 6.0% 이상 달성이 불투명하며,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은 5.6~5.8%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6.5% 이상의 예년 성장률 회복은 2013년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전망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억달러	71.5	890	914	1,046	1,190
GDP 증가율	%	8.5	6.2	5.3	6.7	5.9
1인당 GDP	달러	826	1,024	1,068	1,168	1,330
산업생산 증가율	%	17.1	14.6	7.6	14.0	6.8
수출	억달러	486	629	566	715	969
수입	억달러	627	804	688	835	1,067
무역수지	억달러	▲141	▲175	▲122	▲120	▲98
물가상승율	%	12.6	22.9	6.9	11.8	18.1
환율	Dong/$	16,050	16,989	17,941	19,100	20,663

* 자료원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베트남 통계청(GSO)

주) GDP, 1인당 GDP는 달러 환산 추정치, 경상수지는 전망치 대외채무, 재정수지비중(2009, 2010), 외환보유고(2010)는 추정치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베트남 수출입 동향】

(단위: US$억)

구 분	2009	2010	2011	2012.4
수 출	57,096	71,629	96,906	33,760
수 입	69,949	84,004	106,750	33,682
무역수지	-12,853	-12,375	-9,844	78

* 자료원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베트남 통계청(GSO)

-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 산업생산 및 수요 감소에 따라 2009년 수출입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세계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수출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2011년 교역량은 2037억 달러로 2010년 대비 31% 증가
- 2011년도 베트남의 대외교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수출 호조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하여 20.5% 감소한 98억 4400만 달러로 이는 5년 만에 100억 달러 이하를 기록한 것임
- 2012년 1~4월간 베트남 수출금액은 337억 달러, 수입 336억 달러로 무역흑자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부터 이어진 베트남 산업생산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로 보이나, 점차 다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US$억)

구분	2008	2009	2010	2011
산업생산증가(%)	13.9	7.6	14.0	13.5
연간인플레(%)	22.97	6.88	9.19	18.58
도시 실업률(%)	4.65	4.60	4.43	3.6
연평균 환율(대 달러화)	16,583	18,119	19,493	20,989
외환보유고(억 달러)	230	141	124	168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2010

- 산업생산율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7.6%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11년 회복세를 보여 외투기업의 비중 41.8%, 민간부분은 35.4%, 국영부분은 22.8%를 기록함
- 2000년대 초반 최대 3%에 불과하던 물가상승률이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통화량 증가로 인해 2006년 7.5%, 2007년 8.3%, 2008년에는 16년 만에 최대치인 22.97%까지 치솟음
- 2009년 정부의 고금리정책으로 6.88%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2011년 18.58%를 기록했고 2012년도 2자리수의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베트남의 경우 환율 시장이 제한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로 운영되어 외환 시장이 매우 폐쇄적임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지난해 이후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과 통화증가 억제로 금년 상반기 물가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기업 파산이 증가함
- 베트남 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사분기 동안 파산 신청 기업이 약 2,200여개, 영업정지 혹은 법인세 유예를 신청한 기업이 약 9.700여개
- 베트남 경제 도시인 호치민시의 경우 소재 기업 931개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고를 했으며, 파산을 신청한 주요 업종은 무역, 건설, 운송 및 관광 등임

○ 금융부문

-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과 이자 상환능력 감소로 금년 1사분기 동안 베트남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증가
- 베트남 현지 신문 Dan Tri紙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국영 상업은행인 Vietcombank의 1사분기 세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120억 베트남동(약 538만 달러) 감소한 1조 6,626억 베트남동을 기록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실채권도 증가하였음

3-1 하노이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09		2010		2011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열연코일 (720839)	811	n.a	891	9.7	1,290	44.8	306.7	32.8	442.3	44.2	171.4	25.5
2	자동차부품 (870899)	532	n.a	676	27.1	864	27.8	154.9	0.4	227.8	47.1	73.7	-27.2
3	선박용엔진 (840810)	152	n.a	207	36.2	239	15.5	36.0	125.2	49.1	36.1	31.3	30.4
4	태양광모듈 (854140)	49	n.a	103	110.2	100	-2.9	1.3	137.3	3.0	128.2	16.0	7,364.0
5	아연도금강판 (721049)	65.4	16.2	80.7	23.2	95.1	18.0	14	130.4	19	35.3	13	66.1
6	합성수지 (400219)	60	n.a	68	13.3	75	10.3	32.6	21.7	61.8	89.7	28.2	3.7
7	폴리에틸렌 (390120)	17	-27	22	28	-	-	63.2	1.5	49.0	-22.5	29.6	39.0
8	운반용바퀴 (392190)	3	n.a	5	66.7	6	20	23.0	116.8	38.9	69.2	27.2	73.5
9	PVC판넬 (391810)	4	n.a	10	150	-	-	1.0	87.8	1.6	55.9	1.3	62.9
10	밸브 (848120)	20	n.a	17	-15	-	-	0.5	-19.5	0.6	40.3	0.7	133.4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관련 협회(베트남), 무역협회

주) 1. 베트남의 공식 수입통계 수치는 2009년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으며 HS코드는 4단위로 분류되어 있음.

2. 상기 통계표는 베트남 통계청 자료와 관련 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임.

❑ 10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열연 코일(3mm 이하)(HS : 720839)

○ 시장동향

- 베트남 철강 협회(VSA)에 의하며, 금년 상반기 동 품목의 베트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시장 점유율 1위국 일본과 2위국 대만의 수입이 각각 22.8%, 19.1%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약 13.7%
- 러시아, 중국 등이 1억 달러 이상의 수출국이나 중국산은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약세

【주요 수입국 열연코일 수입현황】

(단위: US$천)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115,686	216,119	184,458	254,286	292,717
대만	116,511	179,683	128,789	207,508	245,785
한국	18,002	60,491	138,316	143,517	176,594
러시아	6,550	10,453	166,031	130,822	160,368
중국	115,279	139,347	30,659	105,317	117,076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동 품목은 베트남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
- 특히, 대규모의 자금과 기술, 후방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부문으로서 외국 기업 및 수입 의존 불가피
- 국내 수요 감소 불구, 양질의 외국산 제품 수요는 증대되어 한국산 제품 수출 기회
- 중국산의 시장 지배력 약화로 일본 시장 지배력은 상대적 증대하였으나 동 시장은 고급화가 진행되는 시장으로 한국산 수출 확대 기회

2)	품목명	자동차 부품(HS : 870899)

○ 시장동향

- 베트남의 산업 발전과 소득 증가로 승용차 및 상용차 수요 장기적 증가세가 예상됨
- 최근 경기 침체로 자동차(승용차)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동 부품 수요는 경기영향에 제한적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자동차 부품은 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함
- 2011년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약 8억 6,400만 달러로 한국산 수입 비중은 34.8%로 최대
- 중국산 제품은 대부분 상용차 부품을 중심으로 수입됨

【주요 수입국 자동차 부품 수입현황】

(단위: US$백만)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67,082	57,149	48,605	73,941	84,819
중국	31,861	54,358	42,585	65,914	78,875
한국	20,706	26,203	31,134	40,679	48,621
태국	17,794	17,201	14,226	20,978	23,201
인도네시아	14,158	12,124	3,657	10,108	10,453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자동차 부품은 경기 회복기에 대비한 수출 확대 적기로 판단됨
- 2009년 이후 증가한 한국산 자동차 부품 교체 시기(3년) 도래하였으며 한국산 자동차 수요 대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제한적임
- 태국의 대홍수 사태 이후 일본계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의 수출 확대 기회가 생겨남

3)	품목명	선박용 엔진(HS : 840810)

○ 시장동향

- 베트남 국영조선공사(Vinashin) 파산 이후 국내 조선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일본, 러시아 등 국가에서 조선 산업 투자를 증대하기 시작
-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핵심 부품인 엔진 수입 수요도 증가세

○ 경쟁 및 수입동향

- 2009년 비나신 사태 이후 베트남의 선박용 엔진 시장은 위축되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36%, 16%의 수입 증가율 기록, 2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 형성
- 2009년까지 일본산 비중 가장 높았으나 2010년 이후 중국산 제품 시장 점유 확대
- 한국산 엔진의 수입은 2009년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나 2010년, 2011년에 각각 17%, 19%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14.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중국 27.4%, 일본 19.7%)

【주요 수입국 선박용 엔진】

(단위: US$천)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29,755	59,921	30,245	56,110	65,404
일본	24,364	30,469	36,429	41,615	47,160
한국	10,371	24,345	21,482	29,454	35,173
미국	3,374	7,722	19,630	19,115	23,170
독일	6,460	11,244	14,818	17,896	21,231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조선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조선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아 핵심 부품인 엔진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고급 선박 건조를 위해 일본, 한국산 엔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조선 공기업 파산사태 불구, 베트남 정부는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

4)	품목명	태양광모듈(HS : 854140)

○ 시장동향

-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베트남 내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동 품목 수입은 2009년 이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친환경 정책 전개와 외자 유입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요 확장이 예상

○ 경쟁 및 수입동향

- 수입 규모는 2009년 5,000만 달러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1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술력이 높은 일본과 싱가포르산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나 저가의 중국산 제품 점유율도 15~19% 수준으로 시장이 세분화
- 한국은 2009년 3,5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 대비 수출이 급감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함

【주요 수입국 태양광모듈 수입현황】

(단위: US$천)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10,146	14,104	26,224	27,496	32,590
중국	2,103	2,243	9,484	8,904	10,879
한국	3,385	7,298	3,487	6,924	8,214
싱가포르	12,031	14,901	149	3,785	4,254
홍콩	1,753	4,744	40	2,725	3,188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베트남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베트남 정부의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며, 베트남 정부는 태양광 이용에 주목하고 있음
- 풍부한 태양열 자원을 바탕으로 한 플랜트 개발 시 베트남의 차기 에너지원으로 태양열 에너지가 부상할 전망
- 베트남의 고질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책 전개
- 전기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익 실현이 기대됨

5)	품목명	아연도금강판(HS : 721049)

○ 시장동향

- 건축용 자재인 아연도금강판은 베트남의 높은 습도를 제어하는 재질로서 최근에는 인테리어 재료는 물론 주방용품 등에까지 폭넓게 이용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2009년 베트남의 동 품목 수입규모는 6,550만 달러였으나 2011년 9,500만 달러로 베트남 경기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0% 이상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입시장 규모 1억 달러에 근접
- 총 수입 중 중국, 일본, 대만 및 한국 등 4개국의 시장 점유율이 91%를 차지하며, 이 중 중국산 제품이 약 3,985만 달러로 점유율 42%를 차지
- 기타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22.9%, 대만이 16.8%, 한국은 8.9% 차지

【주요 수입국 아연도금강판 수입현황】

(단위: US$천)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9,209	19,168	27,174	32,762	39,850
일본	8,731	16,870	12,890	16,803	18,765
대만	9,250	8,396	13,776	14,123	16,014
한국	1,934	5,622	5,317	7,107	8,507
인도네시아	1,072	1,750	894	1,270	2,111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수출 상위 4개국 제품 가운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 확대로 중국산 제품에 이어 높은 수입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6)	품목명	합성수지(HS : 400219)

○ 시장동향

- 합성수지는 최근 베트남 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인 수입 수요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경쟁 및 수입동향

- 합성수지는 베트남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특히 2010년과 2011년 대 베트남 합성수지 수출 증가세가 두 자릿수 기록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함
- 2011년 한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54.7%로 2위 수입국 대만(11.8%) 대비 약 4.5배 규모
- 태국이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3% 미만

【주요 수입국 합성수지 수입현황】

(단위: US$천)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16,834	24,592	26,750	34,463	39,611
대만	8,206	7,997	7,564	8,478	8,354
태국	10,613	7,323	6,698	7,867	7,811
중국	2,087	3,395	2,287	2,459	2,245
일본	2,937	3,398	4,104	2,256	2,275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합성수지는 산업용은 물론, 생활 소비재 생산에 폭넓게 이용되는 중요한 제품
- 수요가 많고 한국산 제품 시장 인지도 높아 마케팅이 용이
- 베트남 통상산업부 전망 자료, 2015년까지 연간 8% 수요 증가 예상
- 건축 수요는 위축되었으나 금년에 전년 대비 700% 이상 증가한 일본 기업들의 투자 수요(공단, 거주지 등)에 적극 대처
- 일본 상품 수출 미약하여, 한국산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7)	품목명	폴리에틸렌(HS : 390120)

○ 시장동향

- 플라스틱 산업에 이용되는 폴리에틸렌은 최근 베트남 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인 수입 수요가 감소
- 그러나 고급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여 수출 확대 기회가 있음
- 건설 기자재, 거주용 폴리에틸렌 수요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수입시장 규모는 약 1억 달러 규모로, 2008년 태국, 한국, 싱가포르가 상위 3대 수출국이었으나 2011년에는 태국, 한국, 미국이 3대 수출국으로 바뀌었음
- 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함
- 한국은 제2위 수출국으로 1,9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시장 점유율은 13.5%를 차지

【주요 수입국 폴리에틸렌 수입현황】

(단위: US$천)

	2007	2008	2009	2010	2011
태국	30,485	37,687	28,662	32,864	33,234
한국	22,454	23,578	17,120	19,369	19,046
미국	13,326	15,986	12,245	17,200	19,041
사우디아라비아	7,563	8,418	10,250	10,583	11,368
대만	8,764	8,183	6,134	7,708	7,980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연평균 약 20%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은 2,000여개 이상임
- 현재 국내 생산의 내수 충족 비율은 약 20~30%로 수입 의존도가 높고 한국산의 고급 제품은 시장 인지도가 높아 수요 확대가 지속될 전망임
- 플라스틱 산업은 최근 베트남의 중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8)	품목명	운반용 바퀴(HS : 392190)

○ 시장동향

- 운반용 기구(trolly)는 실생활과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
- 베트남에 산업 생산설비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통망과 물류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 산업이 점차 발달하면서 운반용 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

○ 경쟁 및 수입동향

- 지난해 베트남에서 동 품목의 시장 규모는 약 8,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간 수입규모는 연간 약 6,000만 달러로 수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시장
- 시장 점유율은 베트남산 38%, 중국산 31%, 대만산 13%, 일본산 7% 등
- 수입은 2010년 약 5,85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약 6,126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5.2% 증가율 기록
-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35%, 일본이 14.6%, 대만이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제5위 수출국으로 시장점유율은 6% 미만임

【주요 수입국 운반용 바퀴 수입현황】

(단위: US$천)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16,606	16,657	13,595	18,668	20,662
일본	3,741	6,598	6,772	7,899	8,991
대만	6,200	7,103	6,141	6,294	6,251
태국	3,240	4,876	3,801	4,760	5,162
한국	7,929	6,069	4,357	4,312	3,657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운반용 기구에 필수 부품은 바퀴로서 내구성과 유연성이 높은 제품이 품질을 좌우
- 시장 규모가 작고 제품 단가가 낮은 소규모 시장이나 수요가 높은 산업이 대부분 발전단계에 있어 높은 잠재성 보유
- 對베트남 투자기업 증대, 물류 및 유통 산업에 의한 산업수요, 오피스 증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실생활 및 학원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9)	품목명	PVC 판넬(HS : 391810)

○ 시장동향

- 동 품목의 2010년 수입시장 규모는 약 995만 5,000만 달러이며, 우리나라는 약 100만 달러를 수출
- 2000년 이후 수요 증가하였으나 현지 생산제품보다 외국산을 선호

○ 경쟁 및 수입동향

- 베트남에서 동 제품이 생산은 가능하나 기술부재로 외국산과 경쟁관계는 없음
- 주요 수입 플라스틱 제품은 PE, PP, PET 및 PA이고 PVC의 경우 수입과 국내생산 판매 비중은 8:2
- 국별 시장 점유율 : 중국 44.5%, 태국 26.2%, 한국 10.2%, 대만 5.4%

【주요 수입국 PVC 판넬 수입현황】

(단위: US$천)

	2007	2008	2009	2010	2011
태국	868	1,580	1,470	1,769	2,164
한국	548	697	638	912	967
중국	548	804	513	822	933
폴란드	-	-	474	379	474
말레이시아	163	155	211	266	315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동 제품은 최종 소비재와 산업재에 포괄적으로 이용되는 품목으로서 베트남 경기가 회복되면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산 제품의 품질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어 한국산 시장 점유율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10)	품목명	밸브(HS : 848120)

○ 시장동향

- 베트남의 산업발달로 건축과 기간 산업부문에 수요가 높은 제품으로 특히 산업용 밸브는 연평균 약 1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크게 위축되지 않아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품목
- 금년 들어 베트남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요층이 두터운 제품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시장 점유율 1위국 중국과 2위국 일본의 수입이 각각 15.4%, 11.3%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약 8%로 3국이 베트남 시장의 약 35%를 차지
- 기타 이탈리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 주요 수입국임

【주요 수입국 밸브 수입현황】

(단위: US$천)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2,027	2,816	3,290	3,801	4,358
일본	1,710	1,470	3,986	3,006	3,213
싱가포르	3,019	5,038	382	2,715	2,841
이탈리아	1,547	3,220	908	2,391	2,741
한국	1,035	2,374	1,394	2,029	2,275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선정사유

- 일본의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엔고, 생산전략 부족 등 생산 불안 요인이 나타나면서 對베트남 수출에 차질이 생김
-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일본 제품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가격대비 경쟁력이 생김
- 對베트남의 투자패턴이 부품소재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밸브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열연 코일

- 베트남 주요 공기업 직접 접촉

  * 관련 공기업 및 자회사: PetroVietnam(석유공사), EVN(전력공사) 등

- KOTRA 벤더 등록 프로젝트, 입찰 참여

  * Global Project Plaza('12년 10월 4일~10월 6일)에 베트남 주요 프로젝트 보유 공기업 참여

○ 자동차 부품

- KOTRA 지사화서비스를 통해 시장 정보(FTA, TPP 등) 모니터링 및 잠재 바이어 발굴
- 우량 바이어가 다수 존재하여 출장을 통한 직접 마케팅 시도가 필요

  * 하노이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참여 요망(문의: KOTRA 시장개척팀)

○ 선박용 엔진

- 전시회 참여를 통해 현지 업체와 미팅 확대

  * 대표적인 조선 전시회 Vietship('13년 3월 5일~3월 7일)

  * 종합전시회 하노이 EXPO('13년 4월 예정), ENTECH('12년 9월 17일, 그린사업팀)

- 방산물자 수출 에이전트 발굴

  *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지원으로 현재 하노이 무역관은 정부에 납품 경험이 많은 관련 에이전트를 확보하였으며, 출장지원 서비스를 통해 면담 추진 가능

○ 태양광 모듈

- ENTECH('12년 9월 17일), 고급 산업기기 전시회 적극 참가
- 발주처(지방성 정부, 공기업) 직접 공략, 태양광 프로젝트 공동 참가

  * "Clean Energy and Lighting on Truong Sa Island", "Photovoltaic Project" in Quang Binh/Nha Trang

  * 베트남의 환경 관련 프로젝트의 재원은 대부분 차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도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관심이 높은바, 지방 省정부로부터 KOTRA, 수출입은행이 입수하고 검토한 프로젝트에 참여 방안 고려(문의: KOTRA 하노이 무역관)

○ 아연도금강판

- 하반기 관련 전시회 참가

  * Inter Deco Vietnam ('12년 8월 31일~9월 5일 개최 완료, 내년 개최 일정 미정)

  * ConBuild ('12년 12월 4일~12월 7일)

-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통한 적극적 바이어 발굴

  * 해외시장조사 결과에 의한 현지 출장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

○ 폴리에틸렌

- 지사화서비스, 바이어 찾기 및 현지 출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운반용 바퀴

- 11월에 열리게 될 베트남 산업전 전시회 참여 및 바이어 찾기 서비스 통한 잠재 바이어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바이어 대부분이 중소 규모로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심 바이어 방문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함
- 관련 협회나 공식적인 DB가 부재하므로 무역관 구축 DB를 적극 활용

○ PVC 판넬

- 바이어 찾기 서비스 통한 잠재 바이어 발굴 노력 지속
- 바이어의 규모는 다양하나 한국 제품에 대한 이해도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심 바이어는 방문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함

  * 관련 전시회 : ConBuild ('12년 12월 4일~12월 7일)

○ 밸브

-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한 바이어 발굴 지속

  *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시 등 대도시 관련 전시회 관심 요망

-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등 해외 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 기회

  * 일본의 對베트남 원조와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국제 입찰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기업과 동반 참여 모색

  * JICA, ADB, WB 등 프로젝트 입찰 정보(수시 제공) 검토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열연 코일
- 현재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이 침체기에 처해 있어 재고가 증가하는 추세임
- 베트남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시행 시 시장 회복이 기대됨
- 베트남 국내 생산 제품의 공급은 초과상태이지만,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하노이 무역관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최근 중국산 철강 수입이 급증한데 기인한 조치이며, 양질의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부품
- 현재 관세 수준은 5~30%이나 한-베 FTA 협상이 개시되었고 FTA 발효 시 관세 철폐도 가능한 품목이 많아 시장 확대 가능성 높음
- 2009년 베트남 정부의 등록세 할인 조치 때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금년부터 중요 부품의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

○ 선박용 엔진
- 베트남의 조선 산업은 러시아, 일본계 투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현지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의 시장 진출을 고려해야 함

○ 태양광 모듈
- 잠재성이 높은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함
-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발주처의 수요, 베트남에 적합한 프로젝트, 기술 수준을 고려한 제품의 생산 및 수출 확대가 우선
- 베트남에서 태양광 에너지는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에너지로서 기술력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아연도금강판

- 건축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나 가정용 주택과 공단 등 인테리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이 타깃
- 일본의 대 베트남 투자 진출 급증으로 공단, 오피스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합성수지

- 최근 일본 타이어 생산업체 대규모 투자 및 베트남 정부의 화학 산업 지원 정책으로 시장이 더욱 세분화 될 것으로 보임

○ 폴리에틸렌

- 장기적 수요가 지속되는 품목으로 제품 경쟁력 유지가 시장 확대의 관건
- 베트남 정부는 플라스틱 산업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부품의 기술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한국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전망

○ 운반용 바퀴

- 규모가 작은 시장이기는 하나 소모품으로서 시장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꾸준한 마케팅이 필요

○ PVC 판넬

- 최근 중국산 제품의 품질 불량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마케팅 필요
- 공단 수요 증가로 투자진출 기업, 협력 업체 대상이 주요 고객이 될 전망

○ 밸브

- 베트남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가 존재하는 품목으로 한국 제품은 품질 면에서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일본산 대체 상품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열연 코일
- 수요가 높은 품목이나 최근 대만 제품의 증가세 주목
- 한국과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중
- 한국산 제품은 일본산 제품과 동일한 품질로 평가

○ 자동차 부품
- 베트남에서 운행되는 한국 브랜드는 현지 생산 소형차종이며, 최근 관심이 높은 중형, SUV 차량은 부품 조달에 애로
- 보다 많은 대리점 확보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에 인지도 확산이 중요
- 하노이에서 한국산 차량 정비소가 매우 제한적인데, 지정 대리점 및 정비소를 늘리면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선박용 엔진
- 베트남 공안부 산하 Thang Long社 관계자에 의하면, 해양경찰용 보트에 이용된 한국산 엔진의 품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고속정 제작을 위한 고출력 엔진 시장 진출 고려 추천

○ 태양광 모듈
-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높은 품목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한 지방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안정적 수출 시장 개척이 가능한 품목
- 베트남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대 제품 개발 중요

○ 아연도금강판
- 인테리어 업체 Quoc Minh社는 금년에 전년 동기 대비 약 8% 가까이 수입을 확대하였고 연말까지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높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므로 한국산 수출 확대 기회가 있음

○ 합성수지

- 화학 공기업 Vinachem사는 다수의 Supplier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대만, 태국산 제품도 크게 개선되고 있어 한국산 제품도 시장 우위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 폴리에틸렌

- 베트남에서 폴리에틸렌의 수요는 포장, 플라스틱 제품 부문에서 가장 높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 수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에 경쟁력 높은 제품 공개가 바람직함

○ 운반용 바퀴

- 전시회 등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품목으로 한국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
- 최근 베트남에서 운반용 바퀴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은 쉽게 고장이 나고 파손 시 재활용이 어려워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

○ PVC 판넬

- 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샘플, 전시장)가 적어 구매 시 많은 시간이 소요
- 낮은 가격대의 제품 수출 요망
- 동 제품의 베트남 내 조달은 제한적이므로, 지정 대리점 확대 요망

○ 밸브

- 한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 확보한다면 일본 제품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진출시 유의사항

○ 열연 코일, 자동차부품, 선박용 엔진, 태양광 모듈, 아연도금강판, 폴리에틸렌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수입관세율 0%, VAT 10%, 비관세 장벽 없음

○ 자동차 부품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수입관세율 0~30%, VAT 10%, 비관세 장벽 없음

○ 합성수지, 밸브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수입관세율 3%, VAT 10%, 비관세 장벽 없음

○ 운반용 바퀴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수입관세율 5%, VAT 10%, 비관세 장벽 없음

○ PVC 판넬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수입관세율(MFN) 27%, VAT 10%, 비관세 장벽 없음

3-2 호치민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선정요인

❑ 10대 품목別 수입시장 통계

(단위: US$천,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HS 4단위)			아국 수출동향 (HS 6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상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CCTV (852580)	135,363	112,583	-16.8	2,463	21.5	2,927	18.9	1,399	14.4
2	위성 수신기 (852871)	225,770	294,591	30.5	6,868	-24.4	9,117	32.7	3,406	-38.3
3	자동차 (870323)	387,376	514,625	32.8	173,896	-4.0	204,849	17.8	58,896	-34.7
4	타이어 (401110)	138,735	178,938	29.0	3,162	128.5	3,855	21.9	1,978	2.9
5	의약품 (300420)	819,836	1,042,789	27.2	22,190	109.9	27,002	21.7	12,471	-0.7
6	화장품 (330499)	47,107	56,150	19.2	21,536	136.0	14,022	-34.9	7,126	5.7
7	편직물 (600622)	406,878	619,259	52.2	278,197	20.7	274,888	-1.2	121,294	-18.9
8	폴리에틸렌 (390110)	947,005	869,078	-8.2	103,520	20.8	95,501	-7.7	38,182	-15.4
9	섬유 (540742)	404,067	380,405	-5.9	29,389	63.7	50,195	70.8	29,836	11.3
10	유제품 (040299)	318,927	235,106	-26.3	6	-35.2	22	281.0	12	136.2

* 자료원 : THE 2009 CUSTOMS YEARBOOK ON FOREIGN MERCHANDISE TRAD, 무역협회

주) 베트남의 공식 수입통계 수치는 2009년까지 업데이트 되었고 HS코드 4단위로 분류되어 있음.
상기 품목은 베트남 현지의 관련 협회 등에서도 최근 통계자료를 찾을 수 없어 2009년까지만 기입.
단, 자동차, 의약품, 유제품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는 각 품목별 설명에 첨부.

❑ 10대 품목別

1)	품목명	CCTV(HS : 852580)

○ 시장동향

- 현재 베트남 CCTV 카메라 시장의 아날로그 카메라 분야 유통업체는 약 65-75%, IP 카메라 유통업체는 30-35%로 여전히 IP 카메라의 소비량이 낮음
- 2009년 기준 베트남은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등 세계 14개국으로부터 6358만 달러에 달하는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를 수입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IP 카메라의 경우 대만, 중국이 40%, 한국은 20-25%, 일본이 1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스웨덴,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25-40%의 시장점유율 차지하고 있음
- 아날로그 카메라는 대만, 중국이 60%, 한국이 20-25%, 일본이 7-1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 CCTV 수입 현황】

(단위: US$천)

국가	2008	2009	비중
중국	5,896	30,780	48.4
일본	5,872	15,796	24.8
한국	2,002	8,411	13.2
대만	2,148	3,397	5.3
미국	890	2,014	3.2
태국	-	1,250	2.0
총	53,540	63,582	100

* 자료원 : 2008, 2009 Customs Yearbook on Foreign Merchandise Trade

○ 유망사유

- 베트남 정부는 공공 보안 장비 분야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 중으로 화재 예방 및 CCTV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은행, 상업건물, 첨단 공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IT 및 통신 분야의 수요 증가와 함께 IP 카메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2)	품목명	위성 수신기(HS : 852871)

○ 시장동향

- 베트남 위성 수신기 시장은 유료 TV 방송을 위한 SD/HD 통합 수신기 디코더와 무료 방송 위성 TV 수신기 두 부분으로 나뉨
- SD/HD 통합 수신기 디코더는 VTC, VSTV, AVG 유료 TV 운영업체로 수입·공급되며 현재 SAMSUNG, HUMAX, OPENTEL같은 유명 브랜드의 한국산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적절한 가격으로 현지 시장을 점유함
- 무료 방송위성 TV 수신기에 대해 핸드캐리 또는 밀수로 수입되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거의 모든 시장을 점유하며 이러한 제품은 주로 저소득 구매자, 지방 및 외진 지역을 위해 공급

○ 경쟁 및 수입동향

- 2008년 베트남의 셋톱박스 주요 수입국은 싱가포르(45만 8천 달러), 한국(21만 5천 달러) 말레이시아(18만 9천 달러)였으나 2009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 전량에 가까운 (556만 6천 달러)를 수입

【주요 수입국 위성 수신기 수입현황】

(단위: US$천)

국가	2008	2009
중국	-	5,566
말레이시아	189	178
싱가포르	458	-
한국	215	-

* 자료원 : 2008, 2009 Customs Yearbook on Foreign Merchandise Trade

○ 유망사유

- VSTV에 따르면, 베트남의 56%가 50세 이하로 젊은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을 쉽게 수용하며 TV 시청시간 또한 높음
- AVG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가구 2400만 중 120만-140만 가구가 CATV, DTH,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DTT)과 같은 유료 TV 서비스를 사용하는 실정으로 향후 베트남 유료 TV 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이 예상됨

3)	품목명	자동차(HS : 870323)

○ 시장동향

- 2012년 베트남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10.4% 상승한 반면 상용차는 판매량이 15% 하락함
- 물가상승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지출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결과 수입된 대형 승용차보단 가격, 연비 면에서 탁월한 베트남 현지조립 소형 승용차가 선호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베트남 정부가 수입자동차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지 조립 생산 자동차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10인승 이하 승용차 시장점유율은 토요타가 43%로 가장 높고 이어 기아(23%), GM(14%), 포드(11%) 혼다(4%)순임

【주요 수입국 자동차 수입현황】

(단위: 대 / US$천)

구분	2010		2011		2012.6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한국	28,119	318,466	25,106	260,069	6075	77149
중국	4,192	152,031	5,524	201,121	2101	80676
일본	5,387	168,438	4,549	162,208	599	26819
태국	2,794	51,606	5,379	94,638	2309	41771
독일	1,761	65,875	2,047	75,614	623	20369
미국	3,798	95,964	2,856	75,196	403	14118
총계	53,841	978,514	54,619	1,028,694	13978	285974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관세청

○ 유망사유

- 일본 자동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나 베트남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여 한국 자동차의 일본 자동차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는 배기량 1100 cc ~ 1800 cc 사이의 소형차 선호도가 높아 아반떼, 엑센트, 포르테 등 높은 경쟁력 지닌 국내 소형차의 진출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4)	품목명	타이어(HS : 401110)

○ 시장동향

- 고무제품에 대한 베트남 국내수요 증가로 인해 고무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04~2009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20.6%에 달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DRC, SRC, Casumina, Kumbo 등 베트남 국내생산 브랜드와 Bridgestone, Michelin, Dunlop, Kumho, Maxxis, Continental, Goodyear, Hankook, Silverstone, Yokohama, Cheng Shing 등의 수입제품들이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
- 베트남 국내생산 브랜드의 경우에는 브랜드 간 딱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며 수입제품 중에는 Bridgestone, Michelin, Yokohama 등의 인지도가 높은 편

【주요 수입국 타이어 수입현황】

(단위: US$천)

	2006	2007	2008	2009
태국	28,492	46,224	58,881	80,989
일본	13,859	17,236	18,895	25,853
중국	2,527	7,328	10,761	16,741
인도	9,136	12,375	15940	14,420
한국	2,787	4,110	6,289	9,103
스페인	3,137	3,674	5,713	7,609
인도네시아	7,976	5,629	8,226	6,746
말레이시아	1,464	2,242	2,189	2,089
총계	79,564	111,839	138,681	178,938

* 자료원 : 2008, 2009 Customs Yearbook on Foreign Merchandise Trade

○ 유망사유

- 2020년까지 도로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동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0년경에는 약 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자체생산 고무제품 공급량이 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바 베트남은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함

5)	품목명	의약품(HS : 300420)

○ 시장동향

- 시장규모는 작으나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연간 약 20%의 속도(추산)로 성장 중임
- WHO에 의하면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베트남 제약회사들은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최대 수입국은 프랑스이며 한국은 인도에 이어 3위를 차지

【주요 수입국 의약품 수입현황】

(단위: US$천)

	2010	2011	2012.6
프랑스	197,987	230,151	132,1234
인도	167,666	218,670	110,133
한국	143,777	164,749	81,380
독일	97,836	115,468	63,972
이탈리아	57,886	66,555	41,338
총계	1,242,958	1,483,071	829,033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유망사유

-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 따르면 베트남 의약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이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09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의 의약품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개방되었고 2012년부터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세가 2.5%로 낮춰질 전망
- 베트남 정부는 2015~2020년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산업자 및 수출입 업자를 증가시키고 베트남 국내 제약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6)	품목명	화장품(HS : 330499)

○ 시장동향

- 베트남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화장품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비공식적으로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매년 약 30%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4~2006년 기간에는 35~40%의 증가율을 기록
- 베트남 여성,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Chanel, Sisley, Guerlain, Orlane등 외국 명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호치민의 경우 화장품 시장 규모가 하노이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2008년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태국이 42.7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싱가포르(17.66%), 한국(10.29%), 일본(7.27%), 스위스(4.14%)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100여개의 베트남 국내외 브랜드들이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진출해 있음
- Lana, Thorakao, Thanh Thao와 같은 베트남 자체브랜드들은 인기가 높지 않음

【주요 수입국 화장품 수입현황】

(단위: US$천)

구분	2006	2007	2008	2009
태국	18,952	18,678	21,189	26,035
한국	3,593	3,813	5,104	6,180
미국	N/A	1,340	1,238	4,811
기타	2,786	3,083	2,507	4,412
프랑스	1,247	1,854	1,858	3,970
일본	1,861	2,167	3,605	2,715
총계	34,020	39,376	49,614	56,150

* 자료원: 2008, 2009 Customs Yearbook on Foreign Merchandise Trade

○ 유망사유

- 베트남의 급격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화장품 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과 훌륭한 품질,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일본, 미국 제품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7)	품목명	편직물(HS : 600622)

○ 시장동향

- 편직물은 주로 수출용, 내수용 의류제작 두 가지 소비시장으로 구성
- 내수용 의류제작에 사용되는 편직물은 베트남 로컬 편직물이 대부분 사용되고, 수입된 원단의 대부분은 수출용 의류제작에 소비되기 때문에 베트남의 수입 원단수요는 의류의 해외 수출 실적에 의존
- 베트남의 의류 해외 수출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직물 수입규모도 2011년 67억 3040만 달러로 전년대비 25.5% 상승, 2012년 상반기에는 수입액 3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경쟁 및 수입동향

- 편직물의 베트남 역내 생산은 총 섬유 수요의 50~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50%(수출용 의류)는 수입 자재를 활용함
- 대 베트남 최대 수출국은 2011년 기준 한국(36%), 중국(36%), 홍콩(25.5%)

【주요 수입국 편직물 수입 비중(%)】

	2009	2010	2011
한국	38	36	36
중국	26	34	35
홍콩	22	26	26
대만	9	2	2
기타	5	2	1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유망사유

- 베트남 의류제조 산업이 안정적인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편직물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
- 베트남에 한국에서 투자, 설립된 의류공장이 400여개에 달함으로써 대 베트남 편직물 수출시 이점으로 작용함
- 베트남 현지 제조업체들을 위한 은행대출 금리 하향 조정 (2011년 16.5~19%, 2012년 12~17.5%)과 세금관련 지원정책으로 현지 제조업체들의 투자증가 예상

8)	품목명	폴리에틸렌(HS : 390110)

○ 시장동향

- 베트남은 2010년 PE 수지 수입에 11억 3000만 달러, 2011년에는 13억 3900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5개월간 PE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한 4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함
-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 산업 활동의 저조, 지속적 경기침체, 베트남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강화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재 베트남에서는 PE 수지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
- 한국은 베트남 PE 수지 수출을 주도해 왔으나 현재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의 PE 수지에 밀리는 상황

【주요 수입국 폴리에틸렌 수입현황】

(단위: US$백만)

	2009	2010	2011	2012.5월
한국	159.5	203.3	189.2	57.3
싱가폴	116.5	222.6	280.5	98.4
태국	110.9	89.8	124.4	38.5
사우디아라비아	81.9	191	270.3	102.2

* 자료원 : Vietnam Industry Trade Information Center

○ 유망사유

- 2011년 이후 베트남 봉지 수출액이 3억 8780만 달러, 플라스틱 시트와 필름이 2억 476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플라스틱 제품 수출실적을 기록
- 2011년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베트남 은행대출 금리 16.5%~20%에서 2012년 5월 13~18.5%로 하락하였고 차후 지속적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할 전망
- 2012년 5월 10일부터 총 자본금 48만 달러 미만, 총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에게 부가세(VAT)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법인세 30%가 감면되는 등 베트남 정부의 세금 지원정책이 채택됨

9)	품목명	섬유(HS : 540742)

○ 시장동향

- 연간 베트남 원단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1년 총 원단 수입액은 6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5% 늘어났으며 2012년 1분기에는 14억4000만 달러를 달성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베트남의 원단 수출 국가는 중국이 4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고 한국(20%), 대만(16%), 일본(8%), 홍콩(6%)이 뒤를 쫓고 있음
- 비텍스쳐드 폴리에스터 원단의 경우에도 2010년 기준 중국(47%), 한국(25%), 일본(25%) 순으로 높은 점유율 기록

【연간 베트남 수입원단 규모 통계】

(단위: US$백만,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분기
수입규모	3,990.5	4,457.8	4,212.3	5,361.5	6,730.4	1,442.3
증가률	35.4	11.7	-5.5	27.3	25.5	-1.4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관세청

○ 유망사유

- 2012년 베트남 의류수출실적이 15% 상승하였으며 순조로운 의료수출 실적으로 원단 수입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
- 베트남 의류수출실적의 45%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소비자가 합성섬유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베트남의 폴리에스터 섬유를 포함한 합성섬유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10)	품목명	유제품(HS : 040299)

○ 시장동향

- 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 우유소비량은 향후 연평균 15~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도심지역의 우유소비는 비도심 지역의 약 4배에 달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베트남 국내생산량은 현재 국내 총수요의 28%에 불과한 상황이나 2020년에는 총수요의 30~40%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300종류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 중으로 Vinamilk, Dutchaldy, Abbott, Mead Johnson, Nestle 등 베트남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 유제품 수입현황】

(단위: US$천, %)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2012.6
1	뉴질랜드	141,500	181,740	207,828	130,293
2	미국	45,690	141,099	166,804	69,322
3	네덜란드	71,812	87,563	115,742	63,123
4	싱가포르	-	-	80,121	60,111
5	태국	34,073	37,382	41,354	26,018
6	호주	19,521	26,257	31,430	8,060
총계		515,773	708,289	840,711	528,449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

○ 유망사유

- 베트남은 총인구 약 8600만 중 20대 미만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진 국가이며 향후 젊은 세대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우유소비량의 증가 예상
- 베트남 우유 자체 생산량은 총수요의 28%에 불과하여 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 수출 성공 가능성 높음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일반 소비재(CCTV, 화장품, 섬유, 유제품)는 하기 행사에 참여 가능
- 2012년 한국 우수상품 판촉전('12년 12월 예정, 호치민무역관 주관)
  * 동 상품전은 베트남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품을 판매 및 홍보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모집 중임

○ 주요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 하반기 무역사절단에 참여 가능
- 베트남 통상 사절단('12년 10월 22일~10월 26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천안시 동남아 무역사절단('12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천안지부)

○ 주요 무역 사절단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13년 예정,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충남 무역사절단('13년 예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부)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최근 베트남에서 한류(한국 드라마, TV프로그램)를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평가 예년에 비해 좋아짐

○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가격을 중요시 하는 저가형 시장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업체는 제품의 가격 및 홍보지원에 있어 유동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베트남은 지역에 따라 소득격차가 있기 때문에 진출 시 제품에 적합한 지역의 중점 공략 및 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함

○ 최근 한-베 FTA 협정이 대두되고 있고, AKFTA 관세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이어 의견

○ CCTV
- 베트남 CCTV 시장은 수요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고 한국제품 품질에 대해선 높게 평가되고 있음

○ 위성수신기(셋톱박스)
- 베트남 최근 케이블, HD 방송 도입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 중임
-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식케이블 방송 공급 업체에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함

○ 자동차
- 최근 베트남 내수시장 수요 감소와 자동차 세금(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등록세) 인상 등 부정적 요인이 많음

○ 타이어
- 베트남 현지 생산 업체(오토바이용)가 많고, 최근 외국투자 기업(Yokohama, Kumho, Bridge Stone)의 진출이 증가함

○ 의약품
- 일반 의약품의 경우 베트남에서 생산하기도 하나 의약품 원료 및 전문 의약품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음

○ 화장품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색조 화장품보다 스킨케어 제품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함
-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지만, 최근 많은 브랜드 제품이 소개되고 있어, 유통에 앞서 품질 확인을 중요시한다고 전함

○ 편직물
- 베트남 섬유시장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 특히, 외투기업 및 수출기업에서 많은 수요가 있음
- 인테리어, 가구 제품 등에 쓰이는 편직물은 한국 제품이 디자인 및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폴리에틸렌
- 베트남은 PE 수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이 많은 품목 중 하나로, 산업생산 분야에 쓰임
- 한국 제품은 좋은 품질과 제품 공급이 원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섬유
- 베트남 의류, 패션 소비자는 수입 제품에 높은 선호도를 보임
- 한국 제품 또한 인지도가 높으나, 특정 선호 브랜드가 미흡하고 대부분 비정상적 루트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함

○ 유제품
- 유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 제품과 수입 제품 등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및 미국제품이 많이 수입됨
- 한국 유제품의 경우 제조분유(이유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진출시 유의사항

○ 베트남 시장은 가격을 중시하는 저가형 시장으로 제품의 가격책정에 있어 유동성 있는 접근이 필요

○ 초기 거래 시 홍보비용의 목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독점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한국 제품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나, 일반적으로 일본, 미국, 유럽 제품보다는 품질이 낮고 대만 제품 수준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품질 우위 증명 및 관련 대책이 필요함

○ 베트남은 국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제품, 설비 및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0~5%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CCTV
- CCTV 카메라 수입 시 별도의 수입 검사 및 규정은 없음
- CCTV 일반우대관세율(MFN)은 5%(AKFTA : 10%)이며, 아세안국가 간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는 0%임

○ 위성수신기
- 별도의 수입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보통신부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 및 표준 적합성 공표가 필요함
- 셋톱박스 일반우대관세율은 25%이며, 아세안 국가 간의 관세는 5%,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임(AKFTA 적용 없음)

○ 자동차
- 자동차 유통을 위해선 한국제조사 및 정식대리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3개의 항구(하이퐁, 다낭, 호치민)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
- 신차의 경우 74~78% 일반우대관세율이 적용이 되며, 중고차의 경우 절대관세(3,500~17,000+@)가 적용됨
- 수입관세와는 별개로 특별소비세(40~60%)가 부과됨

○ 타이어
- 중고타이어의 경우 수입 금지
- 일반우대 수입관세율은 25~35%이며, 아세안 국간의 수입관세는 0~5%임(AKFTA 적용 없음)

○ 의약품
- 제품의 사전 심의등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베트남 바이어 측에서 위임장에 독점형태의 기재를 관례로 하며 이에 따라, 향후 효력이 발생함
- 의약품(HS코드 3003/3004)은 일반우대 관세의 경우 0~8%로 낮은 수준임

○ 화장품
-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사전 심의등록이 필요하며, 대부분 베트남 바이어 측에서 위임장에 독점형태의 기재를 관례로 하며 이에 따라, 향후 효력이 발생함
- 화장품 일반우대관세(MFN)는 20~25%로 다소 높은 편인데, 아세안 국가 간의 관세는 0%, 중국 수입 제품 관세는 10~15%가 적용되어 다소 불리한 상황임

○ 편직물
- 편직물의 일반우대관세는 12%(AKFTA 관세 동일)이고, 아세안 국가 간의 수입관세는 0%임

○ 저밀도 에틸렌
- 베트남에 필요한 품목으로 수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반우대 관세율은 0% 적용됨

○ 섬유
- 원부자재의 경우 일반우대세율은 5~12%, 아세안국간의 수입제품은 0~5%임
- 섬유제품의 경우 일반우대세율은 20%이며,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0%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는 5~15%임

○ 유제품
- 유제품 수입 이전에 품질공표를 해야 하며, 베트남 식품위생안전법에 따라야함
- 일반 우대관세는 3%~20%인데 반해, 아세안 국가 관세는 5%, 중국 0%로 다소 불리함

4 필리핀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2012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도 4.9% 대비 6.4%를 기록하여 당초 경제전문가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크게 개선
- 동 성장률 6.4%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주변국들의 평균 성장률 3.7%보다 높은 수치
- 2011년 실질 경제성장률 3.7% 기록, 2012년도 5-6% 성장 전망

【필리핀 주요경제 지표】

지 표	2009	2010	2011
실질GDP성장율(%)	1.1	7.3	3.7
GDP(US$ 억)	1,609	1,815	1,872
1인당 GDP(US$)	1745.6	1930.66	2,346.8
수출(US$ 억)	383	514	514
수입(US$ 억)	430	547	547
해외근로자 송금(US$ 억)	171	187	201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2012년 1/4분기 중 수출액은 전년대비 4.6%증가한 129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155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 26억 달러 기록

【필리핀 수출입현황】

(단위: US$백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수 출	49,025	38,436	51,498	47,967
수 입	56,746	43,003	54,933	60,139
무역수지	-7,721	-4,657	-3,435	-12,172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 (NSO)

- 2012년 1~6월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입은 각각 41억 49백만 달러(+22.4%), 17억44백만 달러(-6.6%)로 무역수지 24억 5백만 달러 흑자 실현

【한국의 대 필리핀 수출입 통계】

(단위: US$백만, %)

구 분	2010		2011		2012.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326	29.2	10,810	16.00	5,893	13.0
수출	5,838	27.8	7,339	25.7	4,149	22.4
수입	3,488	31.5	3,571	2.4	1,744	-6.6
수지	2,350	22.7	3,767	61	2,405	58.0

* 자료원: KOTIS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액 기반의 민간소비 활성화

- 2012년 1/4분기 중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액이 4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5.4% 증가
- 본국 가족들의 소비지출은 국내 내수시장의 기반이 되고, 건설경기 호황, 송금 비즈니스를 위한 은행의 증가, 필리핀 외환 보유고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
- 2011년도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액은 201억 달러를 기록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올해에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11억 달러 본국 송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2011년 201억 달러는 필리핀 GDP의 11%, 수출액의 42.0% 수준

○ 외국인직접투자(FDI) 활발

- 2011년 대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약 60억 달러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1996년 이래 최고치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투자는 IT-BPO, 제조, 관광, 농업, 재생에너지, PPP 인프라 등에 집중

○ 정부주도의 민관협력방식(PPP) 프로젝트 활성화

- 필리핀 정부는 5월 현재 22개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부분 도로,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로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됨
- 2010년도에 아키노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대부분의 PPP 프로젝트가 그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활성화될 전망

○ IT- BPO 산업 활황

- 2011년 필리핀 IT-BPO 산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총 매출액 1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도 증가할 전망. 이로 인해 관련 산업 및 기자재의 수요가 기대되고 있음
- 2016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성장, 총 매출액 250억 달러 달성, 필리핀 GDP의 9% 기여, 세계시장점유율 10% 차지 등을 달성한다는 'Roadmap 2016' 플랜 추진 중
- 필리핀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이 GDP의 약 50% 이상을 차지함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 10대 품목別 수입시장 통계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신차) (870323)	1,052	66	906	-13.8	-	-	73	211.3	109	49.9	57	11.2
2	전선 (854449)	79.5	51	103.5	31	-	-	41	63.7	45	8.4	14	-48.7
3	자동차부품 (870899)	262	41	282	8	-	-	21	13.7	23	6.2	13	17.9
4	미용크림 (330499)	49	9	55	13	-	-	4	108.9	5	36.4	3	22.3
5	철강제품 (732690)	39	56	45	16	-	-	17	-40.6	50	189.3	28	159.5
6	의약품 (300490)	426	7	504	19	-	-	13	30.2	12	-8.4	7	13.0
7	포장기계 (842240)	14	40	27	93	-	-	2	337	1	-69.2	0.4	-33.8
8	보안장비 (853190)	11	23	11	0	-	-	3	115.9	2	-45.2	2	287.7
9	PC 및 주변기기 (8471)	275	0	294	7	-	-	14	116	13	-5.6	5	35.8
10	편직물 (540761)	17	16	34	100	-	-	11	23.9	17	49.7	12	64.3

* 자료원 : 필리핀통계청, KOTIS

주) 2012년 상반기 통계는 발표되지 않아 생략함

❑ 10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자동차(신차)(HS : 870323)

○ 시장동향

- 한국의 2012년 상반기 對필리핀 수출액은 5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1.2% 증가
- 필리핀 자동차수입판매자협회(AVID)에 따르면 2012년 1~5월 수입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2,887대 판매 기록
- 1~5월 간 수입 승용차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8,004대 달성
- 수입차 비중이 앞으로 전체시장의 약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경쟁 및 수입동향

- 일본 기업은 승용차의 경우 Toyota, Honda, Mitsubishi, Isuzu, NIssan 등 5개사, 상용차 부문에는 Mitsubushi, Isuzu, Nissan Disel, Hino 등 4개사가 진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수입자동차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자동차 수입액은 2011년도 기준 907백만 달러로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의 순임

【필리핀 자동차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수입비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	태국	362	604	404	57	57	45
2	인도네시아	91	130	199	14	12	22
3	일본	93	136	123	15	13	14
4	한국	33	94	100	5	9	11
5	독일	16	37	32	3	4	4
6	미국	9	18	21	1	2	2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경제성장과 함께 수입 승용차 급격한 수요 증가
- 중상류층 소득증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등으로 수입자동차 수요 증가

2)	품목명	전선(HS : 8544.49)

○ 시장동향

- 2012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종 건설프로젝트 확대, 자동차 산업 확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 및 인터넷 이용자 확대로 ICT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필리핀 절연전선 제조업체로는 Philflex, Amwire, Delco, Phelps Dodge 등 4개사로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90%이며, 그 외에는 수입품이 차지
- 2011년 필리핀 전선 수입규모는 10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1% 증가
  *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순

【필리핀 전선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수입비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	일본	20.4	24.0	31.8	38.8	30.2	30.7
2	중국	6.0	10.2	16.5	11.5	12.8	16.0
3	한국	7.2	18.2	16.4	13.6	22.9	15.9
4	태국	5.1	6.8	7.9	9.6	8.6	7.6
5	인도네시아	3.2	5.9	6.8	6.0	7.5	6.5
6	싱가포르	2.0	4.4	5.3	3.7	5.6	5.1
7	미국	1.6	2.3	4.7	2.9	2.9	4.6
8	홍콩	0.9	0.6	3.5	1.6	0.8	3.4
9	인도	0.5	0.2	2.9	1.0	0.3	2.9
10	대만	1.7	1.3	2.7	3.1	1.7	2.6
11	기타	4.3	5.4	5.0	8.2	6.8	4.8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각종 건설 프로젝트 확대, 자동차 산업 확대,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발달에 따른 ICT 관련 제품 수요증가

3)	품목명	자동차 부품(HS : 870899)

○ 시장동향

- 필리핀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자동차 판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자동차의 노후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자동차부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생산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조립공장에 필요한 부품생산을 위한 일본 자회사가 대부분
- 2011년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은 일본 58.8%, 인도네시아 13.1%, 태국 13.1%, 중국 3.81% 등이며, 한국은 1.91%차지

【필리핀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실적			비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	일본	122.01	178.64	232.42	48.25	51.02	58.80
2	인도네시아	15.00	54.13	51.76	5.93	15.46	13.10
3	태국	66.16	53.08	35.45	26.16	15.16	8.97
4	중국	5.32	8.13	15.08	2.10	2.32	3.81
5	미국	4.83	7.38	10.07	1.91	2.11	2.55
6	대만	7.57	8.52	9.99	3.00	2.43	2.53
7	한국	4.74	5.81	7.55	1.88	1.66	1.91
8	말레이시아	3.10	8.44	6.73	1.23	2.41	1.70
9	독일	2.35	3.80	6.00	0.93	1.08	1.52
10	싱가포르	6.10	6.90	4.41	2.41	1.97	1.12
11	기타	15.71	15.35	15.79	6.21	4.38	3.99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자동차 산업 확대와 자동차 노후화, 한국 수입차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입증가 전망

4)	품목명	화장품(HS : 330499)

○ 시장동향

- 2010년 스킨케어 매출액은 67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
-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출시
- 미백크림보다 노화방지크림이 주요 제품군을 이루고 있으며, 메트로섹슈얼을 지향하는 젊은 남성용 제품, 젊은 십대들을 겨냥한 각종 제품 출시

○ 경쟁 및 수입동향

- 필리핀 스킨케어 시장은 Pond's, Eskinol, Avon, NiveaBody, Olay 등 다국적 기업 브랜드가 리드하고 있으며, 필리핀 로컬 브랜드로는 Splash Corp사의 Maxi-Peel, SkinWhite가 대표적임
- 2011년 미용크림 수입시장규모는 55백만 달러 규모로 대만 35%, 싱가포르 14.3%, 인도네시아 8.9%, 미국 8.7% 등으로 대만의 비중이 가장 큼
- 한국은 65만 달러로 14위 기록

【필리핀 미용크림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실적			비 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	태국	19.8	16.8	19.3	43.5	34.0	35.0
2	싱가포르	5.0	4.6	7.9	11.1	9.4	14.3
3	인도네시아	3.1	7.9	4.9	6.8	16.1	8.9
4	미국	3.1	4.2	4.8	6.9	8.5	8.7
5	중국	4.9	4.5	4.2	10.7	9.1	7.7
6	영국	1.8	2.5	2.4	3.9	5.2	4.4
7	말레이시아	3.1	2.9	2.4	6.8	5.8	4.3
8	홍콩	0.5	0.4	1.4	1.2	0.8	2.6
9	캐나다	0.3	0.8	1.3	0.7	1.6	2.4
10	대만	0.2	0.4	1.2	0.4	0.9	2.1
11	기타	3.7	4.3	5.2	8.1	8.7	9.5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필리핀인들의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력 증가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5)	품목명	철강제품(HS : 732690)

○ 시장동향

- 2011년 기준 수입규모는 45백만 달러로 정부의 민관협력방식(PPP) 프로젝트 활성화로 도로, 항만, 공항 등 건설수요와 민간 건설시장 확대에 따라 건설기자재 수요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철강 제품 수입은 중국 36%, 일본 22%, 홍콩 9% 등의 순으로 한국은 수입시장의 4%을 차지하고 있음

【필리핀 철강 제품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비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	중국	7	8	16	26	21	36
2	일본	4	15	10	15	38	22
3	홍콩	5	3	4	19	8	9
4	대만	2	3	3	7	8	7
5	미국	2	1	2	7	4	5
6	한국	2	2	2	8	5	4
7	싱가포르	1	1	2	3	3	4
8	인도	0	0	1	1	0	3
9	말레이시아	1	1	1	4	1	2
10	독일	0	1	1	1	1	2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2012년 상반기 대 필리핀 수출액은 2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
- 필리핀 PPP 프로젝트 활성화로 도로, 항만, 공항 등 건설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요 증가
- 또한, BPO산업 발달에 따른 빌딩건설, 해외근로자 본국송금액(2011년 201억 달러)의 부동산시장 유입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부상 중

6)	품목명	의약품(HS : 300490)

○ 시장동향

- 2011년 기준 수입규모 504백만 달러로 현지 생산 의약품은 대부분 제품이나 원료가 벌크로 수입된 후 현지 의약품 제조 공장에 의해 완제품으로 만들어짐
- 국민소득 및 인구증가에 따라 의약품 수요 증가하기 시작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지 의약품 시장의 70% 가량은 다국적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Unilab 등의 현지 제약업체들은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입국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인도 등으로 한국제품의 수입은 전체 수입규모의 약 2% 차지

【필리핀 의약품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비 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	스위스	37	44	61	9	10	12
2	독일	39	47	56	10	11	11
3	프랑스	41	39	44	10	9	9
4	인도	17	27	40	4	6	8
5	인도네시아	24	27	33	6	6	6
6	싱가포르	23	25	28	6	6	6
7	아일랜드	29	31	26	7	7	5
8	영국	14	17	24	4	4	5
9	이탈리아	15	14	21	4	3	4
10	미국	18	18	21	5	4	4
16	한국	9	9	11	2	2	2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
- 해외 유명제약제품에 비해 한국제품의 수입비중과 인지도가 높지 않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 인구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성장 잠재력 보유

7)	품목명	포장기계(HS : 842240)

○ 시장동향

- 2011년 기준 수입규모 27백만 달러
- 식품 산업을 비롯한 섬유 산업, 반도체 산업 등과 같은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며,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 저가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조회사들은 소량으로 포장하여 저가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음. 이로 인해 포장산업이 발달하여 포장기계 수요도 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지 제조회사가 전무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탈리아 10백만 달러, 스페인 3백만 달러, 일본 3백만 달러, 중국 2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이탈리아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제품의 경우 12위로 수입규모는 약 30만 달러 수준

【필리핀 포장기계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비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	이탈리아	3	2	10	30	17	36
2	스페인	1	0	3	6	3	11
3	일본	1	3	3	7	20	10
4	중국	1	2	2	10	14	8
5	독일	2	2	2	17	13	6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기호에 따라 포장방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장산업 발전
- 포장산업 발달에 따른 포장기계 수요 증가 전망

8)	품목명	보안장비(HS : 853110)

○ 시장동향

- 2011년 기준 보안장비 전체 수입규모 10백만 달러
- 중상류층의 안전 및 도난장비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 신축되는 상업·주거용 콘도 및 빌딩의 증가로 보안장비 수요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전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생산은 전체 수요의 10%에 불과
- 고가의 보안 제품시장에선 미국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수입되는 미국의 유명 브랜드로는 Pelco, GE, Adpro, Kala-tel, Rover 등이 있음
- 국가별 수입동향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전체 수입시장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약 7% 차지

【필리핀 보안장비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실적			비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	중국	2	2	3	19	22.78	23.63
2	홍콩	1	1	2	14	12.36	21.77
3	싱가포르	2	2	2	18	13.78	16.4
4	미국	1	1	1	12	11.26	9.88
5	한국	1	0	1	11	1.23	6.88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중상류층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보안장비 관심 증대, 고급 콘도 및 빌딩의 보안장비 수요 증가 등
- 전체적인 치안 불안도 보안장비 수요 증가에 기여

9)	품목명	PC 및 주변기기(HS : 8471)

○ 시장동향

- 2010년 기준 컴퓨터 판매 대수는 140만 대, 판매금액은 14억 달러에 달함
-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실적은 1억2000만 달러로 매년 성장세이며 모니터와 프린터의 비중이 높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필리핀은 자국기업의 생산기반이 없어 Samsung, Acer, HP, Apple, Logitech 등의 외국계 유명 브랜드가 대거 진출해 있음
-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한국은 수입시장의 0.34%를 차지하고 있음

【필리핀 컴퓨터(주변기기)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금액	비중
1	중국	137.42	117.04	149.04	50.75
2	싱가포르	56.22	61.34	74.02	25.20
3	홍콩	29.81	26.30	20.34	6.93
4	말레이시아	19.18	33.84	10.24	3.49
5	미국	9.01	10.37	9.96	3.39
6	인도네시아	7.24	7.23	5.85	1.99
7	일본	1.02	3.87	4.07	1.39
8	대만	1.36	2.59	3.29	1.12
9	베트남	1.13	0.92	2.77	0.94
10	영국	0.40	0.51	2.30	0.78
15	한국	0.73	1.05	1.00	0.34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필리핀 컴퓨터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10% 이하 수준이지만, 인터넷의 보급 확산, 전자상거래 확산,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 개선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10)	품목명	편직물(HS : 540761)

○ 시장동향

- 편직물 수입규모는 34백만 달러 규모로, 현지 생산업체가 거의 없어 현지 의류생산업체들은 주로 수입에 의존

○ 경쟁 및 수입동향

- 필리핀 현지 편직물 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현지 경쟁업체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대만, 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의 경우 수입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필리핀 편직물 수입시장 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실적			비 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	중국	5.07	5.08	10.60	33.58	29.2	31.61
2	대만	2.93	3.10	8.54	19.45	17.84	25.45
3	한국	3.55	4.05	7.72	23.55	23.26	23
4	인도네시아	1.09	1.37	1.21	7.25	7.89	3.61
5	홍콩	0.51	0.49	1.18	3.41	2.81	3.53
6	태국	0.15	0.60	1.01	1.01	3.44	3.01
7	베트남	0.11	0.25	0.59	0.75	1.42	1.75
8	말레이시아	0.10	0.29	0.52	0.64	1.65	1.54
9	벨기에	0.25	0.89	0.51	1.63	5.13	1.52
10	인도	0.08	0.11	0.36	0.55	0.65	1.08
11	기타	1.24	1.17	1.31	8.19	6.71	3.90

*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NSO)

○ 선정사유

- 필리핀 국민들의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력 증가
- 의류 수출액 및 편직물 수입액 증가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기타전선, 자동차부품, 미용크림, 철강선제품
- 천안시 동남아 무역사절단('12년 12월 4일)
- FTA BUSINESS PLAZA 2012('12년 10월 5일)
-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전('12년 9월 19일)
- 마닐라 국제 오토쇼('13년 4월 예정)
- 필리핀 철물류 전시회('12년 10월)

○ 미용크림, 보안장비
- FTA BUSINESS PLAZA 2012('12년 10월 5일, KOTRA)
- 2012국제인테리어전시회('12년 11월 7일~10일)
- 보안 및 안전설비 기술전시회('13년 4월 예정)

○ 의약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및 포장기계
- PMA ANNUAL CONVENTION('13년 5월 14일~17일/의약품)
- COMDDAP EXPO('12년 11월 16일~18일/컴퓨터 및 주변기기)
- 음식포장 및 냉장전시회('12년 10월 10일~13일/포장기계)

○ 편직물
- Manila FAME 2012('12년 10월 17일~20일/의류패션/악세서리)

○ KOTRA 주최의 상담회, 무역사절단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개별 조사대행, 세일즈 출장 등을 이용하여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현지 유망 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한 현지시장 진출전략 필요
- 각종 건설프로젝트, BPO산업, 자동차산업, 포장산업 등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현지 유망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모색 필요
- 필리핀 바이어는 대량구매보다는 고객이 수요에 따라 소량 구매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대량 구매바이어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소량이라도 자주 거래할 수 있는 바이어 발굴 필요

○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잘사는 나라가 아닌 이유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
-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아 구매자들의 평가가 좋으나 비좁은 현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한 관건

○ 현지 유통업체를 통한 현지 시장진출 필요
- 화장품 등 일반 소비재의 경우,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통업체를 통한 진출 전략 필요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주요 관건
-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아 구매자들의 평가는 좋으나 비좁은 현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한 관건

○ 현지 에이전트 활용을 통한 마케팅 효율성 제고 필요
-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A/S 능력이 있고 현지 구매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우수한 유력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의약품이나 대형 소매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수입하지 않고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

❑ 진출시 유의사항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AKFTA협정에 따라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관세율 0%가 적용
- 일반민감품목의 실행관세율을 2012년 - 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금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
- 이에 따라 일반민감품목의 관세율이 2012년부터 20%이내로 인하되어 시행
- 특히, 자동차는 올해부터 종전 3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자동차부품은 20% 이하로 조정됨
- 필리핀은 국가나 품목에 대한 장벽은 두고 있지 않으나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국(DOH)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5 태국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태국은 2010년 GDP가 3,178억불로 전년 대비 7.8% 성장. 이처럼 높은 성장을 기록한 이유는 2009년 세계경제위기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가 2010년에는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임
- 2011년 GDP는 3,456억불로 전년 대비 불과 0.1%의 성장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하반기 발생한 대규모 홍수사태로 주요산업단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임
- 2012년 태국 경제는 5% 안팎의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태국의 2011년 수출은 2,254억불로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수출은 2,595억불로 전년 대비 15.1% 증가를 전망
- 태국의 2011년 수입은 2,019억불로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금년 수입은 2,468억불로 전년 대비 22.3% 증가 전망

【한국의 대 태국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 %)

연도	2010		2011		2012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6,460	42.7	8,459	31.0	3,945	4.6
수입	4,169	28.7	5,413	29.9	2,659	-5.6
수지	2,291	77.7	3,046	32.9	1,287	0.35

* 자료원 : 무역협회

○ 기타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지표	2010	2011	2012(예상치)
투자증가율	9.4	3.3	12.3
- 민간투자	13.8	7.2	13.0
- 공공투자	-2.2	-8.7	10.0
소비증가율	5.1	1.3	4.4
- 민간소비	4.8	1.3	4.5
- 공공소비	6.4	1.1	3.5
소비자물가지수(CPI)	3.3	3.8	3.5-4.0
- CPI Deflator	3.7	4.2	3.5-4.0

* 자료원 : NESDB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금년 태국의 수출은 5.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유로존 경제 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유럽의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수출제품은 식품, 보석, 가전제품, 섬유, 고무 등임

○ **금융부문**
-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유로존 위기로 단기적 태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가 임박했다고 밝힘
- 태국의 금융시스템은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은 없을 것으로 진단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 10대 품목別 수입시장 통계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완구 (950300)	60.3	19.4	68.6	13.7	33.0	-6.7	0.4	-50	0.4	0	0.2	0
2	합성고무 (400251)	81.3	146.8	124.8	53.5	65.7	8.7	29.9	158.1	54.5	82.2	31.1	55.5
3	영양보조식품 (210690)	266.8	14.5	377.3	41.4	175.4	33.8	6.6	142.5	7.7	16.6	8.5	117.9
4	문구 (960820)	11.2	66.8	12.0	7.1	6.4	-1.5	0.7	122.4	1.1	57.1	0.5	0
5	화장품 (330499)	212.1	21.9	250.2	17.9	147.8	23.5	11.7	71.1	12.6	7.7	7.5	19.0
6	보안기기 (830140)	26.0	16.3	32.0	23.3	17.7	19.5	0.6	21.7	0.8	33.3	0.7	75.0
7	LED조명 (853120)	196.4	37.2	213.9	8.9	187.6	81.6	1.7	26.8	1.6	-5.8	1.1	10.0
8	자동차부품 (870829)	544.2	102.4	505.2	-7.1	238.1	37.3	106.5	231.7	81.8	-23.1	56.1	47.6
9	의약품 (300390)	32.4	-2.0	28.2	-12.9	16.9	14.9	1.9	-18.4	2.0	5.2	0.9	-30.7
10	의료기기 (901890)	132.7	13.0	173.8	30.9	85.4	0.1	4.5	23.6	6.7	48.8	3.2	-8.5

* 자료원 : 태국 상무부

❑ 10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완구(HS : 950300)

○ 시장동향

- 태국의 완구수입 시장은 2011년 기준 68.6백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13.7%가 증가하였음
- 2011년 태국의 완구 시장은 17%나 성장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음
- 도시화 및 가처분 소득의 상승으로 태국인들의 수입산 완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 미국 및 일본 만화 등도 태국 소비자들의 완구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태국에는 현재 태국기업의 자체 생산 완구와 외국 수입산이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커서 전체 수입 중 중국제품의 비중은 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일본, 덴마크,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주요 수출국임

【주요 수입국 완구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중국	41.4	49.0	53.7
2	일본	1.2	1.6	3.7
3	미국	2.2	2.7	1.7
4	대만	1.1	1.2	1.4
5	덴마크	1.0	1.1	1.2
12	한국	0.8	0.4	0.4
전 체		50.5	60.3	68.6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태국 가구 당 자녀수가 줄어들어 양육비 부담이 줄었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완구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음
- 최근 뽀로로, 뿌까, 폴리와 같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전파를 계기로 한국산 완구의 수출도 동반성장 가능성

2)	품목명	합성고무(HS : 400251)

○ 시장동향

- 2011년 기준 태국의 합성고무 수입은 1.2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대비 53%가 증가
- 태국은 천연고무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지만 합성고무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태국의 자동차, 신발섬유, 전자 등 다수의 산업에서 합성고무의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한국은 대 태국 합성고무 수출 1위국으로서 2011년 기준 54.5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태국 전체 합성고무 수입의 43.6%를 차지함
- 현재 태국에는 Thai Synthetic Rubbers Co., Ltd 와 Bangkok Synthetics Co., Ltd(BST) 등 2개사가 합성고무를 제조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의 품질은 중급이며 태국시장에서는 수용도가 높은 편임. 현재 LG와 금호의 합성고무가 태국에 판매되고 있음

【주요 수입국 합성고무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한국	11.6	29.9	54.5
2	말레이시아	2.2	25.2	26.7
3	대만	6.0	10.0	26.4
4	일본	9.3	9.7	8.5
5	중국	-	5.6	8.1
6	싱가포르	-	-	0.4
전 체		33.0	81.3	124.8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작년 대홍수 피해 이후 태국 자동차 산업이 활기를 되찾아 금년 자동차 생산은 사상 최대인 2백만 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는 타이어 등 각종 고무제품에 대한 큰 수요가 발생
- 합성고무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신발, 전자 등 다수의 산업에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며, 한국산 제품은 태국에서 인지도가 높음

3)	품목명	영양보조식품(HS : 210690)

○ 시장동향

- 태국은 2011년 기준 영양보조식품 수입이 3.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41.4% 증가하였음
- 태국인들이 건강에 대하여 보다 큰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비타민, 영양제 등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미국은 영양보조식품 최대 수출국으로서 2011년 기준 1.1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에서 3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별로는 Cerebos와 Amway가 동 분야에서 가장 투각을 나타내어 각각 시장점유율 39%와 14%를 차지하고 있음
- 태국 내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는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 영양보조식품 수입 동향】

(단위 :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미국	83.5	91.5	117.3
2	중국	20.1	31.8	46.4
3	네덜란드	33.5	31.5	39.9
4	말레이시아	20.2	25.0	27.7
5	싱가포르	7.6	8.6	23.4
12	한국	2.7	6.6	7.7
전 체		232.8	266.8	377.3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불안정한 국제경기 속에서도 지속성장하는 태국 경제로 인하여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하여 태국인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기 시작하였음
- 공공부문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도 태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4)	품목명	문구류(HS : 960820)

○ 시장동향

- 태국은 2011년 기준 문구류 수입이 12백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7.1% 증가
- 현재 수요가 큰 제품 특성은 기능성 제품과 현대적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서 학생, 십대 청소년, 직장인들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태국이 문구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으로서 2011년 기준 일본의 대 태국 문구류 수출은 3.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하였음
- 기타 문구류 대 태국 수출국은 베트남, 중국,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은 수출국 5위임
- 문구류를 생산하는 태국업체로는 옴 Siamvala Co., Ltd가 있으며 태국 내 외국 브랜드로는 Big(프랑스), Newell Rubbermaid(미국), Staedtler (영국) 등이 있음
- 중국산 제품은 과거 저렴한 가격으로 태국시장을 점령하였으나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함에 따라 더 이상 태국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 문구류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일본	2.2	2.8	3.7
2	중국	0.9	1.6	1.9
3	독일	1.2	2.0	1.7
4	베트남	0.8	2.3	1.6
5	말레이시아	0.5	1.0	1.1
6	한국	0.3	0.7	1.1
전 체		6.7	11.2	12.0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한국산 제품은 우수한 디자인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
- 태국 소비자들은 특히 귀여운 이미지의 문구류를 선호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이 이러한 선호에 부합함

5)	품목명	화장품(HS : 330499)

○ 시장동향

- 태국은 2011년 기준 화장품 수입이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9%증가
- 태국인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들이 미용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의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가 태국에 새로이 진출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태국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으로서 2011년 기준 미국의 대 태국 화장품 수출은 57.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음
- 태국에는 400여개의 화장품 제조공장이 존재하는데 이중 80%는 외국 브랜드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나머지 20%는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가 고가시장을 형성하며 한국제품은 중저가 시장에 주로 포진

【주요 수입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미국	48.0	52.9	57.4
2	일본	23.4	31.2	42.5
3	프랑스	27.8	30.7	38.4
4	인도네시아	22.9	26.8	24.3
5	영국	10.6	14.5	18.2
6	한국	6.8	11.7	12.6
전 체		173.9	212.1	250.2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한류 확대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커져 매년 화장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미국 브랜드 암웨이(Amway)는 페이셜 케어 화장품 광고에 한국배우 윤은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화장품기업도 한류스타를 마케팅에 활용
- 한국산 BB크림이 태국에서 크게 성공하자 태국 현지기업, 서양기업들도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6)	품목명	보안기기(HS : 830140)

○ 시장동향

- 태국은 2011년 기준 보안기기 수입이 32백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23.3% 증가하였음
- 범죄 증가와 보안에 대한 의식 증가 및 콘도미니엄, 일반주택 등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 존재로 보안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 CCTV, DVR, 자동문, 알람시스템, 스마트카드, 디지털 도어락 등이 대표적인 제품들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태국이 보안기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2011년 기준 중국의 대 태국 보안기기 수출은 1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음
- 보안기기의 대 태국 주요 수출국은 일본, 대만, 한국, 독일 등이 있음
-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태국 내 생산업체가 없으며 모두 수입에 의존
- 시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도어락 브랜드는 독일 Yale 브랜드와 삼성이 있음

【주요 수입국 보안기기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중국	12.9	17.6	19.0
2	일본	2.7	2.9	6.1
3	대만	1.4	1.6	1.9
4	독일	1.5	1.2	1.2
5	한국	0.5	0.6	0.8
6	미국	0.7	0.9	0.7
전 체		22.3	26.0	32.0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한국산 제품은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좋아 태국시장에서 환영받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은 우수한 기술과 디자인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 태국은 잦은 범죄 및 테러 발생으로 다수의 건물과 가정에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임

7)	품목명	LED조명(HS : 853120)

○ 시장동향

- 태국은 2011년 기준 LED조명기기 수입이 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9% 증가
- LED제품 중 시장규모가 증가하는 부문은 LED사인, 디스플레이, 조명 등
- LED제품이 태국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활용범위가 넓기 때문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태국이 LED조명기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으로서 2011년 기준 중국의 대 태국 LED조명기기 수출은 1.8억 달러로 태국 전체 수입의 84.6%나 차지하고 있음
- LED조명기기의 대 태국 주요 수출국은 필리핀,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있으며 한국은 6위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 LED조명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중국	105.0	151.1	181.1
2	필리핀	2.9	5.8	8.9
3	일본	9.6	12.0	5.8
4	대만	2.5	5.3	4.9
5	홍콩	5.0	8.5	4.4
8	한국	1.3	1.7	1.6
전 체		143.0	196.4	213.9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태국에서 LED제품에 대한 수요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경우 LED TV등 주로 전자제품을 위주로 진출해 있음
- LED 조명의 경우 옥외광고, 쇼핑몰 등 다양한 활용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큰 수요 발생 전망

8)	품목명	자동차부품(HS : 870829)

○ 시장동향

- 태국은 2011년 기준 자동차부품 수입이 5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7.1% 감소
- 2011년 자동차 부품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하반기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자동차 생산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임
- 금년 태국 자동차 시장은 홍수 피해를 이후 사상 최대인 2백만 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태국이 자동차부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으로서 2011년 기준 중국의 대 태국 자동차부품 수출은 2.8억 달러로 태국 전체 수입의 55.6%나 차지하고 있음
- 기타 자동차 부품의 대 태국 주요 수출국은 한국,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등임
- 태국에는 도요다, 혼다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모두 진출하여 있기 때문에 일본계 자동차 부품기업들도 다수 존재함
-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일본계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계 GM, 포드 등에 판매됨

【주요 수입국 자동차부품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일본	147.7	221.8	281.1
2	한국	32.1	106.5	81.8
3	독일	14.5	24.3	28.7
4	중국	8.9	15.1	19.4
5	말레이시아	9.6	18.3	16.5
6	싱가포르	22.5	96.5	13.8
전 체		268.8	544.2	505.2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태국 자동차 산업은 작년 홍수 피해를 극복하고 금년 사상최대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수요도 증가하여 한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9)	품목명	의약품(HS : 300390)

○ 시장동향

- 태국은 2011년 기준 의약품 수입이 28.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9% 감소
- 태국은 지난 수년 동안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99년 전체 의료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이 32%에서 2008년 46%로 증가하였음
- 태국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의약품은 배탈 치료제, 진통제, 고혈압 치료제 등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수입 의약품은 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등의 제품들이며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제가 많음
- 태국 현지의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주로 특허 유효기간이 지난 복제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약품 제조업체는 정부기업인 Government Pharmaceutical Office(GPO)임
- 다수의 소비자들은 수입산 의약품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보다 우수하고 효과가 높다고 믿고 있음

【주요 수입국 의약품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인도	3.7	4.3	6.0
2	중국	3.1	3.8	4.8
3	독일	1.8	1.9	2.5
4	터키	0.7	0.9	2.1
5	한국	2.3	1.9	2.0
6	스페인	0.1	1.1	1.7
전 체		33.1	32.4	28.2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태국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고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은 일부 의약품 분야에 R&D를 통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태국 진출이 유력하다고 판단

10)	품목명	의료기기(HS : 901890)

○ 시장동향

- 태국은 2011년 기준 의료기기 수입이 1.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30.9% 증가
- 태국에서 최근 성장률이 높은 분야는 성형수술 분야로서 연간 10%의 성장을 보임
- 태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부위는 코(59.2%), 쌍꺼풀(46.8%), 입(10.1%), 턱(2.3%), 가슴확대(1.7%) 등임
- 이처럼 성형수술의 활성화로 성형수술에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재 태국에는 다수의 성형수술 전문 클리닉이 등장하고 있으며 관련 의료기기들은 주로 미국과 EU에서 수입하고 있음
- 한류인기와 더불어 한국의 성형기술은 태국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식 성형수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주요 수입국 의료기기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미국	39.3	46.4	58.5
2	독일	21.4	24.0	29.0
3	일본	14.3	17.7	24.1
4	중국	6.8	4.8	6.9
5	한국	3.6	4.5	6.7
6	스웨덴	0.6	1.1	4.8
전 체		117.5	132.7	173.8

* 자료원 : Thailand Trading Report

○ 선정사유

- 한국의 성형기술은 태국에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한류스타들의 외모가 많은 경우 성형수술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음
- 태국은 아직까지 의료기기의 제조 기술이 낮기 때문에 성형수술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수입에 의존함
-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성형수술에 한국산 의료기기의 수출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영양보조식품, 문구, 화장품, 보안기기 등의 제품들은 KOTRA에서 개최하는 무역사절단에 참여하여 현지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광주광역시 동남아 무역사절단('12년 10월 10일)
* 경북동남아 종합 무역사절단('12년 11월 30일)

○ 자동차 부품 국내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전시회, 수출상담회에 참관하는 태국 바이어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개최 10대 품목 연관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 오토모티브위크 (KINTEX, 3월): 자동차부품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EXCO, 5월): 보안장비
* LED EXPO (KINTEX, 6월) : LED 제품
*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포럼(COEX, 6월): 의료기기
* FTA Business Plaza (COEX, 10월): 종합품목
* KOAA SHOW (KINTEX, 11월): 자동차부품

○ 태국 현지 전시회: 완구

- Family & Child Festival ('12년 10월 6일~14일)
- Bangkok International Gift Fair ('12년 10월 16일~21일)
- Kids of the World 2012 ('12년 10월 25일~28일)
- Thailand Baby and Kids Best Buy 2013 ('13년 1월 31일~2월 13일)

○ 태국 현지 전시회: 영양보조식품

- Thailand Health and Beauty Show 2012 ('12년 11월 7일~11일)
- Furniture, Fashion, Food Festival ('12년 10월 6일~14일)
- Health Cuisine and Beauty Festival ('12년 11월 3일~11일)

○ 태국 현지 전시회: 화장품
- In-Cosmetics 2012 ('12년 11월 6일~8일)
- Thailand Health and Beauty Show ('12년 11월 7일~11일)

○ 태국 현지 전시회: 의료기기
- Thailand Medical Hub Expo
('12년 8월 30일~9월 2일 개최 완료, 내년 일정 미정)

○ 태국 현지 전시회: 보안기기
- Baan Lae Suan Fair ('12년 11월 3일~11일)
- Furniture, Fashion, Food Festival ('12년 10월 6일~14일)

○ 태국 현지 전시회: 자동차부품
Thailand Auto Parts & Accessories ('13년 4월 예정)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태국은 한류의 확산으로 다양한 한국산 제품의 진출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음

○ 이러한 한류를 잘 활용하여 고급브랜드 전략, 한류스타 활용한 홍보 전략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태국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IT제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되고 있음

○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트렌드를 활용한 시장진출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 있음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각 품목별로 시장진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철저하게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일례로 성형수술용 의료기기의 경우 실제 의료기기가 어떻게 수술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음

❑ 진출시 유의사항

○ 한국과 태국은 2010년부터 한-아세안 FTA의 적용을 받아서 다수의 품목에 관세인하를 적용받게 되면서 연도별 관세 인하 스케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품은 태국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태국 식약청(FDA)의 승인을 얻어야 함

○ LED조명의 경우 역시 태국 산업표준원(TISI)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에야 태국시장에 판매가 가능함

6 말레이시아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2012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은 4-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내수관련 산업은 견실한 내수에 힘입어 연중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특히 건설업의 경우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및 특별지원 패키지 등의 실행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수출 제조업 및 수출관련 서비스업은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외부수요 약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최근 3년간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7.2%	5.1%	4.0%

* 자료원 : EIU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 동향

- 2011년 말레이시아 수출액은 2,272억 달러, 수입액은 1,87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입액 모두 2009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수출입 동향】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액(백만 달러)	157,339	198,749	227,192
수입액(백만 달러)	123,832	164,736	187,828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2011년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액은 62억 7,500만 달러로 200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2011년 대비 8% 이상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동향】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上
수출액(백만 달러)	4,325	6,115	6,275	3,445

* 자료원 : 무역협회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경상수지 흑자로 링깃은 달러에 비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	2011년	2012년
공공부채(GDP 대비 %)	51.2	51.8	55.2
재정적자(GDP 대비 %)	5.4	4.8	5.2
환율(링깃:달러)	3.08	3.18	2.97
소비자물가상승률(%)	2.1	3.0	2.7
경상수지(백만 달러)	27,291	33,213	31,410

* 자료원 : EIU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2009년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2%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을 극복함
- 2011년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4~5%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문**

- 링깃 對달러 환율이 2008년 3.46, 2009년 3.42를 기록하며 경제위기의 여파로 링깃 약세를 시현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링깃이 달러화 대비 강세로 돌아섰음
- 하지만 2012년 2분기 중에는 글로벌 경기부진, 유럽 국가채무위기 지속 등에 따른 신흥국 투자자금 회수우려에 따라 달러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대비 약세를 시현
- 한편 2012년 3분기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완화정책에 따라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달러화 대비 강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 10대 품목別 수입시장 통계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09		2010		2011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화장품 (330499)	177.3	-4.2	214.2	20.8	242.8	13.3	10.7	99.3	19.8	84.4	11.0	-7.3
2	식료품 (210690)	290.2	7.3	417.3	43.8	511.0	22.5	1.9	12.6	7.9	323.7	3.0	-74.0
3	자동차부품 (870899)	257.7	-9.7	352.1	36.6	359.0	2.0	4.1	-9.3	6.5	59.1	27.0	59.1
4	LED (854140)	295.9	-16.7	500.6	69.2	686.9	37.2	5.5	187.3	8.0	45.6	14.0	353.2
5	스틸 플랜지 (730721)	28.3	-8.4	19.8	-30.1	56.2	183.7	3.9	-75.0	5.2	33.0	3.0	1.7
6	의료기기 (901890)	230.4	4.7	276.0	19.8	256.7	-7.0	3.4	6.6	5.5	60.9	5.0	46.5
7	의약품 (300490)	568.0	11.1	555.0	-2.3	692.4	24.8	3.9	29.8	7.2	85.5	2.0	25.0
8	인쇄회로기판 (853400)	1675.9	-23.3	1991.6	18.8	2029.0	1.9	198.1	6.2	185.6	-6.3	86.0	-1.8
9	자동차 배터리 (850710)	57.1	69.6	77.3	35.3	93.1	20.4	9.7	66.4	10.3	6.4	8.0	-26.5
10	반도체 장비 (848620)	80.2	810.8	222.7	177.8	231.3	3.9	25.8	883.1	27.5	6.7	8	-71.0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무역협회

❑ 10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화장품(HS : 330499)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2억 4,28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3% 성장
- 對韓수입규모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1,980만 달러로 전년대비 84.4% 성장
- 수요특징 : 소득수준 향상과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으며, 마스크팩, 기능성 화장품 위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고급화장품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수입품에 의존하고 중저가 제품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수입
- 자국브랜드도 있으며 자국브랜드 제품은 주로 중급 제품 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특정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3%를 넘지 않을 만큼 경쟁이 치열함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일본	19.6	31.7	38.6
2	미국	33.5	41.8	31.1
3	태국	22.7	20.4	25.0
4	프랑스	21.4	21.5	23.2
5	한국	5.4	10.7	19.8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소득증가 및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며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2)	품목명	식료품(HS : 210690)

ㅇ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5억 1,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5% 성장
- 對韓수입규모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79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3.7% 성장
- 수요특징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현지 대형 유통업체는 해외에서 식품류를 직접 수입하지는 않으며 식품수입을 하는 수입업체에서 식품류를 납품받음

ㅇ 경쟁 및 수입동향

- 아시아 지역으로부터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구미지역으로부터는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한국 식품으로는 김치, 한국 쌀, 유자차 같은 차류, 알로에 베라 주스, 바나나 우유, 김 등이 있음. 간장과 같은 소스류에 대한 소비는 미약함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 식료품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싱가포르	46.4	108.2	152.5
2	미국	56.3	70.4	73.2
3	네덜란드	35.5	54.8	53.1
4	인도네시아	15.9	20.0	38.3
5	중국	12.6	20.1	31.5
14	한국	1.7	1.9	7.9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ㅇ 선정사유

- 한류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3)	품목명	자동차 부품(HS : 870899)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3억 5,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 성장
- 對韓수입규모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650만 달러로 전년대비 59.1% 성장
- 수요특징 : 자국산 완성차 업체가 2개 있으며 한국자동차가 수입되고 있어 부품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말레이시아가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일본, 태국 등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이 많고 저가제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아지고 있음
- 구미지역에서는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아 2011년 기준 25.1%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 자동차 부품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독일	64.8	44.6	90.2
2	일본	42.9	108.7	86.9
3	태국	90.5	122.3	71.1
4	중국	15.9	21.4	58.7
5	미국	3.4	6.0	8.2
8	한국	4.5	4.1	6.5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2012년 5월 개최된 자동차 부품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현지 완성차 업체 2개사는 한국의 금형, 지그, 다이 등 자동차에 직접 들어가는 부품보다 자동차 부품이나 차체 제조에 쓰이는 부품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였음

4)	품목명	LED(HS : 854140)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6억 8,690만 달러로 전년대비 37.2% 증가
- 對韓수입규모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5.6% 증가
- 수요특징 : 말레이시아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절감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예상됨.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책적으로 LED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필립스 등 세계 유수 LED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 있어 이들 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기준 독일,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63% 이상을 차지
- 2011년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1% 수준이나 전년대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5% 이상 늘어났음

【주요 수입국 LED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독일	174.8	236.8	228.9
2	미국	14.7	102.2	119.7
3	일본	16.3	28.9	87.1
4	싱가포르	10.6	21.1	78.9
5	중국	32.8	35.8	70.7
9	한국	1.9	5.5	8.0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백열전구의 제조·판매·수입을 정지 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LED 수입확대로 이어질 전망임
- 현지 시장에서 일본, 한국 LED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평판이 좋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음

5)	품목명	스틸 플랜지(HS : 730721)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5,62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3.7% 성장
- 對韓수입규모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520만 달러로 전년대비 33.0% 성장
- 수요특징 : 말레이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팜오일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가스, 원유, 오일 등을 보내는데 필요한 파이프, 플랜지 등의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상존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주요 수입대상국은 크게 아시아지역 국가와 유럽지역 국가로 나뉨
- 아시아지역 국가로서는 태국, 한국, 중국 등에서 많이 수입하고 유럽지역 국가로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음
- 현지 바이어들 면담에 따르면 한국 플랜지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1년 기준 전체 수입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 스틸 플랜지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남아공	0.0	0.6	21.5
2	태국	1.2	2.6	11.1
3	한국	15.7	3.9	5.2
4	중국	3.6	4.4	4.4
5	스페인	0.0	0.1	3.5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현지 수요가 많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음

6)	품목명	의료기기(HS : 901890)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2억 5,670만 달러로 전년대비 7.0%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19.8%의 높은 성장률 기록
- 對韓수입규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550만 달러로 전년대비 60.9% 증가
- 수요특징 : 의료장비 및 의료 소프트웨어는 현지 생산기업이 많지 않아 수입 의존도가 큼

○ 경쟁 및 수입동향

- 대부분의 수입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의료장비 선진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리적인 이유로 싱가포르에서도 많은 수입이 진행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품은 GE, 지멘스, 필립스 등 미국과 유럽의 제품임
- 현지에서 한국 의료장비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중국제품의 경우 현지시장에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일수록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우려할 필요가 없음

【주요 수입국 의료기기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미국	58.9	64.7	61.6
2	싱가포르	40.1	57.0	46.2
3	독일	37.1	47.8	39.5
4	홍콩	14.1	11.2	15.6
5	일본	14.4	18.8	13.9
11	한국	3.2	3.4	5.5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한국제품의 현지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제품 인지도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對말레이시아 수출 확대가능성이 높음

7)	품목명	의약품(HS : 300490)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6억 9,24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8% 증가
- 對韓수입규모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720만 달러로 전년대비 85.5% 증가
- 수요특징 : 자국 의약품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의약품 산업이 발전하지 않아 수입수요가 큼. 한국으로부터는 항암제 등 고급 의약품, 비타민과 같은 건강 보조의약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지 국공립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은 말레이시아 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역량 있는 중간 수입유통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기준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5대 수입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50% 이상을 차지
- 2011년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 수준이나 전년대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5.5% 이상 늘어났음

【주요 수입국 의약품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호주	80.4	83.1	98.7
2	프랑스	57.6	55.3	72.4
3	독일	49.2	48.2	71.8
4	영국	43.1	35.6	57.8
5	벨기에	48.1	39.7	49.8
18	한국	3.0	3.9	7.2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말레이시아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이 크지 않아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며 현지 의약품 업체들의 한국제품에 대해 관심이 큼

8)	품목명	인쇄회로기판(HS : 853400)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20억 2,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9% 성장
- 對韓수입규모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1억 8,560만 달러로 전년대비 6.3% 감소
- 수요특징 : 전기전자 산업은 말레이시아 제1의 산업으로, 전기전자 산업의 기초가 되는 PCB에 대한 수요는 상존.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한 만큼 자국 PCB 업체들도 발달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

○ 경쟁 및 수입동향

- 대부분의 수입이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이 주요 수입국임
- 수입액 기준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11년 기준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매우 높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1년 기준 전체 수입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수입 점유율 9.9%와 비슷한 수준임

【주요 수입국 인쇄회로기판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중국	271.7	310.3	397.0
2	대만	222.6	287.8	389.2
3	홍콩	173.0	251.3	229.4
4	일본	195.2	278.3	228.2
5	한국	186.6	198.1	185.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3년 평균 2억 달러 가까이(1억 9천만 달러)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점유율도 최근 3 년 평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9)	품목명	자동차용 배터리(HS : 850710)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9,31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4% 증가
- 對韓수입규모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1,030만 달러로 전년대비 6.4% 증가
- 수요특징 : 말레이시아에서도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가운데 인근 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음. 현지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은 가격측면 이외에는 경쟁력이 없어 선호하지 않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기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중국 등 5대 수입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900% 이상을 차지
- 2011년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1.1%를 차지하고 있음
- 저가 중국산을 제외하고는 크게 품질의 차이가 없어 현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임

【주요 수입국 연산축전지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필리핀	16.6	22.1	26.0
2	인도네시아	15.8	22.4	25.0
3	태국	5.0	8.8	14.0
4	한국	5.8	9.7	10.3
5	중국	4.5	7.7	8.9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좋고 매년 전체수입수요의 10% 이상을 한국제품이 점유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현지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한국산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수입 유통상도 존재하고 있음

10)	품목명	반도체 장비(HS : 848620)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수입시장규모는 2억 3,130만 달러로 전년대비 3.9% 성장
- 對韓수입규모 : 2011년 기준 대한수입규모는 2,750만 달러로 전년대비 6.7% 성장
- 수요특징 : 말레이시아 반도체 장비 수입은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페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단지가 발달해 있어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 및 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경쟁이 치열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이 2011년 28.7%를 차지하였음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10년 23.7%, 2011년 22.2%로 큰 변화 없이 20%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비중도 2010년 11.6%, 2011년 11.9%로 큰 변화 없이 10%대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1.9%를 차지하고 있음

【반도체 장비 말레이시아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미국	2.4	47.8	66.3
2	일본	4.7	52.7	51.3
3	한국	2.6	25.8	27.5
4	독일	56.4	47.9	20.5
5	네덜란드	0.6	0.7	17.7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3년간 전체 수입의 1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과 함께 3대 수입 대상국임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제품

- 연 10회 정도 진행되는 무역사절단에 참가하거나 연중 시행이 가능한 세일즈 출장지원을 통해 적정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음
- KOTRA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해 바이어 발굴 및 미팅이 가능
- 말레이시아 식품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 할랄 인증 및 현지 유통업체 납품 관련해서는 10월 하순에 서울에서 실시 예정인 할랄 시장 설명회 및 상담회 를 통해 수출기회를 발굴할 수 있음

  * 할랄 시장 설명회 및 상담회('12년 10월 예정)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 10월 하순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지역 그린파트너링 상담회를 통해 적정 구매처 및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음

  * 동남아 그린파트너링 상담회('12년 10월 29일~10월 31일)

○ 자동차 부품 및 플랜트 부자재 관련 제품

- 현지 완성차 업체나 플랜트 발주업체에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는 말레이계 기업 발굴이 필요한 바 지사화 사업을 통해 적정 기업 발굴을 추진할 수 있음

- 관련 사업 안내

  * 동남아 중소형플랜트기자재 수주사절단('12년 11월 8일, KOTRA 및 한국 플랜트산업협회 공동주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기계 전시회('13년 5월 예정)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한류와 연계된 소비재 품목(화장품, 식품 등)의 경우 대형유통망 등 최종 수요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수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현지에서 대형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는 수입유통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플랜트 부자재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AS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화교 수입 유통상을 발굴하면 가능하나, 페트로나스, 프로톤 등 현지 국영 혹은 정부 지분이 있는 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이계 기업을 에이전트로 활용해야 함

○ 말레이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로 상대적으로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많은 품목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 이에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와의 경쟁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소비재 제품은 한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소비재 제품의 경우 식품, 화장품 등 한류 관련된 상품이 유망함. 하지만 아직 일본상품에 비해서는 시장성이 약하고 대부분 대체재가 있는 제품인 관계로 제품이미지에 더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화장품 같은 제품은 직수출도 좋지만 말레이시아 대형유통업체의 요청에 따른 OEM 방식의 현지진출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기능성 직물의 경우 인테리어 부자재 관련된 품목이 유망한데 다품목 소량오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 산업관련 제품은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 선정이 필수적

- 국영 석유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말레이계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필수적인바 적정 자격과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플랜트 부자재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이 현지 시장에 잘 알려져 있으나 가격대가 현지 바이어들이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유럽산 제품과 차별이 되기 어렵다고 밝힘. 이에 적정 가격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지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품목을 공략해야

- 말레이시아 완성차의 부품국산화율은 80%가 넘어가고 있음. 이에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은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조달을 할 수 있음

- 이에 현지 기업이 경쟁력이 없거나 생산하기 힘든 제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자동차 부품의 경우 자동차에 직접 들어가는 부품은 많은 부분이 현지 조달이 가능하나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금형, 지그, 캐스팅 등은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현지기업보다 높으며 이 같은 제품에 대해 현지 완성차 업체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진출시 유의사항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적용되는 관계로 관세 장벽이 높지는 않음

○ 하지만 자동차, 중장비 기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Approved Permit (수입허가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이 같은 품목은 Approved Permit 보유하고 있는 수입상을 찾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부미푸트라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어 이것이 일종의 현지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부미푸트라의 뜻은 '땅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계 국민을 뜻하는 말임
- 현지 국영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거나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말레이계 기업을 에이전트로 선임하게 하거나 말레이계 기업을 원청업체로 지정하는 관행이 있음

- 이에 외국기업은 적정자격을 갖춘 말레이계 업체를 에이전트로 발굴하고 이 업체를 통해서만 납품을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현지 수출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지 시장 협소 및 가족단위 중소 무역업체가 많아 1회 오더물량이 소규모이나, 일반적으로 일단 구매선을 결정하면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음

- 계약이 성사되어 제품을 선적할 때에는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After-Service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긴요함

- 거래 관련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를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함. 향후 문제 발생 시에도 주고받은 문서는 문제해결의 중요 실마리가 될 수 있음. 클레임을 제기하는 레터를 접수했다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대응을 해야 함. 서면 회신이 없을 경우 바이어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음

7 미얀마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미얀마의 2011년 GDP는 452억 달러 추정되며, 2012년에는 전년대비 5%가 증가한 49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 수년간 4%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미얀마 GDP 현황 및 전망】

구분	2009	2010	2011	2012e	2013e
NominalGDP(US$백만)	28,406	34,635	45,209	49,079	55,875
Nominal GDP(Kt십억)	29,969	33,596	36,845	40,244	45,258
Real GDP Growth (%)	4.3	4.5	4.8	5.0	5.3

*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 2012.7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 동향

- 미얀마의 2011~2012 회계연도 수출은 91억 3,5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90억 3,5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

【미얀마 수출입 동향】

(단위: US$백만)

구분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수출	6,779.10	7,586.90	8,861.00	9,135.60
수입	4,543.30	4,181.40	6,412.70	9,035.10
무역수지	2,235.80	3,405.50	2,448.30	100.50

* 자료원: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주)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임.

- 우리나라 5월까지 대 미얀마 수출은 민간 정부 구성이후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정부 발주 사업 감소 또는 지연되어 우리나라 주력수출 품목인 산업기계, 철강제품, 직물, 석유화학제품의 대 미얀마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됨
- 한편, 5월까지의 대 미얀마 수입은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섬유제품, 신변잡화류 등의 대 한국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미얀마산 제품들의 저렴한 가격, 안정적인 품질로 인하여 대 한국 수출 지속 증가 예상됨

【한국의 대 미얀마 수출입 총괄】

(단위: US$백만)

구분	2009	2010	2011	2012(1~5월)
수 출	406.2	478.8	666.9	220.2
수입	78.4	159.9	298.6	113.2
무역수지	327.8	318.9	368.3	107

* 자료원: KOTIS

ㅇ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2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시장 환율제 도입하였으며, 동 조치 이후 약 3개월 만에 짜트화 가치가 약 6.5% 하락(4.2일 812짯 → 8.14일 865짯)
- 미얀마 정부가 2012년 3월 15일부로 개인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시중의 달러화가 대거 해외로 송출된 것도 짜트화 가치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됨

【미얀마 경제관련 주요 지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환율(Kt:US$)	1,055	970	815	820	810
소비자물가(%)	2.2	9.4	0.7	6.7	8.4
대외부채(US$ m)	8,186	6,352	5,804	5,449	5,342

*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 2012.7

❑ 미얀마 신정부(민간정부) 출범이후 경제현황

○ 미얀마 신정부의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지속 확대 예상

- 49년간의 군부지배를 종식하고, 지난 2011년 민간정부로서 새로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정치뿐만 아니라 수출입 정책 완화, 외국인투자 확대, 금융시장 개방 등의 개혁적인 조치를 잇달아 실시
- 해외로부터의 적극적인 차관도입을 통해 그동안 뒤쳐졌던 제조업, 의약품, 철강, 시멘트 생산 등 미얀마의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외국인투자법 개정(8월)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소유 기업의 민영화 추진
-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

  *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2, 3차 산업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정책 추진
  * 2011-2012 회계연도 중 법안 개정, 신규 법안 발표, 외교관계 개선, 대외거래 증가 노력
  * 2012-2013 회계연도 GDP 목표는 7.7%이며, 이를 위해 2012년 4월 1일부터 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환율을 공식 환율제도로서 전환

○ 對미얀마 외국인 투자, 작년 9월에 비해 12% 급증

- 미얀마 신정부의 개혁 및 개방 조치와 서방국가의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가 맞물려 미얀마 시장진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

  * 지난 2012년 7월 미국의 대 미얀마 신규 투자 일반허가 및 금융 서비스 완화 조치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 미얀마 외국인투자는 누적 승인 금액 기준, 406억 9천만 달러 기록(2012년 4월말 기준)

  * 국가별로는 1위 중국 139억 달러, 2위 태국 96억 7천만 달러, 3위 홍콩 63억 1천만 달러, 4위 한국 29억 4천만 달러, 5위 영국 27억 6천만 달러를 기록
  * 최근 5년 동안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는 석유가스, 전력, 광업 부문에 집중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

(단위: US$백만)

국별	투자액	비중	산업별	투자액	비중
중국	13,949	34.27%	전력	18,874	46.37%
태국	9,568	23.51%	석유와 가스	14,063	34.55%
홍콩	6,308	15.50%	광업	2,814	6.92%
한국	2,941	7.23%	제조업	1,761	4.33%
영국	2,760	6.78%	호텔/관광업	1,065	2.62%
싱가포르	1,804	4.43%	부동산	1,056	2.60%
말레이시아	1027	2.52%	축산/어업	324	0.80%
프랑스	469	1.15%	교통/통신	314	0.77%
미국	244	0.60%	공업단지건설	193	0.47%
인도네시아	241	0.59%	농 업	173	0.43%
네덜란드	239	0.59%	건설	38	0.09%
기타	1,149	2.83%	기타 서비스	24	0.06%
총계	40,699	100.00%	총 계	40,699	100.00%

* 자료원: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주) 투자허가 누적 승인기준 (2011.4월)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선정요인

❑ 10대 품목別 수입시장 통계

○ 미얀마의 경우, 연도별 수출입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으나, 품목별 상세 수출입 현황은 1993년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미국, EU 등 서방국가의 미얀마 경제제재(Sanction) 조치로 인해 미얀마로의 정상적인 매매대금 송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 미얀마 수출품의 대부분이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수입시장 통계 파악이 불가능함

○ 따라서, 미얀마 10대 수출유망품목은 최근 산업동향, 바이어 인터뷰, 우리 기업의 수출수요 등을 종합하여 양곤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 10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자동차 부품(HS : 870899, 840991, 870830)

○ 시장동향

- 미얀마의 자동차 부품은 85%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 가능품목은 고무관련 제품정도임
- 자동차 생산의 총괄은 미얀마 산업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부 산하 기관인 Myanma Automobile & Diesel Engine Industries에서 총괄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미얀마 정부에서 중고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Brand New 및 Recondition 상태만 수입이 가능함
- 한국 자동차 부품 전문 수입업체는 총 20개사 정도 되며, 대부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을 통해 수입되고 있음
- 미얀마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90% 이상은 일본 자동차, 이에 미얀마 자동차 부품시장도 일본제품이 70%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중국,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 선정사유

- 미얀마 상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2013회계연도 1~7월까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액은 400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품목 중 1위로 등록됨
- 자동차 수입대수는 약 6만대를 수입하였으며,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분석됨
- 중고차 수입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관련 자동차부품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국의 대 미얀마 금융서비스 완화조치로 달러화 송금이 가능하게 될 경우,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2)	품목명	휴대폰(HS : 852520)

○ 시장동향

- 미얀마는 인구에 비해 모바일 보급대수가 떨어지나, 작년 4월부터 출범한 민간정부는 미얀마 모바일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중국, 노르웨이 회사들과 협의하고 있음
- 미얀마 통신부(MPT)는 최근에 GSM 방식을 기본 통신방식으로 정해 국내 기업인 Elite Tech, Asia World, Central Marketing 및 중국기업인 ZTE, HUAWEI 사과 협력을 하여 통신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음
- 미얀마 우편통신부는 국내 통신발전을 위해 5년 계획으로 GSM 3000만 대를 보급할 것이며 1차적으로 2011년 7월부터 5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400만 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힘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부터 휴대폰 공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휴대폰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임
- 미얀마 통신부는 5월 2일 기준, GSM, WCDMA 4만 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안으로 GSM칩 50만 대, WCDMA 칩 20만 대 등 총 70만 대를 보급할 것으로 발표
- Backbone Fiber Transmission(국가 백본 광망) 설치는 총 14,338Km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0,531km 설치 완공되었고, 5년 안으로 남은 3,807Km 공사가 될 것으로 파악됨

○ 선정사유

- 미얀마 정부는 낮은 통신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 계획으로 3천만 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어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장비, 악세서리 등 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3)	품목명	건설 중장비(HS : 842952, 843149)

ㅇ 시장동향

- 미얀마는 1988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시장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군사정부 하에서 건설부문 또한 상당한 성장을 하였음
- 많은 건설 중장비 업체들이 생겨나서 중장비의 판매뿐만 아니라 대여,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유압굴삭기(Hydraulic Excavator), 트랙터, 컴팩터, 불도저, 다목적용 연결식 트럭(Atriculated Truck), 덤프트럭 등 많은 중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음

ㅇ 경쟁 및 수입동향

- 중장비 중 특히 수요가 높은 것은 캐터필러, 엑스커베이터, 불도저 등이며, 엑스커베이터의 경우 3년 전까지만 해도 캐터필러가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했었음
- 최근엔 코마츄(Komatsu)가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캐터필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음
- 미얀마에 들어온 중장비부품 브랜드들은 Daewoo, Hyundai, Samsung, Sumitomo, Caterpillar, Komatsu, Kobelco, Hitachi, Mitsubishi, Kato, Uchida, Cummins, Isuzu, Volvo, Euclid, TCM 등임

ㅇ 선정사유

- 최근 활발한 광업개발 수요로 인해 중장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민간정부 출범 이후 인프라 개선 강화 및 2013년 동남아시아게임 개최로 인한 인프라 건설로 관련 중장비 및 관련 부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4)	품목명	자동차용 배터리(HS : 850710)

ㅇ 시장동향

- 2012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정부가 일반 개인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중고 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
- 특히, 미얀마는 중고차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자동차용 배터리 수요가 높은 편
- 미얀마의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용 배터리를 인버터와 연결해 가정용 비상전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순수 자동차용 시장뿐만 아니라 비상전력용 배터리 시장규모도 큰 편임

ㅇ 경쟁 및 수입동향

- 미얀마의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업체는 2개사(Toyo, GP브랜드)가 있음
- 업계에 따르면 미얀마 국내 생산능력 부족으로 시장 소비량의 약 75%을 수입에 의존하며 전국적으로는 약 15개사가 수입 배터리를 취급하고, 이중 자동차용 배터리만을 전문적으로 수입·유통하는 회사는 약 5개사로 파악됨
- 현지 배터리 수입상에 따르면, 작년부터 MF 배터리의 수요가 50% 가량 증가하여 주요 도시인 양곤, 만달레이, 따웅지, 몽유와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미얀마에서 주요 판매되는 배터리 브랜드들은 GS, 3K, Panasonic, GF, Bosch, Atlas, Yuasa, Rocket, Yokohama, Yucon, Tiger, FB 등
- 배터리 수입업체에 따르면 미얀마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GS 브랜드가 약 40%, 3K가 30%, Atlas가 10%, 나머지 기타가 20%를 차지함

ㅇ 선정사유

- 가격에 민감한 현지의 시장 특성상 일반배터리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점차 MF배터리, 한국산 등 우수한 품질의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산이 태국산보다 10~15%가 비싸나 경쟁제품 대비 우수한 품질로 현지의 평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진출 확대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됨

5)	품목명	전력 케이블(1000볼트 이하)(HS : 854449)

○ 시장동향

- 미얀마는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신규 발전소 설립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대 30%에 이르는 전력 손실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배전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미얀마의 케이블 생산 업체는 총 6개(정부부문 1, 민간부문 5)로 생산할 수 있는 케이블 규격은 Single Core, PVC Insulated Wire, (Size 1 x 3029~7064), 300/500V, Twin Core, PVC Insulated (Size 2 x 3029~7044), Single Core, Size 1 x 1.5~16 SQMM) 450/750V, Single Core, PVC Sheathed Wire (Size,1 x 6 ~ 95), 600/1000V)
-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품질이 낮고 생산량도 적어 전체 산업용 케이블의 50%를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미얀마에서 소비되는 전선은 주로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 미얀마 케이블 시장에 주요 브랜드는 Wilson, Gaon, Heesung, Haesang, Central, Wonderful, Pirelli, Golden Lion, 555, Sigma, Ka-sa-la, Moe, Standard(Myanmar Cable), Universe Cable, Golden Pinion, Edison's, Southern, RR Kabel, Belden, PTGT 등임

○ 선정사유

- 전력 케이블은 주로 정부부문에서 입찰을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품질이 뛰어난 한국 제품에 대한 현지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
- 전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발전소 건립과 송배전망 개선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6)	품목명	철강제품(HS : 732690)

ㅇ 시장동향

- 미얀마는 철근 제조기반이 열악하며, 90% 이상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
- 미얀마의 철근은 먀웅다카(Myaung Dakar) 공단에서만 생산 가능
- 미얀마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은 Deformed Bar, Wire Rod 등만 생산할 수 있으며, Mild Steel Wire Rod은 아직 생산을 못 하고 있음
- 미얀마는 2005년 말 수도를 양곤에서 네피도로 이전함에 따라 네피도의 건설업이 활기를 띄고 있어 건축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 경쟁 및 수입동향

- 철근 수입/유통 업체의 경우, 약 30개사 정도 되며 그 중 철근(Deformed Bar, H-beam and C-Channel, Mild Steel Wire Rod)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는 약 15개사 정도 됨
- 미얀마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와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합금강 봉강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Mild Steel Wire Rod은 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되고 있음
- 철근 수입업체에 따르면, 국영기업 MEC(Myanmar Economic Cooperation) 제철소에서 생산된 제품은 정부 건설프로젝트에 주로 사용하며, 개인 제철소에서는 일반 건설 회사들에 공급을 하고 있음
- 미얀마 전국 철근의 수요는 월 20~25만 톤 정도 됨

ㅇ 선정사유

- 미얀마는 2013년 동남아게임(SEA Game)을 개최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설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장 등을 공사 중에 있음
- 양곤시의 경제 발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년 계획 마스터플랜을 일본, 싱가포르의 협조를 받아 수립 중에 있음
- 철근은 아파트, 주택, 발전소, 쇼핑몰, 축구경기장 및 모든 건물 건설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 10년 전부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7)	품목명	자동차용 윤활유(HS : 271019)

ㅇ 시장동향

- 2012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정부가 일반 개인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7월말 기준 4억 달러, 6만대 수입)
- 그동안 미얀마 윤활유 시장은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11년 이후 자동차, 중장비, 산업용 기계 수입 증가로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ㅇ 경쟁 및 수입동향

- 미얀마 윤활유는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UAE, 태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프랑스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수입상에 따르면, 미얀마에 Stallion, Catlex, ELF, Delo, Apoil, Solar, Nynas, PTT, Pertamina, SP, Gibson, City, Axcl, Agip, Nasa, Mobil-1, Total, IE, Bangchak, Sinopec, Cepsa 등의 30가지 넘은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PTT, Catlex, NASA, ELF, Stallion, Cepsa 브랜드가 인기 높음
- 최근에 GS Caltex 브랜드를 현지 Eternal사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져 전국에 유통하고 있으며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나 한국 브랜드에 대해 선호도가 높음
- 미얀마에 윤활유 메이져 수입/유통업체들은 Aung Pacific Trading사, Ye Yint, Tunn Star사, Aung Thein Tan사, Eternal사, Golden Hawks International사, Luck Choice사 등이 있음

ㅇ 선정사유

- 그동안 미얀마 윤활유시장은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개인의 자동차 수입 허가 이후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 인프라 확대로 중장비, 산업용 기계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윤활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8)	품목명	농약(HS : 380810)

ㅇ 시장동향

- 미얀마 농업인구는 2011년 총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 중 34%를 차지하고 있음
- 미얀마 역대 정부는 정권안보 차원에서 벼를 중심으로 한 식량생산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음
-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쌀을 포함한 주요 곡물은 충분히 생산되고 있으나 오랜 군사독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서방의 경제제제 등 요인으로 연관 산업이 낙후되어 농업생산성은 아직까지 극히 낮은 수준임

ㅇ 경쟁 및 수입동향

- 미얀마 내에 농약 생산기업은 없으며, 100% 수입에 의존함
- 농약 수입·유통사는 50여개사 되며 그 중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는 7개사 정도임
- 전국의 농약 수요량은 2002-2003 회계연도 2875톤에서 2011-2012년도 1만 1102톤으로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추세는 지속될 것임
- 농약 수입상에 따르면, 농약은 일반무역, 국경무역을 통해 들어오며 주요 수입국은 태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임
- 농약 수입업체들은 농약병에 미얀마어로 된 라벨을 붙여야 공급 가능하며 주로 만달레이(Upper Myanmar의 특별시), 양곤(Lower Myanmar의 특별시)에 지점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됨

ㅇ 선정사유

- 미얀마는 쌀을 포함해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출이 규제됐기 때문에 농약 시장이 크지 않지만 규제가 풀릴 경우 농산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농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근 기능성 농약의 필요성을 잘 아는 수입 도매상이 늘어남에 따라 품질 좋은 농약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9)	품목명	중고자동차(1300cc 이하)(HS : 870322)

ㅇ 시장동향

- 미얀마의 자동차 수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군부 정권 하에서는 국가가 독점으로 진행하였으나 2010년 1월부터 상용차에 한해 민간에 제한적으로 수입 허가를 내주었음
- 2012년 3월 15일부터 외화 계좌에 미화 만 달러 이상 보유한 개인의 자동차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6월 25일까지 약 4만9750대가 수입됐으며 향후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
- 회계연도 기준 2011-2012년 총 등록차량대수는 약 40만여 대이며, 이 중 승용차의 수는 전체차량수의 약 65%인 26만여 대임

ㅇ 경쟁 및 수입동향

- 대부분 Brand New와 Fully-Recondition 상태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며 수입은 주로 일본, 한국, 싱가포르,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 미얀마 운행 중인 차량의 80%는 일본 자동차이며, 나머지 20%는 한국, 중국, 유럽, 현지 생산차량임
- 미얀마에 운행 중인 한국(현대, 대우)차량 중에 인기 브랜드들은 Santafe, Espero, Sonata, Ciello, Tico 등이며, 유럽 쪽에서는 Mercedes, Volvo, Volkswangen 등임. 일본 차량 중에서는Toyota, Nissan, Hino, Honda, Fuso, Isuzu, Mitsubishi, Mazda 등임

ㅇ 선정사유

- 미얀마 자동차 수입 원활로 인해 승용차, 상용차 수입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일본산 중고차가 시장지배력과 원활한 부품 조달 등의 원인으로 미얀마 중고차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입 급증에 따른 일본산 부품조달 어려움 증가, 일본 내 판매가격 상승,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0)	품목명	식품류(음료)(HS : 220210)

ㅇ 시장동향

- 미얀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제제재 완화 및 미얀마의 대외개방 확대로 인해 미얀마 식품시장에 대한 주변국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음
- 특히 현지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인해 한류 및 일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 식품산업 시장은 연 GDP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현지화 강세로 인해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미얀마는 전반적으로 식품산업이 발달 되어 있지 않고 현지의 식품 제조 공장도 많지 않아 수출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통한 시장진출도 고려할 만함

ㅇ 경쟁 및 수입동향

- 생수, 음료 소비자들의 월 소득수준은 400달러 이상의 가구가 주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미얀마 내 생수, 음료(탄산, 주스, 커피, 우유) 및 주류(맥주)의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생수 생산 공장은 약 50개정도 있으며, 전국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는 약 110개 정도 됨
- 음료 생산 공장은 약 6개 정도 있으며 주요 음료 브랜드들은 Max, Max Plus, Star, VeVe, Shark, Fantasy, Lemon, Quench, Crusher, Star Cola 등이 있음

ㅇ 선정사유

- 미얀마의 물은 석회질을 함유하고 있어 생수 및 음료에 대한 소비가 높으며,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음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미얀마는 전반적으로 생산기술, 포장기계, 디자인 등의 부족으로 인해 최종 생산품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뛰어난 기술, 우수한 디자인 및 포장기술을 바탕으로 현지에 진출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미얀마의 경우, 50년간의 군부독재와 장기간의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인해 아직까진 제품별 특징에 맞는 마케팅 툴이 발달하지 않았음

○ 전시회의 경우도 전문전시회보다는 소규모의 다품종 중심의 전시회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제품에 맞는 적합한 전시회를 찾기 쉽지 않음

- 전시회는 대부분 전시회를 많이 치룬 경험이 있는 장치업체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음
- 장치업체에서는 시장상황 및 참가업체수가 많을 경우 업체 및 협회와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상공회의소, 미얀마 컴퓨터 협회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 특정 협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얀마의 전시회 개최 일정은 연간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부분 한 달 전 전시회 개최 공고가 뜸
- 또한, 한 가지 주제 보다는 통합적 주제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음(예: 양곤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전시회) 주재국 주요 전시회 주관 및 장치업체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전시회 장치 업체 리스트】

회사명	웹사이트
N.M.T Ltd.	www.nmtmyanmar.com
International Exhibition Management Services Company Limited (IEMS)	www.iemsmyanmar.com
Universal Link Service Co.Ltd.	www.universl-link.com.mm

○ 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 배터리, 윤활유 등의 자동차 관련 상품은 매년 개최되는 양곤 중고차량 박람회와 양곤 오토쇼 참가를 권장(연 1~2회 개최)

- 전시회는 참가업체 및 수요를 예상한 장치 업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시회 일자를 미리 공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시회 시기 예측이 어려움

○ 중장비, 자동차(신차), 건설기자재, 핸드폰, 전자제품 등은 11월초에 예정된 미얀마 일류상품전 참가를 권장 ('12년 11월 18일~11일, 전시총괄팀)
- 전시회 한 두 달 전에 주관사에서 업체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리 참가업체가 선정된 경우가 많음
- 참가 신청 시 전화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돈을 납부해야 함
- 전시회 기간 중 상품 전시와 더불어 바이어 상담, 한류행사 등이 병행 예정임

○ 미얀마는 제한된 기업정보로 인해 최적의 사업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해외출장지원서비스 또는 지사화 사업 등의 참여를 통해 검증된 바이어와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얀마는 아직까지 TV, 라디오, 대형광고판 등의 광고단가가 낮은 관계로 생활소비재 제품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임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그동안 미얀마는 낮은 국민소득과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로 인해 주로 중국, 태국 등 인접국의 저가 제품이 시장의 주를 이뤘으나,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개혁 및 개방 정책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달러화가 시장에 풍부해짐에 따라, 점차 저가 제품에서 중고가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미얀마 시장은 일본과 유럽산이 고가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저가시장은 중국, 태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이들과 차별화되는 제품 전략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형편임

○ 그러나, 미얀마 현지의 한류열풍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고급 또는 가격 대비 좋은 품질로 인식되고 있어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브랜드 지명도는 다소 낮지만, 일본, 유럽산에 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있는 경우, 한류이미지와 적극적인 마케팅이 더해질 경우 진출 성공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미얀마는 산업현황, 통계, 기업에 대한 공개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여타 국가 진출 시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 및 적합한 사업 파트너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미얀마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인해 제품 및 부품 조달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현지 바이어들은 원활한 부품 공급과 미얀마 내 A/S망 구축, 충분한 보증기간 여부가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미얀마 시장에서 일본제품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품 조달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원활하고 무엇보다 품질과 보증기간이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

❑ 진출시 유의사항

○ 미얀마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자동차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특별한 수입 규제정책은 없음

○ 하지만, 미얀마는 모든 수출입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의 경우 약 3주일 소요됨을 유의해야 함

○ 수입 시 관세 이외에 일종의 부가가치세인 상업세(Commercial Tax)가 부과됨

8 캄보디아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2009년에 0.1%의 성장률을 기록한 캄보디아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2010년에는 6.0%, 2011년에는 6.9% 성장하였고, 2012년 6.6%, 2013년 6.7%의 성장이 예상됨

【캄보디아 GDP 성장률】

연 도	2009	2010	2011e	2012f	2013f
성장률(%)	0.1	6.0	6.9	6.6	6.7

* 자료원 :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2012, vol.1

-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2000년부터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
- 2013년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6.7%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이는 주로 서비스 분야 및 일부 농업 분야,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민간부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대외 부문 역시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적자는 2010년 전체 GDP의 14.1%에서 2011년 순수출의 강세로 12.4%로 감소하였음
- 2012년 GDP 대비 무역 수지 적자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교역 대상국 별 수출입 통계】

(단위 : US$백만)

국 가		2008	2009	2010
수출	미 국	1,904.5	1,553.1	1903.4
	홍 콩	812.7	1,647.3	1384.8
	영 국	150.7	179.7	235.2
	독 일	133.5	108.8	112.3
	프랑스	33.0	41.9	57.3
	싱가포르	109.7	481.8	429.5
	네덜란드	147.0	145.1	235.5
	베트남	165.0	115.3	96.0
	중 국	12.4	16.3	64.9
	일 본	31.0	79.78	89.5
	한 국	7.1	9.3	24.5
	총 계	4,708.0	3,907.0	4,279.8
수입	싱가포르	293.5	208.8	155.5
	태 국	673.3	464.7	689.9
	홍 콩	568.7	224.2	552.6
	베트남	455.8	439.2	486.7
	중 국	902.2	881.4	1184.9
	대 만	353.5	341.7	476.5
	한 국	221.5	118.8	247.8
	일 본	110.3	209.1	156.5
	말 련	118.3	132.0	165.3
	미 국	212.8	90.6	129.8
	총 계	6,508.8	5,448.0	6,005.4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무역통계연보

- 2011년 한국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4억 5072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00.9% 증가한 8727만 달러를 기록해 3억 6345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교역량 급증추세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주종수출상품은 직물류, 중고자동차, 중고의류,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이며, 주요 수입상품은 의류, 천연고무, 상황버섯, 수산물 등임
- 캄보디아의 2011년 총 수출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4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10%증가한 6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 및 대외 원조 등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수입은 중국, 태국, 홍콩 등 인근 국가의 규모가 크며 한국은 2억 4780만 불 규모로 09년 대비 약 208%증가한 규모임
- 수출은 미국, 홍콩으로의 수출이 가장 규모가 크며 이중 대부분은 봉제의류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한·캄보디아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US$백만, %)

구 분		'07	'08	'09	'10	'11	'12
수 출	금액	281	294	273	333	451	287
	증가율	37.2	4.6	△7.2	21.8	35.4	37.9
수 입	금액	9	14	18	43	87	62
	증가율	62.5	62.1	26.6	138.7	100.9	79.3
무역수지		272	280	255	290	364	225

* 자료원 : 무역협회

【한·캄보디아 품목별 교역현황】

(단위: US$백만, %)

순위	수출('11년)			수입('11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161	23.0	의류	39	103.9
2	자동차	71	125.8	고무	27	145.5
3	기타섬유제품	53	21.3	해산물	10	6,375.9
4	담배	23	107.7	알루미늄	4	△17.2
5	의류	19	35.1	신발	3	156.6
총계		451	35.4	총계	87	100.9

순위	수출('12년 상반기)			수입('12년 상반기)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80	△2.5	의류	33	169.2
2	자동차	40	189	주류	7	-
3	기타섬유제품	32	40	고무	5	△64
4	알루미늄가공품	18	1,283	알루미늄	4	94.7
5	담배	15	213	게	4	415.6
총계		287	37.9	총계	87	79.3

* 자료원 : 무역협회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캄보디아 환율은 근 10년간 매우 안정적인 상태이며 2011년 달러당 4,039리엘에 거래되고 있음
- 캄보디아의 환율정책은 가격안정을 추구하고 있어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기도 함 (2011년 2억4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

【캄보디아 환율 추이 통계】

연 도	2009	2010	2011e	2012f	2013f
환 율 (Riel/US$)	4,169	4,053	4,039	4,100	4,100

* 자료원 :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2012, vol.1

- 현지 통화의 환율은 자율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지만, 실제 결제수단의 95%정도가 달러로 운영되는 등 달러라이제이션 정도가 높아, 환율변동은 1%내로 제한적임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08,09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중장비 및 건축 자재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2012년 상반기에도 건설 중장비 및 건축 자재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유럽 재정위기의 악화가 건설 경기를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부문

- 캄보디아 정부는 2009년 재정위기와 2011년 홍수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재정 확장 정책 및 복지지출에 변화를 취함
- 2009년 재정 확장 정책이 도입된 후로, 2010년과 2011년 재정 적자가 크게 감소함과 더불어 불필요한 경상지출 삭감이 시행되어 재정 건전화를 이룸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 10대 품목別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고 트럭 (870421)	59.56	59	52.70	33.2	8.69	-25.7	28.07	222.8	19.19	163.7
2	화장품 (330499)	2.95	28	4.98	68	0.442	10.2	0.914	106.7	0.535	64.1
3	금고 (830300)	0.34	-8	0.37	9	0.36	0.5	0.45	23.2	0.12	21.4
4	자동차배터리 (850700)	5.15	-27	8.93	173	3.324	-12.7	3.921	21.2	2.141	7.2
5	오토바이헬멧 (650610)	0.23	-29	0.29	127	0.0004	-58.4	0.0007	76.6	0.004	755.1
6	CCTV (852580)	1.08	-65	2.52	133	0.017	-75.2	0.022	28.4	0.042	450
7	정수기 (842121)	1.004	-21	3.03	202	0.176	141.6	0.269	52.9	0.092	-46
8	음료 (220210)	0.98	57	1.95	98	0.728	1027	4.936	577.7	7.235	459
9	동물 백신 (300230)	1.24	56	1.27	2.81	0.062	56.6	0.132	111.2	0.087	74.9
10	사무용품 (392610)	0.068	39%	0.079	17%	0.0002	198.6	0.003	1413	0.009	190.4

* 자료원 : The Customs Hous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무역협회

❑ 10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중고트럭(HS : 870421)

○ 시장동향

- 캄보디아 중고트럭 시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추세에 있음
- 2005년 1,460만 달러 규모에서 2008년 7,46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음
- 2009년 경제위기로 잠시 주품하며 2,490만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2011년 5,270만 달러 규모의 수입을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캄보디아 중고차 수입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국가들은 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며 이중 태국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임
- 2011년 기록을 보면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중고 트럭 수입의 42%를 차지하며, 한국은 37%를 차지하고 있음

【트럭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한국	6,486	60.1	6,178	30.7	7,717.5	44.6
2	중국	189.3	1.8	5,138.1	25.5	4,632.3	26.8
3	일본	1,013.5	9.4	171	0.8	2,307	13.3
4	미국	2,434.5	22.6	7,202.2	35.8	1,715.4	9.9
5	태국	158.5	1.5	749	3.7	518.1	3
6	대만	498.7	4.6	222	1.1	315	1.8
7	러시아	-	0	-	0	76.4	0.4
8	싱가포르	12.1	0.1	19.5	0.1	11.1	0.1
	기타	-	0	457.5	2.3	16.1	0.1
총 계		10,792.7	100	20,137.5	100	17,308.8	1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건설경기 호황으로 이를 위한 중고 트럭 수요 역시 증가가 예상됨
- 저소득 국가의 경우 5t 이하 트럭은 가족 규모 사업 및 상업 활동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데 캄보디아도 이러한 이유로 선호되고 있음
-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중고 트럭은 가격대비 품질이 좋아 바이어들의 선호도가 높음

2)	품목명	화장품(HS : 330499)

○ 시장동향

- 캄보디아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대부분의 화장품을 외국에서 수입함
- 유통 경로는 수입상이 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해 도·소매상에게 넘기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함
- 미흡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세관 운영으로 인해 국경을 통한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수입된 화장품은 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9% 상승함
- 태국이 현재 68%의 점유율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그 뒤를 있고 있음
- 2009년 국제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7년 150만 달러에서 2011년 500만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향후 전망도 밝은 편임

【기초 화장품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태국	1,518.3	66.19	1,853.9	62.83	3,404.3	68.32%
2	필리핀	481.0	20.97	523.1	17.73	487	9.77%
3	프랑스	36.1	1.62	64	2.27	290	5.87%
4	싱가포르	3.8	0.17	26.2	0.93	274.1	5.55%
5	베트남	53.5	2.42	50.5	1.84	89.4	1.86%
6	말레이시아	21.6	0.98	60.2	2.19	66.4	1.38%
7	한국	16.6	0.75	35.1	1.28	61.3	1.28%
8	인도	65.1	2.94	67.9	2.47	60.3	1.26%
9	독일	14.3	0.65	14.6	0.53	43.6	0.91%
10	인도네시아	6.4	0.29	53	1.93	27.6	0.57%
	기타	76.9	3.47	202.2	7.36	178.5	3.72%
총 계		2,293.7	100	2,950.6	101	4,982.6	1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캄보디아 생활 수준향상으로 인해 피부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 향후 중저가 화장품 수요 증가가 예상
- TV,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국 피부미인의 이미지가 퍼지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도 중소기업의 중저가 상품 수요가 창출되는 추세임

3)	품목명	금고(HS : 830300)

○ 시장동향

- 캄보디아에서도 중·상류층이 증가하고 보안의식이 퍼지면서 각종 CCTV, 디지털 도어록, 금고 등 안전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이 미약한 캄보디아는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족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국가별 금고 수입은 태국이 10만 달러로 1위, 모로코가 9만 달러로 2위,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각각 6만 달러, 5만 달러로 3, 4위를 기록
- 한국은 2009년 7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하였지만 2011년에는 순위에서 밀려남
- 그러나 한국산 제품이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을 우회하여 수입되어 시장에서는 실제로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음

【금고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태국	99.8	26.74	136,902	40.2	104,638	27.08
2	모로코	-	-	-	-	91,366	24.14
3	말레이시아	65.4	17.54	55,283	16.13	66,322	17.69
4	중국	31.7	8.5	78,122	22.05	55,377	14.71
5	베트남	3.7	0.99	17,113	5.02	13,167	3.5
6	인도네시아	53.4	14.32	13,249	3.55	12,668	3.39
7	홍콩	-	-	1,118	0.33	11,676	3.12
8	프랑스	18.1	4.89	28,301	8.25	10,972	2.93
9	한국	75	20.11	10,494	3.08	7,729	2.07
	기타	25.9	6.94	4,735	1.39	5,120	1.37
총 계		373	100	345.3	100	379	1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정용 금고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캄보디아 내 신규 기업 및 호텔의 증가도 금고의 수요증가 예상요인으로 꼽힘
- 캄보디아에는 특별한 인증제도 및 검증제도가 없음

4)	품목명	자동차 배터리(HS : 850700)

○ 시장동향

- 캄보디아 산업 부문이 열악하여 현재 자동차 배터리는 생산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차량용 배터리 시장의 모든 수요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세관에 따르면 2010년 5백만 달러 수입으로 2009년 7백만 달러에 비해 27% 감소하였지만 2011년에는 3백만 달러가 증가하였음
- 열악한 법적규제와 비효율적인 세관으로 인해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밀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수입 금액은 세관 기록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 태국이 각각 12%, 4%, 2%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은 2010년과 비교하여 약 700% 가까이 급증했으나 베트남, 한국, 태국은 각각 67%, 12%, 5% 감소하였음

【차량용 배터리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중국	1,755.4	24.86	859	16.65%	7,052.3	78.97%
2	베트남	2,459.3	34.82	3,386.3	65.63%	1,088.5	12.19%
3	한국	478.5	6.78	431.8	8.37%	361.4	4.27%
4	태국	294	4.16	197.8	3.83%	208.6	2.34%
5	싱가포르	468.4	6.63	238.8	4.63%	84.7	0.95%
6	홍콩	427.1	6.05	15.4	0.30%	46.2	0.52%
7	인도	1,136.7	16.10	-	0.00%	7.3	0.08%
8	일본	8.7	0.12	4.3	0.08%	3	0.03%
	기타	33.8	0.48	30.9	0.60%	58.6	0.66%
총 계		7,062.0	100%	5,160	100%	8,930.7	1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한류의 영향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산 배터리는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일본 제품에 비해 품질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의 시장점유율이 일본보다 더 높음
- 정부의 전기 기반 시설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거주민의 전력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캄보디아 주민들은 야간 조명, TV 등의 사용을 위해 대형차 배터리를 대신 사용하기도 함

5)	품목명	오토바이 헬멧(HS : 650610)

○ 시장동향

- 캄보디아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위주로 오토바이 구매가 확산
- 2009년 1월 1일 발효된 법안에 의해 헬멧을 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오토바이 수요의 증가는 헬멧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탑승자에게도 헬멧을 쓰게 하는 법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토바이가 생활화되어있는 캄보디아에서 헬멧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헬멧 수요가 비교적 적었던 과거에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주로 수입 되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시장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임
- 헬멧 착용률은 2008년 24%에서 2012년 현재 97%로 증가

【헬멧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중국	248.5	75.69	178.6	76.82	215.4	72.60
2	태국	56	17.05	24.4	10.51	34.8	11.72
3	홍콩	17	5.18	10.3	4.43	30.3	10.20
4	베트남	2.9	0.90	4.1	1.77	15.3	5.14
5	일본	0.3	0.10	-	0.00	0.4	0.14
6	대만	2.9	0.90	2.1	0.89	0.2	0.10
7	싱가포르	0.6	0.18	12.4	5.31	-	0.00
8	한국	-	0	0.6	0.27	0.2	0.05
9	호주	-	0	-		0.1	0.04
총 계		328.3	100	232.5	100	296.8	1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헬멧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승객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됨

6)	품목명	CCTV(HS : 852580)

○ 시장동향

-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CCTV와 금고 같은 안전장치는 모두 외부에서 수입하고 있음
- 현재 30여개의 업체가 CCTV를 수입하고 있고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기존의 수요가 회사나 공공시설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가정집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2009년을 기점으로 부동산과 건설사업 붐이 일어나면서 CCTV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
- 현재 유통되고 있는 CCTV 대부분은 15$~50$의 가격 분포를 보임
- 캄보디아 시장은 가격에 민감하므로 보급형이나 저가상품에 주력
- 캄보디아는 일본(28%), 호주(22%), 중국(15%)에서 주로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한국산 CCTV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지는 않음

【CCTV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일본	410.5	15.48	421.8	63.68	662.6	27.58
2	호주	-	0	0.7	0.11	518.4	21.58
3	중국	6.2	0.23	121.8	18.39	370	15.40
4	미국	689.6	26.00	32.6	4.92	210.1	8.74
5	프랑스	-	0	-	0	197.7	8.23
6	싱가포르	192.1	7.24	77.1	11.64	88.7	3.69
7	한국	6.1	0.23	5.5	0.83	43.7	1.82
8	독일	12.9	0.49	35.0	5.29	30.9	1.29
9	태국	998.6	37.65	56.7	8.57	25.1	1.05
10	말레이시아	45.1	1.70	2.4	0.37	13.2	0.55
11	홍콩	141.5	5.33	14.3	2.16	-	0
	기타	560.3	21.12	316.2	47.73	242	10.07
총 계		2,652.3	100	662.5	100	2,402.4	1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캄보디아 CCTV시장은 불안한 치안 환경과 경제수준 향상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됨
-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아직 높지 않으나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음

7)	품목명	정수기(HS : 842121)

○ 시장동향

- 캄보디아 정수기는 자체 생산을 위한 투자가 없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
-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은 캄보디아에서 중요한 문제로 66%의 인구가 안정된 식수공급원을 통해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 정수기 수입 규모는 2008년 76만 달러 수준에서 2009년 127만 달러 규모로 65% 상승
- 2010년에는 100만 달러 규모로 20.8% 감소하였지만, 2011년 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303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01%의 성장을 보였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기준, 정수기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수입
- 중국이 130만 달러로 가장 큰 수입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대만(76만 달러)과 싱가포르(38만 달러)가 차지하고 있음

【정수기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중국	72	5.80	234.4	23.34	1,327	46.20
2	대만	91.8	7.39	228.7	22.77	762.9	26.56
3	싱가포르	430.4	34.64	-	0.00	379.2	13.20
4	한국	54.5	4.39	74.6	7.42	109.3	3.81
5	말레이시아	42.9	3.45	95.2	9.48	67.7	2.36
6	프랑스	-	0.00	79.3	7.89	66	2.30
7	미국	63.3	5.09	40.3	4.01	46.8	1.63
8	베트남	19.9	1.60	145.7	14.50	46.3	1.61
9	태국	241.4	19.43	81.1	8.07	-	0.00
	기타	226.3	18.21	25.3	2.52	66.9	2.33
총 계		1,242.4	100.00	1,004.6	100.00	2,872	100.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캄보디아 경제 성장으로 정수기를 구입할 수 있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식수 공급원 문제가 정수기 수요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정수기 제품의 주요 타깃은 고소득층, NGO, 대사관, 병원, 정부기관 등이며 사무실 및 비즈니스센터 등의 증가로 인해 정수기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8)	품목명	음료(HS : 220210)

○ 시장동향

- 캄보디아 내 가공 산업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중산층의 증가로 음료 시장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과 한국 베트남의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수요에 비해 음료를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현재 10여개의 회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음
- 청량음료에는 한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박카스와 비타 500이 있음
- 캄보디아 시장에서 청량음료는 태국이 66%, 한국이 21% 점유율을 보임
- 미흡한 법 제도와 비효율적 세관 운영으로 인해 밀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캄보디아 전체 시장의 30% 정도가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밀수입된 것임

【음료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말레이시아	32.3	3	281.5	18	805.1	36
2	태국	169.5	18	457	29	693.7	31
3	베트남	171.3	18	227	14	185.3	8
4	호주	311.1	33	198.6	12	159.9	7
5	키프로스	112.1	12	105.4	7	110.9	5
6	싱가포르	56.3	6	170.7	11	83	4
7	대만	17.6	2	12.4	1	46.6	2
8	한국	42.7	4	33.5	2	45.2	2
	기타	42.3	4	110.4	7	127.4	6
총 계		955.2	100	1,596.6	100	2,256.9	1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우리나라의 박카스와 비타 500이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기반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한국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9)	품목명	동물 백신(HS : 300230)

○ 시장동향

- 캄보디아는 동물백신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
- 전체 가축 수는 약 3300만에 달하며 축산농가의 수는 계속 증가 중
- 규모가 큰 사료업체 및 축산업체들은 농민들이 다양한 품종의 가축을 기르도록 장려하고 있어 동물 백신 소비 증가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
- 동물 백신의 수입은 2009년 80만 달러 규모에서 2010년 120만 달러 규모로 56%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127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 성장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기준 프랑스, 한국, 스페인, 페루, 중국이 동물 백신 주요 수출국이며, 이중 프랑스가 55만 달러 수출로 가장 수출 규모가 큼
- 한국은 2위로 3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의 11만달러 수출과 비교했을 때 129% 증가함

【동물 백신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프랑스	111.4	14.05	572.3	46.27	556.3	43.75
2	한국	43.2	5.45	114.5	9.26	262.2	20.62
3	스페인	109.7	13.84	92.6	7.48	169.5	13.33
4	페루	9.7	1.22	20.3	1.64	25.6	2.02
5	중국	47.7	6.02	-	0.00	5	0.39
6	인도	101.9	12.85	47.7	3.86	3.3	0.26
7	태국	306.7	38.70	213.7	17.28	-	0.00
8	베트남	36	4.55	-	0.00	-	0.00
9	말레이시아	10.6	1.33	18.6	1.50	-	0.00
	기타	15.7	1.98	157.1	12.71	249.6	19.63
총 계		792.6	100.00	1,236.8	100.00	1,271,535	100.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캄보디아 정부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업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축산농가가 증가 추세이며, 수입 시 10%의 부가세 외에는 관세 부과가 없음
- 캄보디아 바이어는 한국 백신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어서 캄보디아 시장에서 매우 선호되고 있음

10)	품목명	사무용품(HS : 3926.10)

○ 시장동향

- 캄보디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무용품은 외국에서 수입
- 회사, 학교, 가정에서 사무용품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캄보디아 세관에 따르면 2011년 사무용품 수입은 80만 달러에 이름
- 이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수요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07년도에는 지방선거 특수로 당시 최고 수입액을 기록하기도 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중국이 32%의 점유율로 최고 수입국이며, 미국 29%, 폴란드 6%, 일본 5.5%, 싱가포르 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2만 6천, 약 3.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캄보디아 사무 용품 수요의 대부분은 정부기관(60%) 및 회사(17%)가 차지

【사무용품 수입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천)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규 모	%	규 모	%	규 모	%
1	중국	135.8	27.67	156.9	23.46%	252.3	32.48%
2	미국	44.6	9.09	83.5	12.48%	226.3	29.12%
3	일본	103.3	21.03	48.8	7.30%	44.3	5.71%
4	싱가포르	42.4	8.64	40.6	6.07%	40.3	5.19%
5	프랑스	62.7	12.77	60.3	9.02%	31.1	4.00%
6	태국	28.7	5.85	40.4	6.04%	30.6	3.94%
7	한국	5.4	1.10	16.8	2.52%	26.4	3.39%
8	대만	-	0	20.5	3.06%	9.9	1.28%
	기타	67.9	13.83	200.9	30.04%	115.7	14.89%
총 계		490.9	100	668.7	100%		100%

* 자료원 : 캄보디아 상무부

○ 선정사유

-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아직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지방선거 특수를 맞아 사무용품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상품은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면 캄보디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종합 품목 사절단
- 남양주시 동남아시장개척단('12년 11월 19일~24일)

○ 중고트럭 및 차량배터리의 경우, 아래 수출상담회 참가 가능
- 2012 G-FAIR KOREA ('12년 10월 17일~20일, KINTEX, 주력산업팀)
  * 프놈펜무역관에서 캄보디아 차량 수입 주요 바이어 방한 초청 예정

○ 기초화장품의 경우, 아래 수출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가능
- 2012 G-FAIR KOREA ('12년 10월 17일~20일, KINTEX, 주력산업팀)
  * 프놈펜무역관에서 화장품 수입 바이어 방한 초청 예정
- 2012 OPOP ('12년 12월 15일~18일 프놈펜, 해외전시팀)

○ 금고, 헬멧, CCTV, 정수기, 청량음료, 동물백신, 사무용품의 경우 아래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가능
- 2012 OPOP ('12년 12월 15일~18일, 프놈펜, 해외전시팀)
- 2012 남양주시 동남아시장개척단('12년 11월 19일~24일, 프놈펜, GSBC)

○ 2012 OPOP 전시회 안내
- 사업 : One Province One Product 전시회 KOTRA 한국관 참가
- 내용 : 캄보디아 정부에서 주도하는 최대 종합 전시회. 방문객 약 7만명 예상되는 최대 규모 행사로 현지 홍보 효과 높음. KOTRA는 매년 참석해오고 있어, 전시회 최고 요지 자리에 20개 정도의 한국관 부스 운영 예정
- 추진시기 : '12년 12월 15일~18일
- 개최장소 : 캄보디아 프놈펜
- 참가방법 : 한국관 참여 기업 모집 접수 예정 (www.gep.or.kr)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캄보디아 유통망 시장은 기업형 유통망 구조로 바뀌어 가는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초기 진출기업에게는 시장선점의 기회

○ 진출 희망기업은 선도 기업이 갖는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절한 진출 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비교하여 저렴하나, 현지 기준으로는 과감한, 광고비 투자를 통해 마켓 인지도 상승 가능. TV, 인기스포츠 스폰서, 프로모션 행사 등 적극적인 광고비 투자 추천
- 단순히 바이어에만 의존하며 판매할 경우 시장 확대에 한계

○ 기회요소
- 부유층 및 중산층의 확대 및 소득의 증대: 현재의 저소득, 미약한 시장규모에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내수와 시장 확대 가능성 고려 필요
- 서구식 생활패턴으로의 변화: 경제활동인구 및 신용카드사용 점진적 증가로 인한 소비증가
- 기존 전통적인 소매유통시장에서 기업형 유통망으로의 빠른 변화: 소매유통 분야의 외국인 진입규제 없음, 현재 대부분의 기존 업체가 현지 업체임

○ 위협요소
- 높은 관세, 일반관세 15%~35%에 특별관세 및 VAT가 부과되면 50% 이상의 세금 부여
- 주변국인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밀수된 제품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현대식 슈퍼마켓까지 광범위하게 유통
- 생필품, 잡화, 화장품, 기계부품 등 거의 전품목이 밀수로 유통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조립 생산기지 건설 추천

○ 캄보디아 현지 마케팅 회사와 파트너 계약을 맺어 광고 및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소비재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외국계 기존 제품과 차별화 전략 필요
- (예) BBQ 치킨과 같이 한류문화에 열광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화(프리미엄화)전략을 구사 필요

○ 진출지역의 경우 중산층의 구매력을 감안한다면 수도인 프놈펜에 1호점을 개설하고 순차적으로 확장한 후에 관광중심지인 시엠립이나 휴양도시인 시하누크빌에 1개씩 매장을 내는 방식 유효

○ 홍보 전략으로는 TV광고나 TV프로그램에 스폰서 방식이 많이 사용됨
- 한류스타를 활용한 한국의 광고를 더빙하여 현지 TV에 방영하는 방법이 초기에 유효하며 Made in Korea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 이후에는 주요 3대 명절 때 거리 홍보 및 판촉행사가 효과적임

❑ 진출시 유의사항

○ 캄보디아는 WTO 가입국으로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장벽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수입 장벽은 없으나 태국, 베트남 국경을 통한 많은 밀수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아 정식으로 관세를 내고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제품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함
- 이러한 불균형 구조는 점진적으로 세관 투명성 및 국가의 투명성 증대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일부 제품(화장품, 농약 등)은 사전 수입허가 필요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연관된 제품, 캄보디아 보건부 등이 심사)

- 수입허가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시간이 예상치 못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류 절차 진행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물건을 수출하였으나, 도착 이후에도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오랜 시간 세관에 억류되어 제품 유통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마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

9 라오스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2011년 라오스 경제 성장률은 8.1%, 1인당 GDP는 1,058달러로 UN이 지정한 세계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에 속함
- 2012~13년에도 라오스의 경제는 평균 7.8%대의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라오스의 주요 연간 지표】

경제지표	2009	2010	2011
GDP(십억 달러)	5.9	7.3	11.9
실질경제성장률(%)	7.6	9.4	8.1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0.0	6.0	7.6
1인당 GDP(달러)	885	1,003	1,058
수출(백만 달러)	1,053	1,746	2,131
수입(백만 달러)	1,461	2,061	2,370
경상수지(백만 달러)	-61	29	134
외환보유고(금 제외) (백만 달러)	609	703	779
환율(LAK:$)	8,516	8,259	8,044

* 자료원 : EIU, IMF(1인당 GDP)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2009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수출 증가율이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여 2012~13년에도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라오스의 대외교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선회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그 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라오스 대외 교역 동향】

(단위: US$백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수 출	1,092	1,053	1,746	2,131
수 입	1,403	1,461	2,061	2,370
무역수지	-311	-408	-587	-239

* 자료원 : EIU(2012.4)

【라오스 주요 국별 수출 현황】

(단위: US$천, %)

순위	국가	2009-2010		2010-2011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	태국	1,212,095	65.0	933,095	44.2
2	호주	220,273	11.8	489,316	23.1
3	베트남	134,355	7.2	153,310	7.3
4	중국	79,526	4.3	64,673	3.1
5	영국	42,809	2.3	53,707	2.6
6	일본	18,532	1.0	52,825	2.5
7	미국	37,771	2.0	41,672	2.0
8	독일	34,780	1.9	37,378	1.8
9	네덜란드	24,263	1.3	24,264	1.2
10	이탈리아	23,043	1.2	23,043	1.1
전체 수출액		1,865,741	100.0	1,976,540	100.0

* 자료원 : 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 라오스 전체 수출액 중 44.2%가 태국으로의 수출로, 경제적으로 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라오스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US$천,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태국	1,492,799	64.2
2	중국	359,757	15.5
3	베트남	182,002	7.8
4	한국	60,397	2.6
5	스위스	47,820	2.1
6	일본	45,273	2.0
7	프랑스	44,531	1.9
8	러시아	41,105	1.8
9	벨기에	22,322	1.0
10	싱가포르	13,785	0.6
전체 수입액		2,324,575	100.0

* 자료원 : 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 라오스 전체 수입액 중 무려 64.2%가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며 중국이 2위(15.5%), 베트남이 3위(7.8%)를 차지하고 있음
-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는 이들 3국(태국, 중국,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상기 통계는 한국에서 집계(KOTIS)하는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액과 금액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라오스 수출입 통관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상기 통계는 국별 수입비중을 보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함

【한-라오스 교역 동향】

(단위: US$천, %)

구 분	2009	2010	2011	2012(1~6월)
수 출	55,760(4.8)	112,252(101.3)	154,462(37.6)	84,826 (4.7)
수 입	17,529(-66.9)	19,990(14.0)	4,325(-78.4)	2,914 (72.3)
무역수지	38,231	92,262	150,137	81,911

* 자료원 : KOTIS

- 대 라오스 수출은 2010년 10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2011년 증가율은 37.6%, 2012년 6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로 증가폭은 감소했으나, 증가세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대 라오스 흑자규모도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하며 2011년 1.5억 달러를 초과해 흑자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기 침체 이후의 경기 동향

- 라오스는 인구 644만 명의 UN이 지정한 세계최빈국 중 하나에 속하는 국가로 수출입 규모가 매우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세계경기 침체 같은 악재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오히려 2011년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나 3대 수출유망품목

❑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US$천,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09/2010		2010/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부품 (870899)	29,419	N/A	35,754	21.53	N/A	N/A	7,007	50.1	9,325	33.1	5,341	7.4
2	건설중장비 (842952)	31,553	N/A	116,511	269.53	N/A	N/A	505	-41.9	2,030	307.5	2,182	17.7
3	의약품 (300490)	7,004	N/A	10,769	53.75	N/A	N/A	1,901	1,502.6	2,236	17.6	238	-60.4

* 자료원 : 라오스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KOTIS (MTI 4단위 기준)

주) 1. 라오스는 UN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으로 통계가 매우 빈약해 HS Code별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음. WTA(World Trade Atlas)에도 등재되지 않음.

2. 상기 주재국 수입시장 수치는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라오스 상공부로부터 별도로 입수한 자료로, 다른 통계와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수입규모가 대략 어느정도인지는 참고할 수 있음.

3. 주재국 수입시장 통계 분류기준에 따라 자동차부품은 “자동차+부품” 통계며, 의약품은 “의약품+의료기기” 통계임. (자동차부품만의, 의약품만의 통계치는 없음)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자동차부품(HS: 870899)

○ 시장동향

- 전력, 건설 기자재 등 산업관련 수입품(라오스 전체 수입품 중 27%에 해당)을 제외하면 자동차와 관련부품이 25%로 소비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2007년~2011년까지 라오스 주요 수입 품목 2위를 줄곧 차지
- 라오스 내에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 라오스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12년 상반기 동기 대비 7.4 %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말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로 경쟁사인 Toyota 태국 공장의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련 부품이 일시적으로 수요 증가함
- 이후 꾸준히 수요층이 두터워지면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짐
  * 라오스 내 판매되는 일본산 자동차는 대부분 태국에서 생산돼 라오스로 수입됨
- 라오스 내 통계가 매우 빈약해, HS Code별/수입국별 수입액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음

【라오스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현황】

(단위: US$천, %)

품목명	수입액		증가율
	2009-2010	2010-2011	
자동차 및 부품	29,419	35,754	21.53

* 자료원 : 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 주) 주재국 수입시장 통계 분류기준에 따라 자동차부품만의 수입통계는 없으며, 상기 통계는 “자동차+부품” 통계임

○ 선정사유

- 연 8%대의 고속 경제 성장에 따라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의 라오스 내 시장 점유율 상승과 더불어 A/S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대, 기아 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37%, 도요타 35% 차지함
- 매년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품 중 70% 이상이 자동차 관련 부품일 정도로 자동차 수입이 한국과 라오스 간 무역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2)	품목명	건설 중장비(HS: 842952)

○ 시장동향

- 성장하는 시장으로 사회 제반 시설 건설이 활기를 띄어 경기가 확대되는 추세

  * 특히, 제 9차 ASEM 회의 개최(2012.11)로 인프라 건설공사 증가세

- 라오스 상공부에 따르면 2009-2010년 건설 중장비 수입은 269.2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됨
- 라오스 내에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 라오스 건설 중장비 수출은 2012년 상반기 기준 동기 대비 177.7% 증가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라오스는 통계가 매우 빈약해 라오스의 건설 중장비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비중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요 바이어들에 의하면 현재 가장 큰 수입국은 태국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 베트남 순인 것으로 추정됨
- HS Code별/수입국별 수입액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음

【라오스 건설중장비 수입 현황】

(단위: US$천, %)

품목명	수입액		증가율
	2009-2010	2010-2011	
건설중장비	31,553	116,511	269.53

* 자료원 : 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 선정사유

- 제 9차 ASEM회의 개최 준비로 인프라 건설공사가 증가세
- 인프라 구축 및 건축/건설 활성화, 수력발전 등 대형 프로젝트 진행으로 트럭 및 중장비 수요가 증가함

3)	품목명	의약품(HS: 300490)

○ 시장동향

- 라오스 상공부에 따르면 2009-2010년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53.7%증가한 것으로 기록됨
  * 라오스 상공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통계치가 함께 기재됨
- 한국의 대 라오스 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60% 감소했으나,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하는 실정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라오스 내 자체 생산 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현재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은 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태국을 이어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이 많음
- 라오스는 통계가 매우 빈약해 라오스의 의약품의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비중 파악하기 곤란함
- HS Code별/수입국별 수입액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음

【라오스의 의약품 수입 현황】

(단위: US$천, %)

품목명	수입액		증가율
	2009-2010	2010-2011	
의약품	7,004	10,769	53.75

* 자료원 : 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 주) 주재국 수입시장 통계 분류기준에 따라 자동차부품만의 수입통계는 없으며, 상기 통계는 “의약품+의료기기” 통계임

○ 선정사유

-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60,4% 감소하긴 했으나 수출액 자체가 미미하며, 개도국의 낙후된 보건 의료 수준에 따른 질병 발생률 증가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KOTRA의 지사화 사업, 무역사절단, 투자사절단 등 직접 마케팅 전략을 펴는 것이 효율적

- 라오스는 시장규모가 작아 업종별로 유력바이어가 많지 않으며, 기존 거래선(특히 언어가 통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용이 적은 태국, 베트남,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이 고품질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음
- 이메일이나 전자적인 교류보다는 면대면 만남을 선호하는 성향을 띄어, 라오스를 방문해 직접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

○ 자동차 부품은 KOTRA의 지사화 사업을 이용

-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지사화 사업 등의 직접 마케팅 전략을 펴는 것이 용이하며, 지난 3월 Automobile Week에 바이어 5개사를 한국에 보낸 바 있음

○ 의약품, 건설 중장비는 KOTRA 무역사절단 활용

- 올해 3월 한국의 한 의약품 업체가 충남무역사절단에 참가한 바 있으며 무역사절단을 통해 현지 업체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야 함
- 건설중장비의 경우 '12년 8월 29일 무역사절단 행사 완료(내년 일정 미정)

○ 무역사절단 안내(종합품목)

- 광주 광역시 동남아 무역사절단('12년 10월 4일~10월 12일)
- 라오스 투자사절단('12년 1월 24일~27일 예정, 해외투자지원단)

○ 라오스 진출에 강한 교육 안내

- 소자본창업연수(KOTRA글로벌연수원/중기청 지원), 라오스 창업을 희망하는 15인 선발하여 2주간 교육 및 연수 '12년 11월 추진예정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라오스 정부가 2011년 10월에 중고 승용차 수입은 중단시켰지만, 중고 중장비 수입은 유효함. 그러나 신차의 70% 이상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조항 외에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수출 시 유의해야 함

○ 라오스는 시장이 작고 항만이 없는 내륙국이라는 조건 때문에 높은 물류비용으로 우리 기업들이 줄곧 외면해왔으나, 이를 뒤집어보면 경쟁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 브랜드 인지도가 미미하더라도 초기에 시장을 선점해 브랜드를 구축한다면 향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들어와도 경쟁할 수 있는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지리적·언어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태국과의 거래보다 한국과의 거래를 원하는 만큼 좋은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 시장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라오스인들은 태국어를 100% 이해하며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

○ 소량주문에도 적극적인 응대 필요 - 라오스 시장은 아직 작아 선시장 선점, 후시장확대를 노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진출시 유의사항

○ 자동차부품

관세제품번호	품목명	MFN율	한-아세안 FTA			
		2012	2012	2013	2014	2015
8708.99.19	자동차부품	10	10	10	10	10

○ 건설중장비

관세제품번호	품목명	MFN율	한-아세안 FTA			
		2012	2012	2013	2014	2015
8429.52.10	건설중장비	5	5	5	4	3

○ 의약품

관세제품번호	품목명	MFN율	한-아세안 FTA			
		2012	2012	2013	2014	2015
3004.90.10	의약품	10	10	10	10	10

○ 부가세 : 모든 수입 품목에 VAT 10% 적용

10 호주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2012년 초 4%대의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최근 3% 초반(3.0~3.1%)으로 수정 발표
- 호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당초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상황

【호주 주요 경제지표 전망】

항목	OECD		EIU		NAB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경제성장률(%)	2.2	3.1	2.0	3.0	2.1	3.1
민간소비(%)	3.4	2.8	3.4	3.5	3.1	3.5
고정투자(%)	7.2	8.3	6.9	8.2	-	-
실업률(%)	5.1	5.4	5.1	5.2	5.1	5.5
소비자물가(%)	3.4	1.8	3.4	2.7	3.1	2.8
경상수지(%) (US억불)	-2.2	-3.9	-2.7 (-40.6)	-3.1 (-47.8)	-	-
A$/U$ 환율(호주 불)	-	-	0.98	0.99	1.02	0.97

* 자료원 : OECD, EIU, NAB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11년 대호수출은 8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 호주달러 강세로 수입수요 확대, 한국제품의 현지 브랜드 인지 구축 이대 호주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
- 한국은 호주의 3위(중국-일본) 수출 대상국, 9위 수입 대상국
- 호주는 한국의 14위 수출 대상국, 5위 수입 대상국

【한국의 대 호주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 %)

구분	2012.6	2011	2010	2009
수출	4,554(23.6)	8,163(22.9)	6,642(26.7)	5,243 (1.4)
수입	11,106(-10.4)	26,323(28.7)	20,456(38.6)	14,756 (-18.0)
무역수지	-6,552	-18,160	-13,815	-9,513

* 자료원 : 호주 통계청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민간소비 : 소비심리 전반적으로 저조

  * 호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자원개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으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이하 수준을 기록

- 민간투자 : '11년 민간투자 대폭 증가, '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광산업 등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항상 위험요인

  * 특히 광산업 및 자원개발붐에 힘입어 대폭 증가

  * 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고르곤 430억 LNG 프로젝트, 167억 커티스 아일랜드 LNG 프로젝트 등) 활발히 진행 중

  *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자원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 침체 영향 우려

○ 금융부문

- 금리 : '11년 11월 이후 연이은 금리 인하

  * '09년 10월부터 0.25%p씩 총 7 차례 인상 후 세계 경기 침체 이후 4.75%에서 2011년 11월부터 4차례 금리 인하로 2012년 8월 기준 3.5%

  * 금리추이: 4.75%('11.9) → 4.5%('11.11) → 4.25%('11.12) → 3.75%('12.5) → 3.5%('12.6)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자원수출 축소 등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될 수 있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부각

- 환율 : 호주화 강세 현상 당분간 유지, 점차 완화 전망

  * 2011년에는 호주달러 대비 1:1.2 미달러 수준까지 초강세를 시현하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호주화 강세 현상은 점차 완화될 전망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 10대 품목別 수입시장 통계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유압브레이커 (843149)	616	35.9	809	31.5	505	53.1	294	11.6	356	20.9	164	-5.1
2	전선 (854449)	341	47.4	477	39.7	232	-7.0	31	44.0	44	44.8	21	0.8
3	배터리 (850710)	167	47.7	193	15.4	94	0.6	0.91	-57.6	1.54	68.5	0.25	-69.6
4	DID (852859)	101	-16.6	118	16.6	59	7.5	7.63	-21.9	9.28	21.5	3.47	-34.8
5	동파이프 (741110)	52	36.3	66	27.7	30	2.6	57	39.3	71	26.0	27	-21.9
6	자동차부품 (870899)	554	26	651	17	338	10	25	49	41	66	18	3
7	중장비 (842952)	606	64	959	58	847	150	42	10	62	53	49	82
8	승용차용 타이어 (401110)	766	50	941	23	493	12	63	10	71	13	34	3
9	비료 (310520)	49	80	75	55	51	32	15	106	44	183	31	24
10	철강구조물 (730890)	419	10	1,212	189	443	43	6	41	14	147	5	19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10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유압브레이커(HS : 843149)

○ 시장동향

- 유압브레이커를 포함한 중장비 관련 부품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 2011년의 약 8억 달러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유압브레이커 단일 품목으로는 그 규모가 작을 것으로 판단됨
- 지난 3년간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아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연평균 20-30% 증가
- 수요특징 : 대규모 광산 및 인프라 개발 수요가 수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접촉한 바이어 의견을 종합하면 A/S용 중고 굴삭기 수입 및 부품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쟁 및 수입동향

- Sandvik, Atlas Copco, Krupp, Rammer, TOKU 등 선진국 제품이 주류를 이룸
-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35.7%), 독일(16%), 프랑스(8%), 중국(8%) 및 일본(8%) 등 5개국 시장점유율이 73%에 이르고 그 뒤를 이탈리아가 따르고 있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 정도로 15백 7십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함

【주요 수입국 유압브레이커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미국	141.9	201.2	288.9
2	독일	73.2	94.2	91.1
3	프랑스	26.7	53.5	70.8
4	중국	53.1	59.2	68.1
5	일본	33.2	39.5	65.6
8	한국	8.5	10.7	15.7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건설 및 광산개발 수요로 유압브레이커를 포함한 중장비 부품 수요 증가
- 경쟁력 있는 한국산 유압브레이커의 시장 점유율 확대

2)	품목명	전선(HS : 854449)

○ 시장동향

- HS Code(8544.49)의 전체 수입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4천760억 미국 달러 규모이며 2010년 대비 39.70% 증가하였음
- 對한국 수입의 경우 2010년 대비 70.12% 증가하여 총 208억 미국달러를 기록
- 수요산업으로는 건설업, 통신서비스업, 제조업이며 주 수요처는 건설업이지만, 최근 5년간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악화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전선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호주 서부연안 및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광산을 중심으로 빌딩 및 관련 인프라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전선 제조업체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 판단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세계경제 침체기 동안 호주 현지 전선 제조 산업의 불황으로 전선 산업 성장률이 7.2%로 예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불황 속에서도 광산업 및 통신 산업의 전선 수요가 현지 제조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현지 전선 업체들의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의 법인 및 지사의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현지 제조업체들도 존재

【주요 수입국 전선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중국	120.4	213.8	278.7
2	필리핀	0.8	5.9	33.8
3	뉴질랜드	34.8	23.1	26.8
4	한국	8.0	12.3	20.8
5	미국	14.1	14.8	17.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호주 서부 및 북부 소재의 광산업 중심지에서의 꾸준한 성장으로 채굴 현장 및 관련 인프라 개발과 사무실 건설이 동부 연안에 비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4G LTE Network 및 National Broadband Network(NBN) 프로젝트 등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한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3)	품목명	배터리(HS : 850710)

○ 시장동향

- '11-'12 회계연도 기준 호주 전체 축전지 시장규모는 3억 5690만 호주 달러 규모로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5%씩 감소된 반면, 수입 물량은 눈에 띄게 증가됨
- HS 850710에 대한 '11년 호주 수입시장 규모는 약 1억 9천만 달러로 '09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대비 약 15.3%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호주는 전체 배터리 수요의 약 66%를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인 Century Yuasa Batteries와 Exide Australia도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병행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한국은 1위 수입국가로 '11년 8천 9백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입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하였음
- 수입 비중은 한국 다음으로 필리핀(17.9%), 중국(13.3%), 미국(9.8%), 인도네시아(3.6%)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모두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주요 수입국 축전지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한국	47.5	75.4	89.7
2	필리핀	27.3	35.9	34.6
3	중국	16.1	22.8	25.6
4	미국	8.7	14.0	18.8
5	인도네시아	3.6	5.7	7.0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현지 업체들이 점차 로컬 제조보다는 수입 물량을 늘여가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 배터리의 품질과 가격은 이미 현지 시장에서 검증되었음
- 호주와의 FTA가 체결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임

4)	품목명	DID(Digital Information/Signage Dispaly)(HS : 852859)

○ 시장동향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gital Signage Display)가 포함된 HS CODE 852859 계열의 전체 수입 시장 규모는 US$118백만 규모로 이중 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16.8%에 해당하는 US$19.8백만 정도 규모임
- 2010년 대비 2011년 전체 규모는 16% 정도 증가 되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70% 정도 증가하였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호주는 Display 생산이 전무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DID 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적용 분야에 따라 제공되는 Solution이 달라 이를 공급하는 Solution 공급 업체들은 있음
- 상위 5개 수입국들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대만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함

【주요 수입국 DID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중국	57.5	46.2	52.6
2	한국	11.4	11.6	19.8
3	미국	9.7	9.5	13.5
4	일본	15.2	14.0	11.4
5	대만	4.7	3.7	5.0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DID 제품은 Display 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새롭게 생겨난 Emerging 마켓으로 적용 분야가 다양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음
- DID의 종류가 KIOSK, Single Vision, Multivision, Outdoor용 등 다양하고 적용 분야 또한 다양함
-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Custom Made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적합한 시장이라 판단됨

5)	품목명	동파이프(HS : 7411.10)

○ 시장동향

- 동파이프의 전체 수입 시장규모는 전년에 비해 28% 증가한 미화 6,615만 달러 규모
- 이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47.98%로 가장 많으며 수입규모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해외에서 생산되는 동파이프가 호주 제품보다 가격경쟁력과 품질개선 등이 높아 호주의 자체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 동파이프는 주로 배관사업, 광산업에서 수요가 높으며, 에어컨, 냉장고, 의료 분야 등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호주 현지의 Copper Development Centre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 현지생산제품과 수입제품의 비율은 현재 대략 6:4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동파이프에 대한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상위 5개 수입국으로는 한국,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독일이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5개 국가 중 對 한국 수입 비중은 약 50% 정도임

【주요 수입국 동파이프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1	한국	19.5	26.8	31.7
2	중국	11.7	18.5	28.4
3	태국	6.1	5.9	3.5
4	말레이시아	0	0	1.0
5	독일	0.3	0.3	0.5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현지의 높은 인건비로 인한 자체적인 생산 환경이 위축되면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의존도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임
- 2002년에 있었던 한국산 동파이프 제품의 반덤핑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한국산 동파이프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됨

6)	품목명	자동차 부품(HS : 870899)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US$ 6억 5천만(2011년 기준) 전년도 대비 17% 증가
- 대 한국 수입물량은 2011년 기준 전년대비 66% 증가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 미미, 최근 한국산 자동차 판매율 증가로 인해 A/S 마켓용 자동p차 부품 수요 증가 예상

○ 경쟁 및 수입동향

- 다양한 부품 제조사 약 900여 개 사 등록되었으나, 현지 제조비용이 높아지며 해외 수입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웨덴이며 상위 5개국의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시장의 약 67%를 차지함
- 對한국 수입은 수입대상국 중 7위로 전체수입 비중의 약 6%를 차지함

【주요 수입국 자동차 부품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1	미국	133.6	162.2	180.8	27.77	11.48
2	일본	70.8	87.1	85.1	13.08	-2.31
3	중국	39.7	51.4	61.6	9.46	19.84
4	독일	41.3	51.9	56.4	8.66	8.62
5	스웨덴	22.2	34.6	55.0	8.45	58.97
7	대한민국	16.5	24.7	41.0	6.29	66.0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최근 현대 및 기아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한국산 자동차 판매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A/S 마켓용 자동차 부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지 자동차 제조사 GM Holden의 신차 개발에 참여한 부품업체들 납품 시작

7)	품목명	중장비(HS : 842952)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US$ 9억 5천만(2011년 기준) 전년도 대비 58% 증가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2011년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82% 증가함
- 수요특징 : 자체 제조 기반 전무, 전체 현지 수요를 수입에 의존, 한국산 제품에 대한인지도 높음, 광산업 호황으로 중장비 수요증가 예상

○ 경쟁 및 수입동향

-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
- 해외 유명브랜드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미국(Caterpillar, Case New Holland, John Deere), 일본(Komatsu, Hitachi, Kwasaki, Kubota, Kato), 독일(Liebherr, Demag, Bomag), 한국(Hyundai, Samsung, Doosan)등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독일,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등지며 상위 5대 수입대상국의 점유율은 92%에 이름

【주요 수입국 중장비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1	일본	232.0	448.4	610.8	63.67	36.24
2	독일	47.0	1.4	108.4	11.3	7797.59
3	대한민국	20.1	42.2	64.7	6.75	53.44
4	미국	26.5	36.5	48.2	5.03	32.2
5	프랑스	26.1	39.1	46.1	4.81	17.77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현지 광산업 호황으로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지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로 높아지고 있음
- 신제품 외에 중고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8)	품목명	승용차용 타이어(HS : 401110)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US$ 9억 4천만(2011년 기준) 전년도 대비 23% 증가
- 대 한국 수입물량 2011년 기준 전년대비 13% 증가
- 수요특징 : 현지 제조기반이 미미하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지 재생타이어 제조사는 3개사를 제외하고는 타이어 제조업체가 대부분 해외로 이전한 상태
- 해외 유명브랜드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Goodyear, Toyo Tires, Bridgestone, Dunlop, Hankook, Kumho 등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은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이며 전체 수입물량의 77%를 점유함
- 對한국 수입은 수입대상국 중 6위로 전체수입 비중의 약 8%를 차지함

【주요 수입국 승용차용 타이어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1	중국	119.8	196.5	269.2	28.59	37.04
2	일본	118.1	183.0	174.7	18.55	-4.57
3	태국	58.3	91.0	123.4	13.11	35.64
4	인도네시아	29.1	69.9	82.2	8.73	17.6
5	미국	30.9	45.4	78.8	8.37	73.78
6	대한민국	57.2	63.1	71.5	7.59	13.38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2011년 기준 현지 자동차 등록대수 약 1,600만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약 1,200만대로 인구대비 자동차 보유율 높음
- 정기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이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FTA가 진행된다면 5% 관세 할인이 기대되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

9)	품목명	비료(HS : 310520)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US$ 7,500만(2011년 기준) 전년도 대비 55% 증가
- 대 한국 수입물량 2011년 기준 전년대비 13% 증가
- 수요특징 : 현지 제조업체가 다양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현지 수요가 워낙 높고 현지 제조사도 원료 수입 및 해외 완제품 수입/유통도 겸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지제조 : Wesfarmers CSBP Ltd, Incitec Pivot Ltd, Impact Fertilisers Australia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은 대한민국,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노르웨이 등지이며 전체 수입물량 중 90%를 점유함.
- 對한국 수입은 수입대상국 중 1위로 전체수입 비중의 약 58%를 차지함

【주요 수입국 비료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1	대한민국	7.5	15.5	43.8	57.78	182.67
2	벨기에	3.9	5.9	9.8	12.91	66.51
3	네덜란드	3.9	10.5	9.7	12.83	-7.48
4	미국	6.6	4.6	3.5	4.57	-24.48
5	노르웨이	0.1	2.9	1.8	2.34	-38.07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현지의 척박한 토질에 대규모 농사를 짓기 위해선 비료살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장임
- 현지에 굴지의 제조사가 있음에도 가격 경쟁력 이유로 해외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황
- 호주 주요 수출 작물인 밀, 면 등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산업과 관련된 경기 전망 밝음

10)	품목명	철강구조물(HS : 730890)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 US$ 12억(2011년 기준) 전년도 대비 189% 증가
- 대 한국 수입물량 2011년 기준 전년대비 147% 증가
- 수요특징 : 현지 제조업체가 다양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호주달러 강세로 인해 다양한 업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경쟁 및 수입동향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은 인도네시아, 중국, 프랑스, 태국, 독일 등지임
- 이들 상위5개국은 전체 수입물량 중 약 89%를 차지함
- 對한국 수입은 수입대상국 중 8위로 전체수입 비중의 약 1%를 차지함

【주요 수입국 철강구조물 수입 동향】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	수입실적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1	인도네시아	19.4	23.4	653.3	53.89	2696.08
2	중국	252.0	255.8	350.9	28.95	37.15
3	프랑스	0.4	0.9	31.7	2.61	3238.79
4	태국	1.2	46.9	26.8	2.21	-42.82
5	독일	11.2	5.3	18.1	1.49	239.04
8	대한민국	4.0	5.7	14.0	1.16	146.81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각종 대규모 건설 및 광산업에 사용되는 철강 구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호주달러 강세로 현지 제조에서 수입으로 전환하고 있는 제품으로 파악되며 향후 2년간 호주 경제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수입비중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나, 우수한 품질을 원하는 프로젝트에는 한국산 제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DID 제품 관련 전시회를 통한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 Digital Signage World 전시회('12년 3월, 내년 일정은 미확정)
- 호주 최대 정보 통신 박람회인 CeBIT 전시회('13년 5월 예정)

○ 배터리 관련 전시회를 통한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 National Manufacturing Week('13년 5월 예정)
- Australian Auto Aftermarket Expo('13년 4월 예정)

○ 전선 관련 전시회를 통한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 호주 최대 광산업 및 엔지니어링 관련 전시회 Queensland Mining & Engineering Exhibition(QME)('13년 9월 예정)

○ 유압브레이커
- 전시회를 통한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 ACE 건설 중장비 전시회(멜버른, '13년 2월), CIVINEX(시드니, '13년 5월)
- 일반 중장비와 마찬가지로 현지 딜러를 통한 시장진입 및 점유율 확대가 필요함(지역딜러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식의 제품 홍보 및 판매활동 필요)
- 전문잡지 광고를 통해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딜러 발굴 기회로 활용

○ 동파이프 관련 전시회를 통한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 APIA Annual Convention and Exhibition('12년 10월 13일~16일)

○ 자동차 부품
- 자동차용 부품 중 OEM 시장: KOTRA 주최 GlobalTransporTech('13년도 개최 예정)참여를 통해 현지 바이어와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자동차용 부품 중 After Market용과 자동차용 타이어의 경우 현지 유명 전시회참석을 통해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가능

  * Australian Auto After Market Expor('13년 4월 예정)

  * 웹사이트: www.aftermarketexpo.com.au

○ 중장비

- 현지 중장비 산업 협회인 CMEIG(The Construction and Mining Equipment Industry Group)회원 가입 또는 공개 정보를 통해 현지 시장동향 및 수요 파악 가능

  * 웹사이트 : www.cmeig.com.au

- 현지에 인지도 있는 중장비 및 광산용 장비 전시회 참가

  * Construction and Mining Expo('13년 3월 예정)

  * 웹사이트 : www.cmeexpo.com.au

○ 비료

- 현지 산업협회인 Fertilizer Industry Federation of Australia를 통해 현지 취급업체 리스트 확인 가능

- 비료 산업협회 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

  * 웹사이트 : www.fifa.asn.au

○ 철강 구조물

- 현지 전시회 참석을 통해 사전 시장조사 및 현지네트워크 확대 노력 필요

  * Australian Construction Equipment Expo('13년 2월 예정)

  * 웹사이트 : www.aceexpo.com.au

○ 무역사절단 안내

- 울산시 아시아/대양주 종합 무역사절단('12년 11월 25일~12월 1일)

○ 공통 : KOTRA의 조사 대행 서비스 및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을 통해 시장 조사 및 주요 바이어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DID

- 삼성, 엡손, LG 등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나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한 중소, 중견 기업의 진출 분야로도 유망
- A/S 가능 업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이 관건

○ 축전지

- 현지 물류창고 및 사무소 운영, 자체 유통망 구축 등으로 호주 배터리 제조사들과의 OEM 확대 및 자체 브랜드 소매공급 확대 필요
- 자동차 배터리 시장보다는 아직 시장점유율이 많이 떨어지는 산업용 배터리 시장 개척이 절실함

○ 전선

- 대형 바이어 및 수주업체 발굴 및 프로젝트 참여기회 개척 필요
- 건설업 불황으로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광산업 및 서부지역 건설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의 기회를 잡기 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동파이프

- 지난 '01~'02년의 한국산 동파이프 반덤핑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여 거래 진행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제품별/용도별 Standard를 확인하여 현지 바이어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부품

- OEM 마켓일 경우 신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야 공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신차 출시 전 4~5년 전부터 제조사 또는 Tire 1 업체와 접촉하여 마케팅을 진행하여야 함

- 자동차용 부품 중 after merket 시장은 현지 다양한 바이어들이 있으며, 대형 유통 체인점을 가진 Rapco, Supercheap Auto, Autoban 과 같은 업체는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 받는 경우가 많음으로 현지 수입/유통업체 발굴에 힘써야 함

○ 종합의견
- 울산시 아시아/대양주 종합 무역사절단('12년 11.25-12.01) 종합 품목
- 제조사, 수입·유통, 리테일 및 서비스 업체 등 바이어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제품개발 공급으로 수출물량 확대 필요
- 한국제품의 경우 가격 및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뿐만 아니라, 질 높은 A/S, 결제에 대한 유연성, 판매딜러와의 신뢰구축이 시장 확대에 필수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경쟁국과는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 미국, 유럽산 제품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한국산 제품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value add' 전략도 필요함

○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닌 현지에 지사나 에이전트를 두고 A/S 등 딜러에 대한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가격경쟁력 및 고품질 경쟁력이 관건이며, FTA 체결시 한국의 대 호주 수출이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됨

❑ 진출시 유의사항

○ 배터리
- 수입관세율 5%
- 관련 인증 : AS 2149 Starter batteries - Lead-acid 준수

○ 전선
- 수입관세율 5%
- 관련 인증 : AS/NZS 5000.1 / AS/NZS 5000.2 준수

○ 유압브레이커
- 수입관세율 : 8431.49.10은 무관세, 8431.49.90은 5%
-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중장비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올 9월부터 굴삭기 핵심부품인 Quick Hitch에 자동잠금장치 의무부착이 세계 최초로 적용될 예정

○ 그 외 제품 관세율
- 자동차 부품 : 8708.99.20은 무관세, 8708.99.30은 5%
- 중장비 : 8429.52.10 무관세, 8429.52.90은 5%
- 타이어 : 5%

○ 종합의견
- 원산지 규정에 의해 한국 제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 또는 DCT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는 운임(해상, 항공) 및 보험료를 포함 하지 않는 FOB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
- 호주에서는 모든 품목에 기본적으로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호주의 품질 인증제도 및 안전규정은 매우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으며,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출품목별로 관련 인증, 규정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11 뉴질랜드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2009년과 2010년 각각 1.4%, 1.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11년 3월말 기준 1.7%, 2012년 3월말 기준 역시 1.7% 성장
- 뉴질랜드 재무성은 2013년 3월말 기준 뉴질랜드 GDP가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

【뉴질랜드 GDP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GDP(NZ$백만)	135,400	133,737	136,072	138,351
GDP성장률(%)	-1.4	-1.2	1.7	1.7

*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통계는 3월말 기준 연간 통계임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2009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뉴질랜드는 2010년과 2011년 1차 산업 상품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무역흑자로 돌아섬
- 2011년 수출과 수입 모두 20% 가량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 1차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환율강세로 인해 6월까지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4.2% 감소

【뉴질랜드의 최근 3년간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

구분	2009	2010	2011	2012.1~6
수출(증가율)	24,977(-18.3%)	31,419(25.79%)	37,707(20.01%)	18,375(-4.2%)
수입(증가율)	34,356(-25.42%)	25,621(19.6%)	37,136(21.19%)	18,543(2.4%)
무역수지	-9,379	5,798	571	192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뉴질랜드 통계청

- 한국의 대 뉴질랜드 수출은 1987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4년만인 2011년 10억 달러를 돌파함
- 한국은 뉴질랜드를 상대로 거의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며 2011년 적자 규모는 3억7천만 달러에 달함
- 2012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은 22.3% 증가한 반면 수입은 8.5% 감소하여 2천 3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 (수출순위는 50위, 수입순위는 39위를 기록 중)

【한국의 최근 3년간 대 뉴질랜드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

구분	2009	2010	2011	2012.1~6
수출(증가율)	891 (8.0%)	918(3.1%)	1,104(20.2%)	707(22.3%)
수입(증가율)	879(-21.6%)	1,176(33.7%)	1,474(25.4%)	684(-8.5%)
무역수지	12	-258	-370	23

* 자료원 : 무역협회

ㅇ 기타 거시경제 지표

- 2009년 6.1%였던 실업률은 2010년 6.5%로 악화
- 2011년도에는 6.5%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2012년에는 6.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뉴질랜드 재무성)
- 물가 상승률은 2011년 연간 4.0%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엔 1.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뉴질랜드 재무성)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09	2010	2011	2012(예상)
실업률(%)	6.1	6.5	6.5	6.3
물가 상승률(%)	2.1	2.3	4.0	1.6
외환 보유액(US$억)	170.9	171.9	174.7	205.7
외채(US$억)	1,959	2,034	2,076	2,023

* 자료원 : 뉴질랜드 중앙 은행, 뉴질랜드 통계청

* 2012년 외환 보유액은 6월 기준, 외채는 3월 기준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2008년 세계 경기 침체 이후, 뉴질랜드는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1.7%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임
- 2010년 말과 2011년 뉴질랜드를 강타한 대지진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피해 복구액은 약 200억 NZ달러로 추산됨

○ 금융부문

- 뉴질랜드의 대미 환율은 2011년 1달러당 미화 0.77달러 수준이었으나 2012년 1월 80센트대로 올라섰고, 이후 0.79-0.82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2009년 170.9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고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 2011년 17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 2010년 처음으로 미화 2천억 달러대로 올라선 뉴질랜드의 외채는 2011년 12월 2076억 달러까지 증가, GDP의 127.6%에 육박
- 2012년 3월에는 2023억 달러로 GDP의 123.6%로 하락세

나 3대 수출유망품목

❑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건설용 기계 (842959)	24.1	88.9	29.1	20.53	21.3	65	15.2	69.21	19.9	30.71	16.6	34.1
2	철강제품 (732690)	80.7	23.73	85.5	5.88	54.3	16	3.8	-45.7	4.8	25.8	4.4	280
3	농기계 (843290)	6.8	-7.9	8.6	27.4	3.4	28	0.002	124.18	0.005	137.26	0.003	300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뉴질랜드 통계청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건설용 기계(HS : 8429)

○ 시장동향

- 2011년 뉴질랜드 건설용 중장비 수입시장 규모는 미화 2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과 2011년 전년대비 각각 152.1%, 41.1% 성장을 기록
- 수요특징: 자체 생산기반이 미미한 관계로 수요의 대부분을 일본,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 중장비 제조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2년 현재도 일본이 점유율 46%로 국가별 순위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나, 10년 전인 2002년의 62% 점유율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 2011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15.7%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과 2011년 각각 전년 대비 81.92%, 43.67%성장

【주요 수입국 건설용 기계 수입현황】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1	일본	71.3	49.17	94.2	46.0	58.4	49.2
2	한국	22.4	15.4	32.1	15.7	23.0	19.4
3	미국	30.4	21.0	31.8	15.6	17.6	14.8
4	독일	4.1	2.8	8.9	4.4	2.9	2.4
5	스웨덴	2.9	2.0	10.0	4.9	2.8	2.4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오클랜드 광역권 주택건설 수요 증가
-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 작업이 시행 단계에 들어섬
- 뉴질랜드의 경기 회복세로 인한 건설 수요 증가

2)	품목명	철강제품(HS : 732690)

○ 시장동향

- 2011년 철강제품 수입시장은 미화 1억 달러 규모였으며 2010년과 2011년 전년대비 각각 27.6%, 5.5% 성장
- 수요특징: 뉴질랜드는 철강 산업이 빈약한 편, 중소규모의 제련소는 많으나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

○ 경쟁 및 수입동향

- 호주와 중국이 뉴질랜드 철강 수입시장의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각각 31.8%, 27.7%를 기록
- 한국은 2007년까지 미화 백만 달러 수준의 수출로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이었으나 2008년 처음으로 2백만 달러를 돌파, 이듬해인 2009년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돌파함
- 2010년 수입액이 급감하여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2년 상반기 440만 달러를 수출, 점유율 8.2%로 회복세를 보임

【주요 수입국 철강제품 수입현황】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1	호주	37.5	38.0	33.1	31.8	17.7	33.2
2	중국	24.7	25.0	28.9	27.7	13.4	25.2
3	한국	4.6	4.7	5.6	5.4	4.4	8.2
4	미국	6.4	6.5	4.5	4.3	2.0	3.7
5	이탈리아	1.9	1.9	3.9	3.8	0.8	1.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의 피해 입은 도심지역 대형 건물 복구 수요 증가
- 오클랜드 광역권 주택건설 수요 증가

3)	품목명	농기계(HS : 843290)

○ 시장동향

- 2011년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 (HS : 8432) 수입시장은 미화 3천 4백만 달러 규모였으며 2010년 -13.6%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년 46% 증가세를 보임
- 수요특징: 농부들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유럽 및 미국산 제품이 절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품목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독일과 이탈리아로부터 각각 6백만 달러 정도 수입을 하였으며, 양국의 시장 점유율은 약 35% 수준임
- 수입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은 유럽, 2개국은 북미, 그리고 나머지 1개국이 호주로 이들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88%에 육박함
- 한국의 수출은 2011년 기준 1만 달러로 수출이 미미하지만, 바이어들이 유럽산을 대체할 제품을 찾고 있어 한국산의 향후 전망이 밝음

【주요 수입국 농기계 수입현황】

(단위: US$백만, %)

순위	국가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1	영국	2.7	11.6	5.0	15.0	2.3	18.5
2	이탈리아	4.6	20.0	5.6	16.7	1.9	15.1
3	미국	2.8	12.1	3.8	11.3	1.5	11.7
4	독일	3.1	13.3	6.1	18.2	1.2	10.0
5	프랑스	1.7	7.6	2.5	7.4	0.9	6.9
28	한국	0.007	0.03	0.01	0.03	0.01	0.1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식량 무기화로 인한 뉴질랜드의 농업 확대 가능성 증가
- 현장 전시회에서 느끼는 한국 제품의 인지도 상승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건설용 중장비 및 건설기계
-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는 없으나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을 통한 바이어 상담 주선이 가능

○ 건설 기계용 부품 및 어테치먼트, 건축용 도구
- 뉴질랜드 및 국내 전시회 참가를 통해 바이어와 상담 주선 가능
  · BuildNZ/DesignEX 전시회 ('13년 6월, 뉴질랜드)
  · 2013서울국제건축박람회 ('13년 1월, 서울 COEX)

○ 철강 제품
- 뉴질랜드에서 2년에 한번 개최되는 'EMEX' 전시회 참관 필요
- 전시회 참관 1달 전 바이어 찾기 사전조사대행 혹은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신청으로 바이어 상담 필요
  · EMEX 2014 ('12년 5월 열림, 차기 전시회는 '14년 4월말 예정)

○ 농업, 원예 및 임업용 기계
- 남반구 최대의 농업 박람회인 Fieldays 참가 필요 ('13년 6월 예정)
- 9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약 13만 명이 참관하는 전시회로 참관 1달 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바이어 상담 주선 필요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건축, 건설용 기계의 경우, 뉴질랜드 관련 시장을 4,5개의 대형 건설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이들 대형 건설사에 납품 능력을 가진 중견규모의 업체 공략이 중요함

○ 철강 제품의 경우, 뉴질랜드 내 철강제품 관련 협회에 등재되어 있는 각 업체별 사업 분야를 참조하여 원자재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 원예 및 임업용 기계의 경우, ‘Fieldays’ 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는 것이 아닌, 국가관 등을 운영하여 한국의 농기계 및 부자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이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건축, 건설용 기계의 경우, 1대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의 특성상 많은 수량을 소진하긴 힘들어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철강 제품의 경우, 이미 한국제품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써, 중국 제품의 품질에 실망하고 있는 바이어를 중심으로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
○ 농업, 원예 및 임업 분야의 경우 뉴질랜드 농부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체들에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진출시 유의사항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HS 8429 품목: 수입관세율 5%
- HS 7326 품목: 세부 항목별 수입관세율 5% 또는 비관세
- HS 8432 품목: 비관세

작성자

◈ 아시아지역본부 윤희로본부장
◈ 싱가포르무역관 이상훈과장
◈ 마닐라무역관 허진원차장
◈ 방콕무역관 박영선차장
◈ 콸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과장
◈ 양곤무역관 고성민과장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차장
◈ 호치민무역관 강준경과장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차장
◈ 프놈펜무역관 이형석과장
◈ 비엔티안무역관 이종원대리
◈ 시드니무역관 서유빈과장
◈ 멜버른무역관 문숙미과장
◈ 오클랜드무역관 장수연관장
◈ 신흥시장팀 박대희대리

Global Market Report 12-053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 아시아 · 대양주 〉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